

2026 아프리카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9
가. 정부 현황	09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2
3. 주요 이슈 Pick	18
가. (자원·공급망) 핵심 광물 현지 가공 및 허브화, 주요국 확보전 치열	18
나. (탄소중립) 기후 협력 정책 강화, 청정에너지·탄소 시장 협력 기회 확대	19
다. (소비재)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 변화, 한류 영향도 증가 기대	20
라. (혁신·테크) 디지털 경제, AI 확산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IT 신시장 급부상	21
마. (통상·투자) 원조 중심에서 투자 패러다임으로, 포스트 AGOA 시대	23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6
가. 시장 특징	26
나. 무역	32
다. 산업	43
라. 투자	49
2. 유망 산업	57
가. 인프라	57
나. 의료	60
다. 소비재	62
라. AI	64
3. 협력 기회	68
가. 통상·G2G	68
나. 프로젝트	69
다. 공급망(자원 개발)	71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76
2. 진출전략	78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92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96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99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101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9 |
| 3. 주요 이슈 Pick | 18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2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경제성장률은 4.4%로 전망(IMF(국제통화기금), '25년 10월)

- 글로벌 평균 성장률(3.1%)을 상회하며 중장기 성장 잠재력 강화 예상(IMF, '25년 10월)
- '25년 SSA 경제성장률은 3.8~4.1%, 세계 평균은 2.3~3.2% 예상(WB(세계은행), IMF, '25년 10월)
 - 높은 부채 비용, 정책 변동성, 대외 수요 둔화 등 리스크는 있지만 내수 회복, 민간 투자 확대, 일부 자원국 성장세 반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

□ (호재 요인) 거시 안정, 투자 회복, 자원 반등이 맞물려 성장 모멘텀 확대

- 인플레이션 안정 및 통화 완화 여지 확대
 - 최근 SSA 다수 국가에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완화 가능성은 모색하고 있음
- 민간 투자로 비자원국 성장세 강화 전망
 - 비자원 부문의 투자 회복은 '26년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자원국의 반등과 수출 회복
 - 광물, 금속, 원유 등 산업 원자재 가격이 전 세계 수요 회복과 맞물려 일부 주요 자원 수출 국가들의 생산이 회복되고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

□ (부진 요인) 부채 부담, 인프라 제약, 대외 불확실성이 성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

- 높은 공공 부채 및 재정 여력 제한
 - 많은 국가에서 높은 부채 수준이 지속되어 이자 부담에 공공 투자 여력 축소, 외부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자본 유출 우려도 재정 압박 심화
- 인프라 제약
 - 전력 부족, 교통·물류 인프라 미비, 제도 불확실성 등이 기업 활동과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남음

- 외부 충격 위험 및 글로벌 불확실성
 - 글로벌 무역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이 SSA 수출국들에게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기후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지역 분쟁 심화 가능성도 불안 요소

□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1,041	1,065	1,091	1,118	1,146	1,175	1,204	1,234
명목 GDP	십억 달러	2,018	1,870	2,085	2,224	2,087	1,917	2,081	2,255
1인당 명목 GDP	달러	1,937	1,756	1,910	1,990	1,822	1,634	1,729	1,828
실질 성장률	%	3.1	-3.1	3.8	4.4	3.7	4.1	4.1	4.4
실업률	%	6.3	6.8	7.0	6.2	5.9	5.8		
소비자물가 상승률	%	9.6	12.4	12.4	16.1	19.4	20.3	13.1	10.9
재정수지(GDP 대비)	%	-3.7	-5.9	-4.6	-4.1	-3.8	-3.8	-3.8	-3.6
총 수출	백만 달러	340,022	294,087	391,966	441,730	421,336	438,063		-
(對韓 수출)	백만 달러	5,019	4,210	6,856	9,366	7,527	7,352	5,010 ^{~03누계}	
총 수입	백만 달러	377,432	312,285	398,854	479,539	471,020	470,035		
(對韓 수입)	백만 달러	6,332	5,850	9,129	11,076	9,120	9,463	7,266 ^{~03누계}	
무역수지	백만 달러	-37,410	-18,198	-6,888	-37,809	-49,684	-31,972		
경상수지	백만 달러	-51,249	-44,075	-15,484	-44,243	-50,409	-27,935	-35,562	-39,584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4	21	41	28	-14	12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29	312	728	394	420	464	-	-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자료: IMF('25년 10월), WB('25년 6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25년 9월), GTA('25년 10월), Trade Map('25년 10월)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아프리카는 '26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
 - 인플레이션 정상화 진전, 긴축 통화정책 해소, 최근 몇 년간 추진된 구조 개혁이 성장의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음
 - '26년에는 전력·물류 개선, 민간 투자 재개, 자원국 생산 회복이 뒷받침하며 4.4%로 가속 전망, 중기 성장 궤도 복귀 시그널로 평가(WB, '25년 6월)
 - 다만 아프리카의 잠재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높으며 정책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정부 재정 적자는 상시 관리 과제로 지적됨

- 또한 1인당 소득 증가는 '25~27년 연평균 1.6%에 그쳐 생활수준 개선 체감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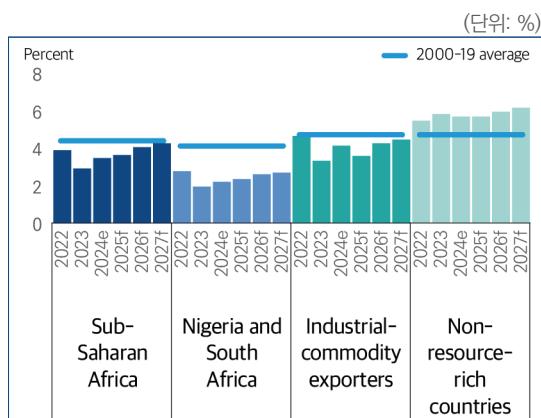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GDP 성장을 전망

	IMF	세계은행	EIU
2025년	4.1%	3.8%	3.7%
2026년	4.4%	4.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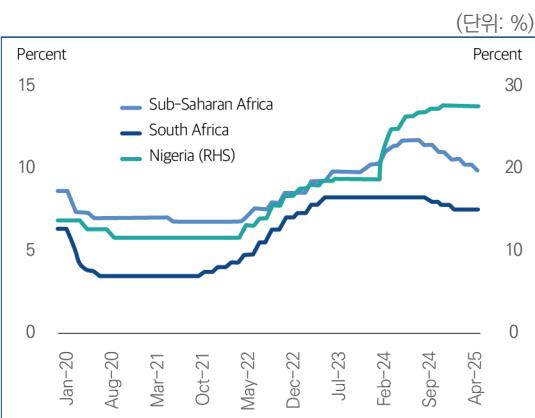
자료: IMF('25년 10월), WB('25년 6월), EIU(북아프리카 포함, '25년)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둔화로 통화 긴축, 국가별 속도 차이 있을 것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고 탄자니아 역시 물가 안정 속 금리 완화 검토 중이며 나이지리아는 '20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
 - 한편 에티오피아는 물가 둔화에도 긴축을 유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면서 재정 완화 방향은 같지만 환율 민감도와 식품, 연료 비중 등 구조적 차이로 완화 속도는 상이

〈SSA 경제성장률(그룹별)〉



〈SSA 기준금리 전망〉



자료: WB('25년 6월)

- (소비) 물가 안정에 실질소득 회복, 민간 소비가 성장의 핵심 동력 될 것
 -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 사이클 중단, 통화 완화 전환으로 가계 금융 여건 개선 기대
 - 민간 수요(소비 + 투자) 증가가 '26~27년 4%대 성장의 직접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세계은행)

- (민간 투자) 금리와 환율 안정에 설비투자 재개, 비자원국에 대한 투자 증가
 - 구조 개혁과 민관협력(PPP) 파트너십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 재가동으로 자본재,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 예상(IMF)
 - 특히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지역이 내수 기반과 서비스업 성장을 바탕으로 투자 흐름을 선도하고 있음
 - 차입 비용과 일부 국가 부채 부담이 투자 심리 제한, 다자·양자 지원 연계 세입 기반 확충, 보조금 구조 개편 등 성장을 해치지 않는 부채 안정화가 관건
 - 가나 IMF 4차 평가 통과 등 일부 국가는 개선 조짐이 있으나 전반적 조달 비용은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
- (산업생산) 석유, 광물 생산 회복 및 제조 광공업 성장 탄력 확대 전망
 - 자원국의 생산 회복과 정비 투자 재개가 본격화하면서 '26년 제조업과 광공업 부문 성장 확대 예상
 - 농업, ICT, 운송 등 서비스 연계 산업이 '25~26년 광범위한 고용,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WB)
 - 전력·물류 병목이 완화되면 제조와 가공 수출 회복 예상, 특히 남부와 동아프리카 항만·철도 프로젝트로 생산과 출하 안정성 개선 기대
- (대외 교역) 글로벌 수요둔화 및 무역 긴장에도 SSA는 완만한 개선 전망
 -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역내 교역 통합이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WB)
 - 다만 AGOA(아프리카성장기회법)이 종료되며 의류·섬유 분야 역내 수출 기업 관세 부담 직격탄, 향후 재승인 또는 신규 특혜제도 여부가 '26년 교역의 주요 변수 될 것
 - 중국이 아프리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제안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기반 다변화 예상(Reuters)
 - 한편 SSA 교역은 국내 수요, 환율 안정성, 물류 비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거시 경제 안정성과 전력·물류 병목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수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IMF)
- (원자재)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
 - 브렌트유 가격은 '26년 배럴당 60달러 전망, 금속과 광물 가격도 완만한 하락세 예상
 - 자원 수입국인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에는 순풍, 자원 수출국인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나 등에는 재정 수익성 측면에서 역풍
 - 그럼에도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핵심 광물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해 투자를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

- (투자 유입) '24년 기준 아프리카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입 970억 달러로 연간 75% 급증
 - 최근 제조, 재생에너지, 광물가공 분야에서 품질 높은 FDI가 빠르게 유입되는 특성이 두드러지며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재가동된다는 긍정 신호
 -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국 투자 촉진 정책도 확산
 - 다만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의 그린필드 투자는 부족하다는 점과 분쟁, 부채, 정책 불확실성 등이 문제로 상존
- (투자 진출) 역외 진출은 제한적, 역내 주요국이 인접국 확장을 지속
 - 아프리카 기업들의 역외 진출은 선별적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의 기업들이 광물, 소매, 금융, 통신 분야에서 주변 국가로 확장 중
 - 글로벌 금리 정상화, 환율 안정이 진전될 경우 역내-역외 M&A 재개 예상

2. 정치(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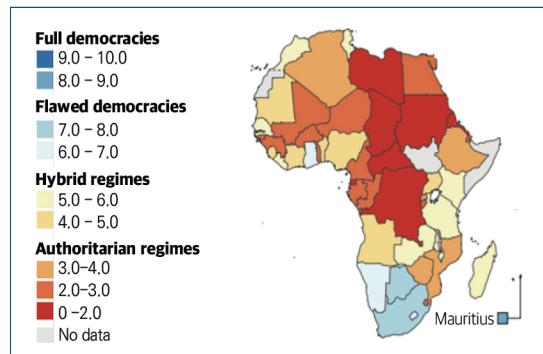
- 최근 다수 국가가 선거 후 정권이 유지되었으나 정책 추진 속도는 완만
- 제조업·인프라·투자 유치 중심 산업 다각화 정책 강화, 우리 기업 진출 기반 확대
-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관련 정책과 ESG 정책 강화로 통합 시장·지속가능 사업 환경 조성

가. 정부 현황

□ 정치적 전환기 속 안정적 성장 기반을 모색하는 SSA 각국 정부

- '24~25년 SSA는 선거, 정권 재편을 거치며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되 속도는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
 - 특히 다당제 체제 하에서 정당 간 연합 변화, 당 소속 이동 등으로 정책 연속성이 부족해 정부 안정성, 정책 일관성이 약화된 상태
 - 이에 거시 안정, 부채 관리, 투자 활성화가 SSA 국가들 공통 어젠다로 부상
- 전반적으로 SSA 국가들은 제도 역량이 제한된 상태로 정치 변동 및 리스크 충격에 대한 방어 완충 능력은 낮은 편
 -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보고서에 의하면 치안 악화, 민주 참여 환경 축소, 제도 신뢰 저하 등이 SSA 주요 경고 요인으로 지적
 -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들은 정책 안정성과 개혁 기대가 반영되며 운영 리스크가 개선되고 있음
 - 반면 사하 지역, 수단 등은 내전이나 정치 분쟁 우려가 있으며 이 같은 안보 위기, 내전·분쟁, 행정 역량 약화가 거버넌스를 후퇴시키는 요인

〈아프리카 민주주의 지수〉



〈아프리카 거버넌스 지수〉



자료: EIU(좌), Mo Ibrahim Foundation(우, '25년 10월 현재 최신 자료)

□ 제도적 발전을 향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의 노력 확대

- 정치적 불안정성은 있지만 선거 자체는 대부분 예정대로 치러지고 있고 이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신호로 평가
- AfCFTA도 협정 이행이 단계적으로 진전되어 이 또한 국가 간 정치적 협력과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
- 더욱이 IMF,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WB 등 국제 금융기관들이 SSA에 재정 지원 + 정책 개혁 조건부 대출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진 중

※ 주요 국가별 정치 환경

-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여·야 연립 국민통합정부(GNU) 출범, 연정 내 정책 조율 난항
 - '24년 총선에서 30년 정권을 잡았던 ANC(아프리카민족회의)가 과반 의석을 잃고, 제1야당인 DA를 주축으로 한 중도 성향의 GNU 구성
 - 연정 내부 정당 간 이해관계 충돌로 재정 문제, 인종 형평성을 위한 정부 개입, 정치적 부패 대응 방식 등에서 계속 충돌해 여러 정책의 집행이 지연
 - 그럼에도 GNU 구성으로 정치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
 - 현 지방의원 임기는 '21년 11월에 시작되어 5년 임기인바, '26년 연말 또는 '27년 초에 선거가 치러질 예정
- (나이지리아) 티누부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도 권력을 유지하며 개혁을 심화하고 있으며, '26년까지 투자자 친화적 통치 기조를 이어갈 전망
 - 나이지리아는 대통령제 연방공화국으로, 무하마드 부하리 전 대통령 이후 '23년 5월부터 범진보당(APC) 소속 볼라 티누부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 중
 - 티누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식료품·교통·에너지 등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발생
 - 이에 연방정부는 최저임금을 월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인상하고 필수 식품 및 제약 원자재 수입 관세를 일시 감면하는 한편, 기준금리를 26.2%에서 26.7%로 올리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와 거시 경제 안정을 도모 중
 - 종교·민족 갈등 해소와 정부 부패 근절은 나이지리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이며, 이들 문제는 서로 얹혀 사회 안정 및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중
- (케냐) 케냐는 다당제 민주공화국, 내각은 헌법 제152조에 따라 대통령, 부통령, 검찰총장, 부처 및 내각 장관들로 구성
 - 대통령은 5년 임기, '22년 통합민주동맹(United Democratic Alliance, UDA) 후보로 대선에서 승리한 윌리엄 루토가 현재까지 대통령직 수행
 - 케냐는 '10년 헌법에 따라 양원제 의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원인 국민의회(350명)와 상원인 상원(68명)으로 구성
 - 지난 '24년 10월 가샤구아 부통령이 정치적 불복종, 부족주의 조장, 대통령 협박 등 11개 혐의로 탄핵당했으며, 이후 키투레 키디키가 신임 부통령으로 임명
 - '25년 1월 UDA가 ANC(아마니 국민의회)와의 합당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족 기반 정치 개선과 정당 통합을 도모하고 있음

- (가나) 직접 선거에 의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된 국가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보유함
 - '25년 1월 신정부 출범, 반수 이상 지지로 국정 운영 동력 확보
 - '24년 12월 대선에서 NDC의 마하마 후보는 56.6% 득표율로 41.6%의 직전 정부 집권 여당 바우미아 후보를 누르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
 - 같은 날짜 의회 선거 결과, 전체 의석 275석 중 NDC 183석으로 67% 확보
- (모잠비크) 독립 이후 현 여당(FRELIMO)의 연속 집권으로 정치적 안정 지속
 - '24년 10월 대선에서 프렐리모당의 다니엘 차포 후보가 65.2%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 집권당의 의회 지배력 유지
 - 선거 과정에서 부정 의혹과 야권의 반발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확정('24년 12월)하며 '25년 1월부터 차포 대통령 취임, 프렐리모 정권 유지
 -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차포 대통령 취임 후 정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음
 - 집권당 프렐리모가 의회 과반을 유지함에 따라, 전 정부가 추진해온 LNG·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들은 큰 변동 없이 계속 진행될 전망
- (에티오피아) 현 정부, 정치·사회적 불안정에도 '26년 총선(잠정)에서 정권 유지 전망
 - 아비 총리가 이끄는 번영당(Prosperity Party, PP) 정부가 '26년 종료되는 현 임기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나, '22년 체결된 북부 티그레이 지역 행정부와의 평화협정 그리고 암하라·오로미아 지역의 활발한 반란 활동은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이 사회경제적 불안을 부추기는 가운데 정치적 도전 과제로 작용 전망
 - '25~'26년은 북부 지역의 주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정부는 여러 분쟁 지역의 공식 행정적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종식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코트디부아르) '25년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치적 긴장 고조
 - 10월 25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긴장과 갈등 재발 우려 존재
 - 일부 야권 인사의 후보 자격 제한, 선거 절차 논란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
 - 사회·지역 간 분열, 종파 갈등, 선거 관리 투명성 부족 등은 선거 전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 가능
 - 현 집권당(Rassemblement des Houphouëtistes pour la Démocratie et la Paix, RHDP)은 와타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강력한 여당으로 활동 중
 -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며 국회(Assemblée Nationale)와 상원(Sénat)이 있음
- (탄자니아) '25년 10월 대선·총선에서 현 대통령 당선으로 기존 여당 CCM의 재집권
 - 현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 재선
 - 선거 과정에서는 야권·시민단체의 시위와 단기적·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폭력 확산
 - '26년 이후 안정적 국정 운영 및 정책 일관성 강화 전망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민간 투자, 내수 회복 중심의 거시 정책 리셋(금융 완화 + 재정 개혁)

- 최근 1~2년간 인플레이션 완화와 함께 통화 긴축 종료·완화 기조 확산, 민간 투자 회복과 내수 견인을 목표로 정책 미세 조정 진행 중
 - IMF와 WB는 SSA에 대해 재정건전화(보조금 합리화, 세입 기반 확충), 환율 및 지출 효율화를 병행 과제로 제시
 - 금융 여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경우 설비투자 정상화 수요가 커질 전망
 - 단, 정부 부채나 이자 부담이 높은 국가는 프로젝트 속도가 더딜 수 있으며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변수도 고려 대상

□ 안정적인 사회 구축을 위해 각국 정부는 경제, 산업 부양 정책 추진 중

- 정부 주도의 제조업 기반 확충, 다양한 산업 육성, 인프라 개발, 소비 시장 확대 등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
 - 각국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기업 규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수행
-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를 위해 특별경제구역,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운영하며 입주 기업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역내 통합,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 양허, 원산지 규정, 통관 디지털화 추진

- AU(아프리카연합)-AfCFTA는 '24년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무역 의정서 채택, 투자 의정서 부속 작업 가속, 조정 기금 운영화 등을 의결
 - 회원국들은 관세 양허, 원산지 규정, 통관 디지털화를 단계적으로 이행 중
 -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아프리카 현지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 공정, 소싱 구조를 조정 중, 특히 자동차, 의약품, 섬유 분야에서 역내 조달 비중을 높이는 추세
- * 다국적 기업 Unilever는 아프리카 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공급 업체 전환 계획 공개, 원재료 역내 조달 비중을 기존 1/3 수준에서 훨씬 더 높이겠다고 발표

※ 국가별 정책·규제 환경

- (남아프리카공화국) 제6기 산업정책은 △ 세계 녹색 경제·기술 혁신 도입, △ 아프리카 경제 성장·발전과 연계된 무역정책, △ 정부 제도적 역량과 민간 부문과의 생산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초점
- 주요 산업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8개 주(州)에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운영 중

- 정부는 공정 에너지 전환(JETP, Just Energy Transition Plan) 추진 중, 이를 통해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 현지 자동차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 생산 개발 계획(APDP, 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시행 중
- 최근 변경된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차원의 기후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위해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통과
 - 국영 전력공사인 Eskom으로부터 송전 기능을 분리해 별도 법인인 NTCSA(National Transmission Company of SA) 설립
 - 입찰 비리, 로비, 중복 계약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조달 체계 전면 개편
 - 전기차(EV) 및 배터리 현지 생산 촉진책 발표, OEM과 관련 제조 인센티브 제공 예정
- (나이지리아) 연료보조금 폐지·환율 단일화·세제 개혁 등으로 거시 경제를 재정비하고, 대규모 예산 확충·산업 정책·환경 및 디지털 규제 개편을 통해 '1조 달러 경제' 달성을 목표로 포괄적 구조 개혁을 추진
- 정부는 연료보조금 폐지, 외환 환율 단일화, 세제 개혁, 전자외환매칭시스템(EFEMS) 도입 등 주요 개혁을 시행하여 재정 여력 확보와 환율 안정화를 도모함
 - 중앙은행은 고금리(27.5%) 정책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지속 중이고, 세제 개혁 성과로 세수가 전년 대비 43% 증가함
 - '새 희망 개발계획('26~'30)'을 승인하여 '30년까지 1조 달러 경제 달성을 목표로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
- '25년 예산은 54조 9,000만 나이라(약 36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인프라·안보·보건·교육 분야에 중점 배분됨.
 - 부채 상환액이 급증하며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되나, 정부는 세입 확충과 내·외자 차입 병행으로 재정 운용 안정화를 도모함.
- '신희망 실행계획(2023)'·'국가개발계획(2021~2025)'·'새 희망 개발계획(2026~2030)'을 통해 경제 다각화, 인프라 투자, 인적자본 강화, 빈곤 완화 등을 종합 추진 중임
 -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NAIDP 2023~2033)을 통해 조립생산 단계별 세제 혜택을 부여, 현지 생산 비중 확대를 유도함.
- 기타 주요 정책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식품·의약품·중고차 등 25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원유 수출에는 실시간 화물추적제와 사전 신고 의무를 도입함
 - '25년 데이터보호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 규제 도입으로 ICT 및 핀테크 산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 (케냐) 케냐는 EU·미국·UAE 등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EAC(동아프리카공동체) 역내에서는 갈등과 협력이 병행되는 복합적 통상 국면
 - 케냐는 '24년 이후 EU·미국·UAE와 각각 EPA(경제동반자협정)·STIP(전략적 무역·투자 파트너십)·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시장 다변화와 투자 유치에 주력 중임
 - EU와는 농산물 무관세 수출, 관세 단계적 인하 포함 EPA 발효('24년 7월)
 - 미국과는 STIP 협상을 통해 AGOA(아프리카성장기회법) 이후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나 일부 이견으로 체결 지연 가능성 존재
 - UAE와는 CEPA 체결을 통해 관세 인하·투자 확대·물류 협력 강화 기대

- 역내적으로는 EAC 회원국 간 갈등과 협력 병행 중
 - 우간다와는 석유·송유관 협력 복원, 르완다·우간다 등과는 북부회랑 철도(SGR) 연장사업 추진, 수단·남수단 중재 등 지역 외교 역할 확대
 - 반면 탄자니아와는 외국인 사업 금지령 및 차별적 세제로 갈등 격화
- (가나) 농업과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 'Feed Ghana' 이행으로 국내 농업 생산 및 식량안보 강화
 -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쌀과 같은 주요 식량 생산량 증대 목표
 - 농민 서비스 센터 도입(기계화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제공), 가나 북부 지역 소규모 농가에 대한 재정 지원, 관개시설 등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 인프라를 갖춘 농업 생산 단지 조성 등이 포함
 -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까지 올릴 계획,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및 녹색 전환 기금'을 운영
 - 태양광 가로등, 옥상 태양광 설치,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소, 충전식 선외 모터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촉진 예정
- (모잠비크) LNG·광업 중심의 자원 개발과 전력·사회 인프라 확충, IMF 협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로 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
 - 정부는 '25~29년 5개년 계획을 통해 LNG 및 광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TotalEnergies의 Area 1 LNG 재개와 Coral North FLNG('28년 예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 천연가스 자국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발전·비료·연료·도시가스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스차량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에너지 구조 다변화 추진 중임
 - 전력 보급률을 '29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송전망 및 발전설비를 대폭 확충할 계획
 - 교육·보건·주거 등 사회 인프라 건설을 통해 빈곤 완화와 생활수준 향상 동시에 도모
 - '25년 IMF와 새로운 확대신용 기금(ECF) 체결 협상 중이며, 재정 건전성 강화 및 공공 부채 관리 개선이 핵심 과제
 - 수출 외화의 50%를 자국 통화로 의무 환전도록 하여 외환 유동성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달러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에티오피아) IMF 지원 아래 경제 자유화·환율 자율화·금융시장 개방 등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확대
 - 에티오피아 정부는 '자체 경제개혁 의제(Home-grown Economic Reform Agenda)'를 기반으로 경제 자유화, 민영화, 부채 관리 및 통화 안정화를 추진
 - IMF의 확대신용제도(ECF) 프로그램에 따라 4년간 총 26억 SDR(특별인출권, 약 34억 달러)이 승인 되었으며, '25년 7월 말 기준 이미 15억 달러 이상이 지급되어 재정 안정 전망 개선
 - '24년 이후 금리 기반 통화정책 및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외환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IMF 개혁 조건의 핵심 사전 조치로 평가
 - '25년에는 외국인에게 생두 수출 참여를 허용하고,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농산물 수출 시장을 개방함.
 - '25년 3월 첫 투자은행 라이선스 발급(CBE Capital, Wegagen Capital)으로 금융 산업 다각화 기반을 마련
 - 외국계 은행 지분 최대 40%, 외국인 총 보유 한도 49%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금융 시장 개방을 본격화

- (코트디부아르) EU 산림규제(EUDR), 무역 디지털화, 재생에너지 확대, 로컬 콘텐츠 강화 등 신규 제도 시행으로 수출·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
 - '25년 12월부터 커피·카카오·고무 등 산림훼손 리스크 품목에 대해 '산림 비침해·추적성' 입증이 의무화 되며, 미이행 시 EU 수출 제한 및 평판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큼
 - 한국 기업은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농가 ID·디지털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산지 추적성 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코트디부아르는 무역 단일 창구(GUCE-CI)를 통해 수출입 절차의 95% 이상을 전자화하고, 향후 전자결제·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 예정임
 - 모든 수출입 기업은 전자 통관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며, 미준수 시 통관 지연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정부는 '30년까지 전력 믹스 내 재생에너지 비중 42% 달성을 목표로 하며, 태양광·수력·풍력 프로젝트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
 - 발전 장비 입찰 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 입증이 필수
 - '25년 개정된 투자 코드에 따라 현지 고용·조달·기술이전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PPP·정부조달 참여 시 현지 기업 참여율과 기술이전 계획 제시가 의무화

□ 탄자니아

- Vision 2050을 통해 산업·서비스 중심 경제로 구조 전환 추진
 - '50년까지 1조 달러 경제 달성을 목표로 Vision 2050를 대체할 장기 발전 전략 수립
 - 에너지·인프라·광업·농업 현대화·서비스 산업을 5대 축으로 설정
 - 기후변화 대응, 녹색 성장,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
- PPP 확대와 산업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대규모 인프라(에너지·철도·항만·물류 등)에 공공-민간협력(PPP) 적극 도입
 - 제조업·첨단 서비스업 육성으로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다변화 추진
 - Vision 2050은 중산층 주도 성장 및 아프리카 역내 공급망·무역 허브 도약을 목표로 함
- 소규모 영세 산업 부문 외국인 진출 제한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PDPA) 시행으로 기업의 데이터 관리 책임 강화

□ 역내 ESG를 반영한 사업 환경 중요성 확대

- SSA 역내 주요국 중심으로 ESG 투자 및 국제적 요구 확대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ESG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 투자 흐름이 강화 되는 추세, 특히 FDI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환경, 사회 리스크 관리 능력이 투자 유치의 경쟁 요인으로 작용(WB)
 - 기후 및 자연 자원 리스크(산림 훼손, 수자원 부족, 토지 이용 압력 등)가 ESG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MDB(다자개발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ESG 중요성 강조
 - 많은 SSA 국가가 국제 금융기관의 조건부 대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ESG와 정책 개혁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중

- Afreximbank(아프리카수출입은행)가 최근 투자 포트폴리오의 사회 환경적 성과를 처음 체계적으로 공개, MDB와 아프리카 금융기관이 ESG를 투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점을 시사

※ 주요 국가별 ESG 동향

□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들의 의무

- '24년 7월부로 시행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Environmental) 부문에 대한 법적 의무 강화
 -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확히 보고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과 성과도 보고, 또한 기후변화가 자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 사회(Social) 부문은 고용 평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
 - 인종, 성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고용될 수 있게 고용법을 개정하면서 기업들이 사회적 약자가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운영 필요
 - 또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지역사회 개발, 교육 지원, 보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권장함
-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은 JSE(요하네스버그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연간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리스크도 공시 의무화
 - 이사회 구성, 경영진 보상,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의무 포함, 주주 및 투자자가 기업의 운영 방침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함

□ (나이지리아) '50년까지 탄소 순 제로 달성을 약속

- 기후변화법('60년 탄소중립 목표) 시행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확산 등 환경정책을 강화

□ (케냐)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에너지 전환 및 투자 계획(ETIP) 발표로 녹색 성장 본격화

- 케냐 정부는 글로벌 ESG 흐름에 맞춰 농업과 에너지 부문 전반의 친환경 전환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농업에서는 해충방제제품 규제('24년) 시행으로 미등록 농약 수입 금지, 고위해 농약(HHP) 시장 퇴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및 EU MRL(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친환경 작물보호제와 생물 농약 수요가 확대 중임
 - 신선채소의 對EU 수출 감소(-54.7%) 사례를 계기로 GlobalG.A.P·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 인증 확대, 통합병해충관리(IPM) 도입 등 지속가능 농업 체계로 전환 중임.
- 케냐는 '3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지열·수력·풍력·태양광 기반 전원 구조를 확립 중임.
 - '24년 기후투자기금(CIF)으로부터 4,640만 달러를 지원받아 민관 합산 최소 2억 4,000만 달러 이상 투자 유치가 전망됨.
 - 또한 넷미터링(Net-Metering) 제도를 도입해 개인·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를 허용, 향후 전력 거래 시장 확대를 준비 중임.
- 정부는 '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녹색 성장 로드맵을 수립
 - △ '30년 온실가스 32% 감축 △ '4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확충 △ 스마트그리드·배터리 저장·e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중
 - 특히 EV버스 실증사업, 그린수소 연구, PPP 기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아프리카 최고 수준(90% 이상)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

- (가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자 협정 이후, 적극 이행
 - 파리협정 6조에 의거,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하여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르와 협정을 맺고 국가 간 탄소절감 실적 이전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공동 이행 중
 - 국가 탄소감축 목표는 6,400만 톤이며, '24년까지 3개 감축 사업 승인
- (모잠비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기후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25년 NDC 로드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까지 7,650만 톤 CO₂로 줄이는 것을 목표
 - 해당 로드맵은 농업, 운송,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하며, 정부 내 21개 부처와 협력하여 수립함
- (에티오피아) 세계 최빈국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당면 과제여서 ESG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 Fitch Solutions BMI에서 발간한 ESG Country Report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전반적인 ESG 리스크는 매우 높으며, 이는 향후 10년 동안 지속될 전망
- (코트디부아르) 환경 에너지 효율 라벨링 제도 의무화, 진출 기업 의무 강화 전망
 - '24년 7월 1일부로, 에어컨, 냉장고·냉동고 및 전기 조명기구 수입 시 주재국 정부로부터 발급된 에너지효율 등급 스티커 부착 의무 시행 발표
 - '20년 11월 27일 제정된 법령에 따라 코트디부아르로 수입되는 전기램프기구, 에어컨, 냉장고 및 냉동고에 대한 에너지 효율 테스트 및 라벨링 의무화
 - 주재국 정부는 동 규제 시행 목적을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전력 수요 관리에 이바지하고, 취약 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함이라고 밝힘
- (탄자니아) ESG 경영이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 사항
 - 다례살람증권거래소(DSE)는 '22년 3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에게 ESG 성과를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배포
 - 동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을 참조하여 해당 산업에 가장 적합한 접근 방식을 택하도록 안내
 -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환경을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생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는 등으로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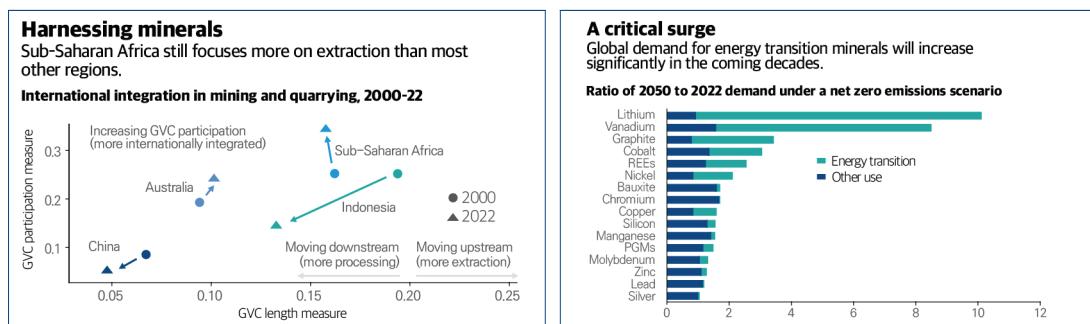
3. 주요 이슈 Pick

가. (자원·공급망) 핵심 광물 현지 가공 및 허브화, 주요국 확보전 치열

□ 주요 전략 광물 현지 개발 정책

- SSA 다수 국가가 투자 유치, 고용 창출, 광물 부가가치 제고, 밀수 방지를 위해 원석·원광 수출을 제한·금지, 현지 가공 과정을 의무화하는 정책 강화
 - * 짐바브웨, 나미비아, 탄자니아, 리튬·망간·코발트 원석 수출을 제한, 가공 거쳐야 수출 허용
- 아프리카연합(AU), 'Africa Mining Vision'으로 광물 가공 및 수출 허브화 추진
 -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은 구리·코발트 벨트를 기반으로 역내 공급망 허브 구축,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는 백금족 금속(PGM)과 다이아몬드 글로벌 가공 허브 육성

〈SSA 광업 구조 : 채굴 중심에서 가공 산업으로의 전환 과제(좌), 글로벌 에너지 전환 광물 수요 전망(우)〉



주: '20~22년, 오른쪽 채굴 중심에서 왼쪽 가공·제조 중심으로 점점 이동 중인 SSA

자료: IMF('24년 4월)

□ 글로벌 주요국 진출 및 투자 현황

- 보스턴컨설팅그룹, 핵심 광물 수요는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광산 고갈, 광석 품질 저하, 수출 제한, 리쇼어링 정책, 자원민족주의로 광물 경쟁 증가 경고
- 중국,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SSA 전략 광물 공급망 선점 경쟁
 - 중국은 채굴부터 정제까지 수직 통합 전략으로 SSA 다수 광산 장기적 선점
 - EU는 SSA와 광물 안정 공급 협정 체결, 녹색 전환 관련 광물 확보에 집중
 - 미국도 광물 벨트와 연결되는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 등 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는 지속
 - 일본은 자원 외교로 광물 탐사와 개발 참여 확대, 배터리 소재 광물 확보 초점
 - 캐나다, 호주 등은 탐사 및 광산 개발 프로젝트 주도

□ 시사점

- (관련 분야·산업) 광물 제련·가공 설비, 기술이전, 인프라 등 신 수요 확대
 - 광물 가공, 운송, 물류, 금융 등 연관 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도 제고
- (우리 기업에의 영향) 한국은 자원 수입 의존이 높은 국가로 핵심 광물 공급 안보가 시급한 과제인바 SSA 전략광물 공급망에 적극 참여 필요

나. (탄소중립) 기후 협력 정책 강화, 청정에너지·탄소 시장 협력 기회 확대

□ SSA 주요국 탄소중립 및 기후 협력 추진 현황

- 주요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
 - (남아프리카공화국)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억 5,000만~4억 2,000만 톤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로 감축, '50년 탄소중립(Net Zero) 목표 선언
 - (케냐)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2%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 (나이지리아) '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 가스 전환 및 재생에너지 개발 병행
-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별 정책 및 국제 협력 동향
 -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정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23~28년 84억 달러 규모의 국제 재정 지원 확보,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 (케냐) 풍력, 태양광 중심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PPP 프로젝트 진행
 - (모잠비크) 그린수소 전략 수립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청정에너지 분야 유망, SSA 탄소배출권 시장도 주목

- 청정에너지 분야에 SSA 투자 확대, SSA 주요국은 이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수출형 수소 프로젝트 추진,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
 -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이 PPP(민관협력), 컨소시엄 방식으로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 수소 생산 및 수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 모잠비크는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 및 수출에 박차
 - 가나는 원자력 프로그램 도입 3단계 중 2단계 진입, '30년 1GW 발전 목표, 에티오피아는 러시아와 원전의 건설을 위한 행동계획 공식 서명
 - AfDB, WB 등 국제 금융기관이 녹색 전환 펀딩과 보증제도 지원



해외 기업 성공 사례

- 미국 기반 재생에너지 개발사 Sterling & Wilson Renewable Energy와 인도 기반 EPC 기업 Sun Africa, 나이지리아에 총 22억 달러 규모로 태양광 발전 및 배터리 저장장치(BESS) 프로젝트 진행
 - 이 프로젝트는 나이지리아 국영 전력 회사가 발주한 것으로 약 15억 달러(태양광 발전 961MWp, 배터리 저장장치 455MWh 결합) 규모
 - 자금 조달은 나이지리아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입은행이 주요 보증 및 자금 조달을 지원했으며 ING Bank나 Citi 등 국제 은행들도 금융 파트너로 참가
 - 이는 나이지리아 에너지 전환 계획과 맞물려 PPP 모델의 모범 사례로 평가

□ 시사점

- (관련 분야·산업) 태양광·풍력·수소 생산, 저장 및 수출 인프라, 송배전망 현대화 등은 국제 투자 및 PPP 확대와 맞물려 수요 급증 전망
- (우리 기업에의 영향) 기존 진출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
 - 탄소배출권 거래의 경우 SSA 주요국과 한국 간 협력 의제로 발전 가능

다. (소비재)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 변화, 한류 영향도 증가 기대

□ '25년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 프리미엄화와 디지털 전환

-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 시장 중 하나로 최근 소비자 행동, 기대, 구매 습관에서 변화 가시화
 - '25년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에서 품질이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으로 부상, 소비자들은 단순히 저렴한 것보다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브랜드 선호
 - 오프라인 대형 마트가 주요 유통 채널이긴 하지만 비공식 유통망(Spaza)과 온라인 플랫폼도 빠르게 성장, 특히 뷰티 제품이나 가공식품 온라인 점유율 확대
- 중산층 확대와 백만장자 증가가 고급 소비 수요를 뒷받침, 아프리카 럭셔리 시장은 '25년 64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Statista)
 - * 아프리카 백만장자 수는 '33년까지 65% 증가 예상
 -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양골라 등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단독 매장이나 고급 쇼핑몰 입점을 통해 적극 진출

□ 아프리카에서도 한류 점진적으로 확산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류가 형성되고 점차 확산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현지어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줄루로 더빙되어 방영(Viu)되고 있으며, 한국 문화 영화 'K-pop Demon Hunters'가 두 달간 상위권 랭크
 - 나이지리아에서는 'My Sunshine'이라는 현지 영화가 K-드라마 요소와 한국어 표현을 융합해서 제작·공개 후 한 달 만에 백만 뷔 돌파
 - 케냐와 가나에서도 K-드라마와 영화, K-팝이 도시 청년층 중심으로 인기

〈나이지리아에서 제작된 K-영화 'My Sunshine' 포스터〉



자료: My Sunshine YouTube 채널('24년 10월)

□ 시사점

- (관련 분야·산업) 화장품, 가공식품, 가전, 패션 등 프리미엄 소비재 제품군 수요가 SSA 지역에서도 한류를 바탕으로 점차 늘어날 수 있는 구조
- (우리 기업에의 영향) 도시 청년층과 중산층을 타깃하여 온라인으로 K-컬처 연계 마케팅을 진행하면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와 관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라. (혁신·테크) 디지털 경제, AI 확산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IT 신시장 급부상

□ 디지털 전환 현황

-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시장 규모는 '25년 302억 달러에서 '30년 633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Mordor Intelligence)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주요국들은 국가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스마트·디지털 ID를 전 국민에 발급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인터넷 보급도 확대 중

- 민간에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다수 개소하고 있으며 WB도 1억 달러를 투자해 6개국 데이터센터 건설
- AfCFTA 디지털무역의정서 발효로 대륙 차원의 공동 규범 마련, 각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 청사진 강화
- 아프리카 디지털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 '12년 GDP의 1.1% 규모에서 '25년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Further Africa)
 - 모바일 결제 송금(M-Pesa, MTN MoMo) 지속적으로 확산, 아프리카 디지털 결제 경제는 '30년 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Mastercard)

□ 선택과 집중, AI와 지속가능성

- 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투자 다소 감소, 그러나 성장이 보장된 후기 단계 기업이나 유망 분야는 여전히 활발
 - 특히 핀테크는 수익성이 높아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 경제활동을 공식화해 세수를 확대하고 무역금융 비용을 줄이는 등 SSA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평가
 - '25년 중반 기준 아프리카 AI 스타트업들은 8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하며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로 급부상(Tech in Africa)
- 에그리테크는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AI 첨단 기술 도입에 집중, 헬스테크 역시 지리적 장벽을 해소하는 핵심 도구로 AI 주목
 - IoT 센서, 위성 이미지,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정밀 농업 확산, 농업 프로세스를 안내하여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의료의 경우 AI 기반 진단 앱과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인력 부족과 인프라 제약을 회복, 다만 국가별 상이한 규제가 국경 간 확장을 제한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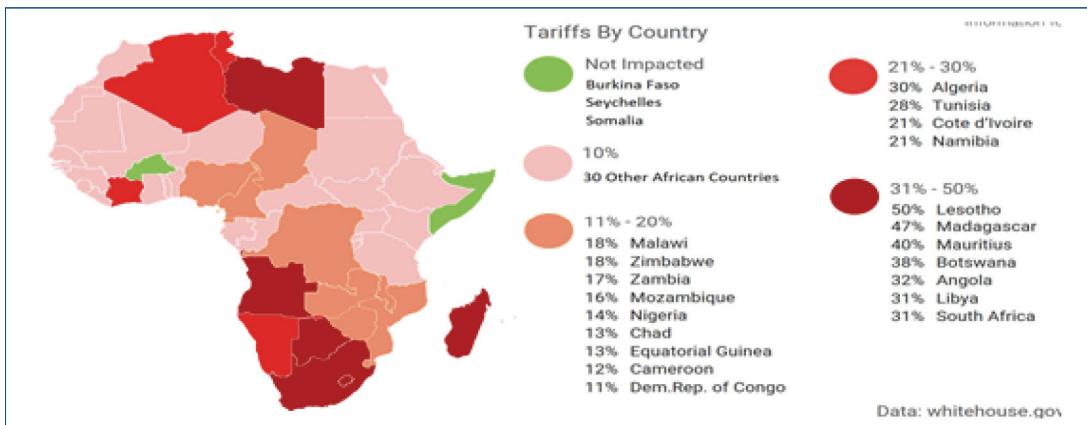
- (관련 분야·산업) 데이터센터, 핀테크, 헬스테크, 에그리테크 등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 전반에서 수요 급증 예상, 사이버보안 수요도 맞물려 성장
- (우리 기업에의 영향) AI, IoT, 클라우드 등 강점을 활용해 현지 스타트업 또는 정부와 협력해서 진출 기회 도모 필요

마. (통상·투자) 원조 중심에서 투자 패러다임으로, 포스트 AGOA 시대

□ 미국 관세로 AGOA(아프리카성장기회법) 종료, USAID(미국 국제개발처)와 선진국 원조 축소

- 아프리카는 미국 관세의 직접적인 피해는 적은 것으로 평가, 다만 AGOA 무관세 对미 수출은 사실상 종료
- 상호관세율 자체는 레소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고율 부과된 국가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대부분 최저 관세
- AGOA 종료로 미국 시장 접근성이 축소되면 对미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농업, 섬유, 자동차 산업은 난망

〈미국 상호관세 타격이 낮은 SSA〉



자료: Intelligensis('25년)

- 미국의 USAID 예산 축소, EU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아프리카 원조 점진적 축소
 - 보건 및 식량 부문에서 공급 공백 발생, 에이즈, 말라리아 등 치료제 부족

□ 민간 기반 투자는 확대, 포스트 AGOA 시대로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일방적 원조가 아닌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반의 투자 중심으로 변모
 - 핵심 광물(코발트, 망간, 리튬 등), 청정에너지(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원전)가 주요 투자 유치 분야이며 제조, 인프라, 디지털 분야 투자도 강화 추세
 - 미국, EU, 중국, 일본, 인도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 * 미국 :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PGII)를 통한 인프라 투자 발표
 - * EU : Global Gateway로 아프리카 녹색 전환 프로젝트('21~27년 최대 1,500억 유로 투자)

-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역내 시장 통합으로 투자 유인 강화
 - '24년부터 운영 단계 진입 공식 선언, '25년 기준 92.3%의 관세 품목 원산지 규칙 합의가 이루어짐

□ 시사점

- (관련 분야·산업) 미국 수출 의존하던 농업·섬유 쪽 난망, 의료도 원조 축소로 수입 감소 예상, 반면 민간 투자가 증가하는 부문은 기회요인
- (우리 기업에의 영향) ODA(EDCF(대외경제협력기금),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를 연계해서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II. 시장 분석

- | | |
|----------|----|
| 1. 시장 현황 | 26 |
| 2. 유망 산업 | 57 |
| 3. 협력 기회 | 68 |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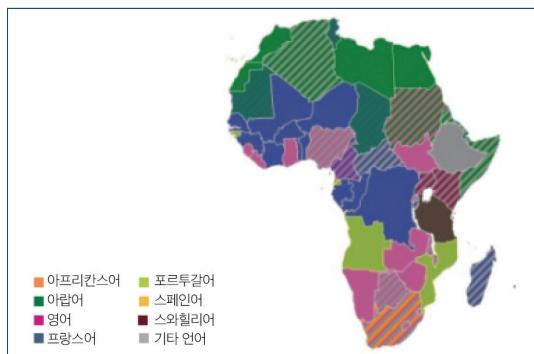
- (요약) 젊은 인구와 도시화, AfCFTA 통합,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SSA
- SSA(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49개국으로 언어·종교·자원 편차가 크며 자원국과 비자원국 간 산업 구조 상이
- 젊은 인구·도시화·IT 확산으로 소비·인프라 수요 급증, 소비력 확대와 디지털 전환이 성장동력
- AfCFTA(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발효와 풍부한 핵심 광물로 거대 단일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 부상 중

가. 시장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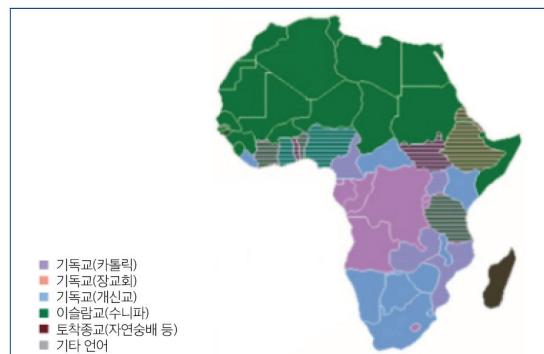
□ 구분

- UN 기준 54개 독립 국가로 구성되어(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49개국) 경제 규모, 언어, 종교, 인종이 각각 상이
 - 과거 식민지, 역사적 기반에 따라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스와힐리어 등 통용되는 언어만 2,000여 개에 달하며, 그만큼 다채로운 종족이 살고 있어 상관습도 다양
 - 식민 종주국으로부터 전파된 외래 종교인 기독교(프랑스와 벨기에에 식민지는 가톨릭교, 영국 식민지는 개신교 등), 아랍 지역으로부터 전파된 이슬람교, 그리고 아프리카 전래의 다양한 토속 신앙이 많은 국가에서 공존

〈아프리카 대륙의 공용어 분포〉



〈아프리카 대륙의 종교 분포〉



자료: Nations Online

- 국가별 소득 규모도 각기 달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개 경제 대국 GDP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의 약 50%를 차지
- 자원 보유 여부에 따라 경제 구조와 산업 전략, 경제성장률도 크게 다름
 -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과 광물, 귀금속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자원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도 자원 중심
 - 반면 비자원 국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며 무역 다변화와 산업 고도화 성장 전략 모색
 - 최근 자원국은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자원국은 디지털 인적자원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

주요 자원별 생산 국가

자원국		비자원 국가
석유 수출국	기타 자원 집약적 국가	
양골라, 카메룬, 차드, 콩고, 가봉, 적도기니, 나이지리아, 남수단	보초와나, 부르키나 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가나, 라이베리아, 말리, 나미비아, 니제르,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베냉, 부룬디, 카보베르데,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토고, 우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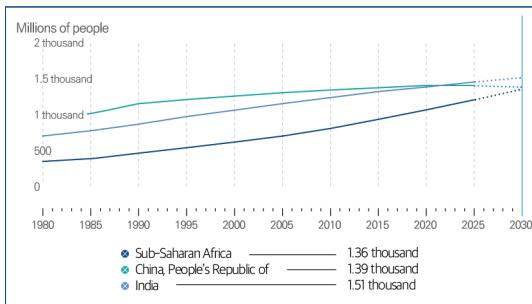
자료: WB

□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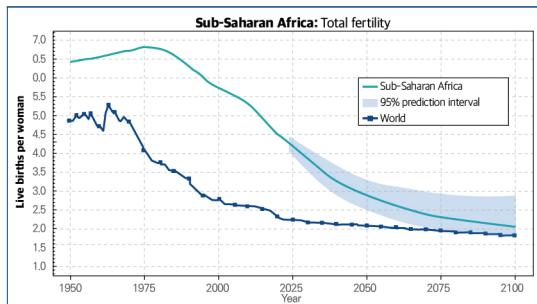


- (인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와 젊은 인구 구성을 가진 SSA, 미래 거대 소비 시장 및 노동력을 형성할 잠재력 보유
 - '25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인구는 약 12억 7,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에 육박, 인구의 70%가 30세 이하(UN World Population Review)
 - '30년 SSA 인구는 13억 6,000만 명으로 중국 13억 9,000만 명과 비슷한 인구수를 기록할 전망이며 향후 30년간 약 79% 증가할 것으로 예측(IMF, WEF(세계경제포럼))

〈SSA 인구 증가 전망〉



〈SSA 출산율 대비 세계 출산율 전망〉



자료: IMF('24년), UN(United Nations, '24년)

- (도시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륙으로, 도시 인프라 투자 수요와 도시 소비자의 소비력이 증가하고 있음
 - * SSA의 도시화 속도는 매년 약 4%, 전 세계 평균(2%)에 2배에 달함
 - 아프리카의 도시화 비율은 '10년 36%에서 '50년 60%로 증가 예상(AU(아프리카연합))
- (인프라) 전력, 도로, 항만, ICT, 상하수도, 보건 등 인프라가 열악해 수요가 매우 높고 국제 협력 및 민관투자(PPP) 기회가 많음
 - 아프리카에는 매년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수요 존재(AfDB)
 - 최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 지속가능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어 친환경 에너지, 설비, 순환 경제 관련 기술 도입 활발히 논의 중
- (IT)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핀테크, 모바일뱅킹, 전자상거래, e-헬스, e-에듀 등 IT 신산업이 립프로깅(Leapfrogging)으로 급속 성장
 -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보급률 및 스마트폰 사용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세 유지
 -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교육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SSA에도 정착
 - 각국 정부와民間은 클라우드, AI,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ICT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 중

□ 구매력, 소비 성향

- (소비층)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중산층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젊은 인구의 소비 행태도 뚜렷
 - * '30년까지 아프리카 중산층은 5억 명에 이르고, '60년까지 11억 명까지 증가 전망(UN)
 - 도시 거주 소비자는 농촌보다 높은 소득과 다이내믹한 소비 행태를 보이는 중산층으로 고급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젊은 소비층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률에 비례하여 온라인 소비와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속히 확산 중

- (모바일 금융) 금융 서비스 발달 수준이 낮고 비유동적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소액 결제 및 거래는 활발, 전 세계 모바일 금융 시장의 중심지로 발돋움
 - SSA는 전 세계 모바일 머니 거래의 2/3를 차지하며 등록 계정 수 11억 개 돌파(GSMA(세계이동통신 사업자연합회))
 - 계좌는 없지만 휴대폰 보급률이 높은바 은행 계좌 보유율이 낮은 만큼 모바일 금융이 전통적인 은행 역할을 대체하며 금융 소외 계층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 주요 수단 역할
 - 현지 소매점 등이 모바일머니 에이전트처럼 현금 입출금 창구 역할 수행
 - * 케냐의 M-Pesa는 스마트폰 없이 피처폰으로도 간단히 송금 및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면서 이용자 수를 급속도로 늘린 성공 사례로 평가됨

□ 관세 및 주요 인증

- (관세) SSA 국가들의 수입 관세는 높은 편

주요국 수입 관세

(단위: %)

국가	농산물	전자제품	의류·섬유	자동차 및 부품	산업기계	기타 (가전제품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10~25	0~20	20~30	15~25	0~5	10~25
나이지리아	10~20	5~10	35	20~35	5~10	20~30
케냐	10~25	20~25	25~30	15~25	0~5	20~25
에티오피아	10~30	20~35	30	30~35	0~5	25~30
가나	10~20	15~20	25	20	0~5	15~20
앙골라	20~50	20~30	30	30~40	2~10	20~30
탄자니아	10~25	20~25	25	15~25	0~5	20~25

자료: 각국 관세청

- SSA 자체 기술 품질 표준 체계가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인증 의존도가 높은 편, 국제 인증은 품질 보증 수단으로 작용
 - CE(유럽), FDA(미국), ISO·IEC 국제표준 등 선진국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준용하는 경우가 많음
 - 국제 인증이 있을 경우 현지 시험 검증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고 바이어와 정부 기관도 국제 인증 취득 제품을 선호

□ 해당 시장의 전략적 가치

- (AfCFTA)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시장 통합으로 거대 경제권 및 소비 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 기존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아프리카 대륙 내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산업 발전을 도모
 - 총 GDP 약 3조 4,000억 달러, 인구 13억 명의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 AU) 회원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무역 조약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와 인력 이동의 자유화 추진
 - 물류, 금융, 제조 등에서 범아프리카적 가치사슬 구축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제조 및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

'35년까지 AfCFTA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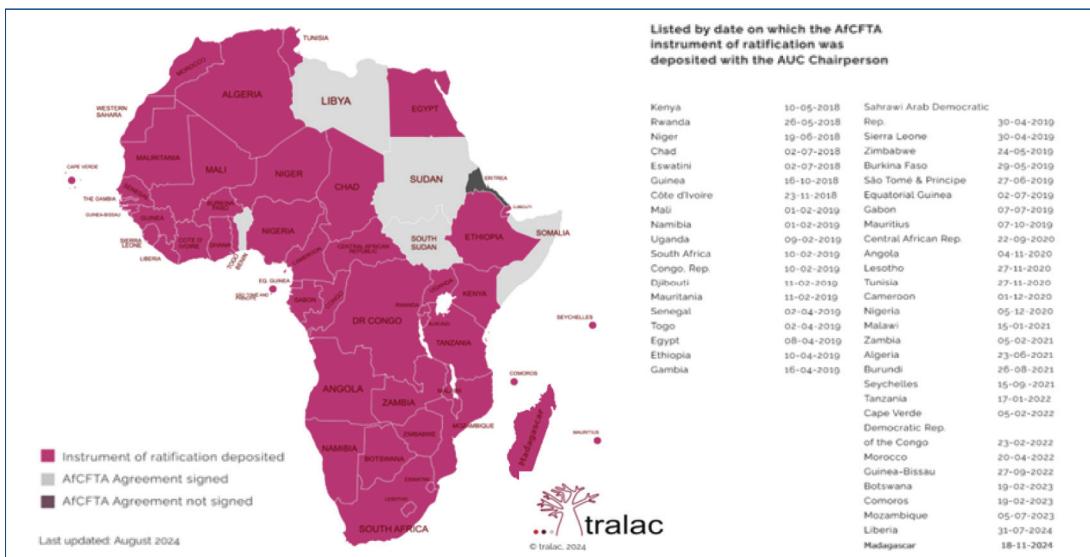
총수출	32% 증가	무역적자	50% 감소
역내 수출	109% 이상 증가	실질소득	9% 증가
역외 수출	18% 증가	고용 창출	신규 1,790만 개

AfCFTA 추진 경과

시기	내용	비고
'12년 1월	아프리카 대륙 내 무역 촉진을 위한 'AfCFTA 설립 가속화' 채택	제18차 AU 정기총회, 아디스아바바
'15년 6월	AfCFTA 설립 협상 시작	제25차 AU 정기총회, 요하네스버그
'18년 3월	AfCFTA 출범 선언, 55개 AU 회원국 중 44개국 협정문 서명	제10차 AU 특별 총회, 르완다
'19년 5월	AfCFTA 협정 발효, 22개국 비준 완료	'19년 7월, AfCFTA 공식 출범
'21년 1월	AfCFTA 1단계 발효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중점
'22년 10월	'Guided Trade Initiative'를 발표, 7개 공동체 대표국 간 96개 품목 대상으로 시범 교역 개시	카메룬, 이집트, 가나, 케냐, 모리셔스, 르완다, 탄자니아
'23년 2월	AfCFTA 2단계 협상 시작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등에 중점
'24년 11월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 서명, 49개국 비준 완료	미완료 국가 : 리비아, 수단, 남수단, 소말리아, 베냉
'25년 1월	관세율 품목의 원산지 규칙 합의율, 시스템 운영 진전	

자료: WB, AfCFTA

〈AfCFTA 국가별 참여(서명·비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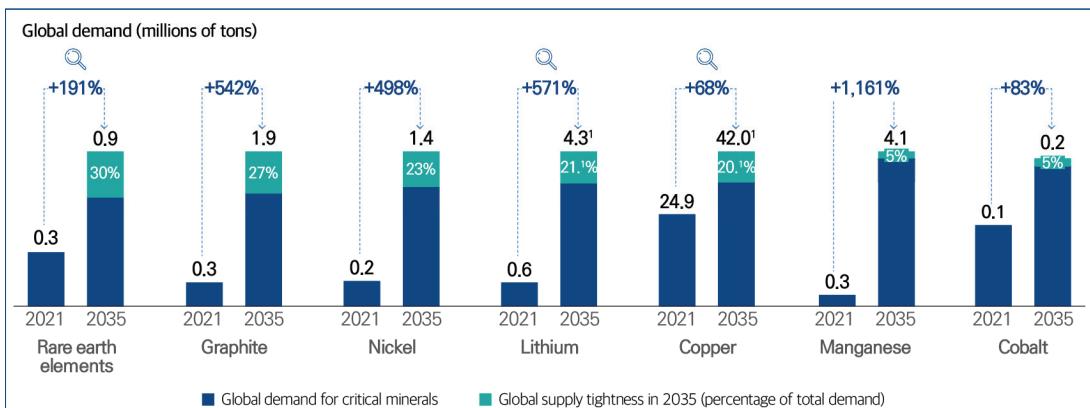


주: 서명한 54개국 중 49개국 비준('25년 9월 기준)

자료: Tralac(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 편집)

- (핵심 광물) SSA는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핵심인 광물 자원들이 가장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
 -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기술, 첨단 산업 등에 필수적인 코발트,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 등이 SSA 다수 국가에 매장되어 있고 산업 생산 중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SSA는 이들 광물 자원의 채굴, 가공, 제련에 대한 국제적인 투자 유치 경쟁의 중심지가 됨
 - 이는 SSA가 단순 소비 시장을 넘어 글로벌 핵심 공급망의 안전성에 이바지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갖게 됨을 의미

〈'35년까지 핵심 광물 수요 급증 예상(20%는 공급 부족 전망)〉



자료: 보스턴컨설팅그룹(BCG, '25년 1월)

- (국제 위상) 54개국이 위치한 아프리카는 UN 총회, 기후변화협약, 엑스포 유치 등 글로벌 의사결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
 - * UN 총회(193개국 중 54개국), 국제박람회기구(182개국 중 49개국), 세계무역기구(164개국 중 44개국) 등
 - 최근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가 많아지며, 국가 간 협력 다변화가 강조되면서 아프리카는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국가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 중임
 - EU, 중국 등 주요국과 아프리카 정상들의 회의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SSA의 '24년對세계 총 수출액은 4,17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4.2% 하락
 - '23년 총 수출액은 4,360억 달러 기록
- (수입 규모) '24년 총 수입액은 4,503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3.9% 하락
 - '23년 총 수입액은 4,688억 달러 기록
- (교역·무역수지) '24년 총 교역액은 8,678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327억 달러 적자 기록

사하라이남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USD 백만, %)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수출	461,428	1.9	436,058	-5.5	417,563	-4.2
총 수입	484,995	22.8	468,813	-3.3	450,321	-3.9
무역수지	-23,566	-251.1	-32,855	-39.4	-32,758	0.3
총 교역	946,423	20.8	904,871	-4.4	867,884	-4.1

자료: Trade Map('25년 10월 기준)

□ 주요 수출 대상국 및 수출 품목

- (수출 대상국) SSA가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중국이며 '24년 기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110억 달러를 기록, 비중은 27%
 - 중국 다음으로는 EU(944억 달러, 23% 비중), 인도(367억 달러, 9% 비중), 미국(298억 달러, 7% 비중), 네덜란드(208억 달러, 5% 비중) 순
- (수출 품목) SSA는 광물 자원이나 농산물 등 기초 자원이나 자원 기반 품목 위주로對세계 수출
 - '24년 기준 광물성 연료가 전년 대비 10% 감소하긴 했으나 규모는 1,351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 차지

- 그 외 귀석·귀금속(566억 달러), 금속·광물(407억 달러), 구리 제품(321억 달러), 코코아 제품(161억 달러) 순으로 수출

□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SSA가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중국이며, '24년 기준 전년 대비 1.7% 감소한 1,35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최대 비중 30%를 차지
- 그 뒤를 이어 EU(789억 달러, 17% 비중), 인도(371억 달러, 8% 비중), 남아프리카공화국(309억 달러, 7% 비중), 미국(186억 달러, 4% 비중) 순
- (수입 품목) SSA는 기계류, 전자기기, 차량 등 공산품이나 자본재와 같이 설비·기술 집약형 제품을 수입
 - '24년 기준 광물성 연료가 전년 대비 20% 감소하긴 했으나 규모는 875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 차지
 - 그 외 보일러 기계류(485억 달러), 전자기기(306억 달러), 차량(295억 달러), 선박(193억 달러) 순으로 수입

'24년 사하라이남 교역대상국별 수출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			수출			
	국가명	2023년	2024년(증감률)	국가명	2023년	2024년(증감률)	
1	중국	137,765	135,390(-1.72)	1	중국	103,161	111,033(7.6)
2	EU	86,084	78,904(-8.3)	2	EU	95,504	94,411(-1.1)
3	인도	39,589	37,124(-6.2)	3	인도	31,559	36,686(1.6)
4	남아프리카공화국	29,304	30,935(5.6)	4	미국	29,812	30,770(3.2)
5	미국	17,968	18,530(3.1)	5	네덜란드	23,414	20,775(-11.3)
15	한국	9,111	9,448(3.7)	24	한국	7,489	7,318(-2.3)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기준)

사하라이남 수출입 5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			수출		
	품목명(HS 2자리)	2023년	2024년(증감률)	품목명(HS 2자리)	2023년	2024년(증감률)
1	광물성 연료(27)	108,874	87,520(-19.6)	광물성 연료(27)	150,093	135,061(-10.0)
2	보일러와 기계류(84)	48,952	48,455(-1.0)	귀석·귀금속(71)	26,710	56,593(111.9)
3	전자기기(85)	32,464	30,636(-5.6)	금속·광물(26)	37,756	40,725(7.9)
4	차량 및 그 부품(87)	44,302	29,516 (-33.4)	구리제품 및 그 제품(74)	12,408	32,119(158.9)
5	선박	16,410	19,257(355.1)	코코아 및 그 제품(18)	5,333	16,050(201.0)

자료: Trade Map('25년 10월 기준)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구조상 한국은 제조업 중심 수출 구조(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등)로 SSA 지역에 진출해 있으며 SSA 지역으로부터는 자원, 원자재 위주로 수입
 - SSA 지역의 내수 둔화, 원자재 가격 변화, 물류·환율 리스크 증가 등으로 인해 수입이 축소되어 한국은 SSA 지역과의 무역수지가 흑자 구조 유지 중
 - 수입은 SSA의 원자재·자원 수출 역량이 글로벌 수요 및 가격 변화에 민감하고 물류비, 환율, 정책 리스크가 있으므로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교역) '25년 8월 기준 한국의 對SSA 교역은 약 109억 달러, 무역수지는 약 19억 달러 흑자 기록
 - (수출) 對SSA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64억 달러 기록
 - (수입) 對SSA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 45억 달러 기록
 - 한국은 '24년 기준 SSA의 수출 대상국 중 24위, 수입 대상국 중 15위를 차지했으며 그 비중은 수출입 모두 2% 수준

한국의 對SSA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비중)	증감률	금액(비중)	증감률	금액(비중)	증감률	금액(비중)	증감률
수출	11,064(1.6)	21.3	9,111(1.4)	-17.7	9,448(1.4)	3.7	6,400(1.4)	6.7
수입	9,330(1.3)	36.6	7,489(1.2)	-19.7	7,318(1.2)	-2.3	4,508(1.1)	-4.5
교역량	20,394(1.4)	27.9	16,600(1.3)	-18.6	16,766(1.3)	1.0	10,908(1.3)	-34.9
무역수지	1,734(-3.6)	-24.3	1,622(-15.7)	-6.5	2,130(4.1)	31.3	1,892(4.6)	-11.2

주: 비중은 전 세계 대비 비중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기준)

- (국가별) 수출은 '25.8월까지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
 - 수출 상위 5개국은 라이베리아, 양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가나로 전체의 81.7% 차지, 특히 라이베리아 점유율이 58.2%로 높음
 - 국가별로 지부티(192.5%), 가나(51.9%), 모잠비크(41.9%), 라이베리아(20.7%), 코트디부아르(16.6%)의 수출 증가세가 높게 집계

한국의 對SSA 국가별 수출 동향(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

주요국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라이베리아	4,176	-3.4	5,215	29.3	3,725	20.7
양골라	119	300.6	710	49.5	500	-10.0
남아프리카공화국	1,145	-22.8	707	-20.0	486	0
나이지리아	887	-32.0	649	7.6	348	-16.8
가나	209	-13.6	189	4.5	174	51.9
탄자니아	321	-4.0	407	32.0	143	-49.5
케냐	457	-40.9	173	-35.9	132	6.7
코트디부아르	170	27.1	167	-22.7	126	16.6
에티오피아	63	27.4	148	84.0	101	-3.8
SSA 합계	9,111	-17.7	9,448	3.7	6,400	6.7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기준)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한국의 對SSA 주요 수출품은 선박, 광물성 연료, 기계류 등이며 특히 선박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 '25년 8월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전년 대비 증가, 특히 어류(8,950만 달러, 143%↑), 철강제품*(8,095만 달러, 73%↑), 의약품(1억 4,499만 달러, 48%↑), 보일러 기계류(3억 6,700만 달러, 26%↑)가 큰 폭 증가

* 철강제품은 수출 상위 11위 품목

한국의 對SSA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9,448	3.7		총 수출	6,400	6.7
1	선박	5,212	29.6	1	선박	3,722	20.7
2	광물성 연료	861	-49.1	2	광물성 연료	476	-26.2
3	플라스틱 제품	516	-17.1	3	보일러 기계류	367	25.6
4	보일러 기계류	473	2.9	4	일반 차량	359	21.9
5	일반 차량	456	-9.9	5	플라스틱 제품	251	-29.9
6	전자기기	361	26.6	6	전자기기	156	-48.1
7	철도	260	354.6	7	의약품	145	48.2
8	의약품	161	6.1	8	알루미늄 제품	121	20.3
9	알루미늄 제품	151	10.3	9	어류	89	143.1
10	무기화합물	108	-12.3	10	무기화합물	87	21.9

주: 차량 '25년 8월 기준 4,860만 달러(94%↑), 어류 '25년 8월 기준 2,987만 달러(384%↑)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기준)

- (수입) 한국의 對SSA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구리 제품, 광·슬랙·회 등이며 원자재 위주로 수입하고 있음
- '25년 8월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 8개 품목의 수입이 증가, 특히 고무 제품(1억 달러, 788% ↑), 코코아 제품(7,800만 달러 183% ↑), 구리 제품(10억 달러, 43% ↑)이 큰 폭 증가

한국의 對SSA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7,318	-2.3		총 수입	4,508	-4.5
1	광물성 연료	3,231	0.5	1	광물성 연료	1,643	-22.4
2	구리 제품	1,108	28.7	2	구리 제품	1,042	43.0
3	광·슬랙·회	1,011	-10.2	3	광·슬랙·회	516	-8.1
4	귀석·반귀석·귀금속	498	-13.6	4	귀석·반귀석·귀금속	379	33.6
5	철강	216	-20.4	5	철강	142	4.7
6	커피·차·향신료	149	5.7	6	커피·차·향신료	126	36.4
7	무기화합물	121	8.7	7	고무 제품	104	788.2
8	니켈 제품	114	-45.3	8	코코아 제품	78	183.0
9	어류	84	0.5	9	담배	63	11.6
10	선박	80	148.1	10	알루미늄 제품	59	37.5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기준)

- (어류) 한국산 냉동 꽁치·고등어가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베냉 등 서아프리카로 수출 급증, 러시아와 일본이 원래 주공급원이었으나 이들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성비 좋은 한국 상품이 틈새를 공략한 것으로 분석
- (철강) 동부·남부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 증가가 철강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 철강 생산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공급이 감소하고, 건설사들이 품질 좋은 수입 철강을 선호하게 된 것도 원인으로 추정
- (의약품) 한국 정부에서 수단과 인접국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라 1,20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24년 4월)한바 의약품과 의료 물자를 선적했으며 남수단과 콩고는 한국 지원 사업 가동하면서 의약품 수출 증가
- (건설 기계) 한국 기업 H사가 에티오피아 광산 개발업체 2곳과 총 100대 규모의 36톤급 대형 굴착기 공급 계약을 체결('25년 3월)한 것에 기인

* '24년 기준 현지 시장에서 H사의 점유율은 57%

□ SSA 지역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전략 : 의료 기업 A사

- 제품의 비교우위
 - A사는 제네릭·항암제 등 완제의약품(FOB) 제조 역량 보유로 현지 치료 수요 적합 품목을 생산·제공함
 - 현지 조달·입찰의 표준 요건에 부합하는 품질 및 규격 대응 체계 확보
- 필수 인증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제품규제청(SAHPRA)에 제품 등록
- 성약 소요기간 : 약 6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의료 박람회·학회 등 지속 참여로 구축한 조달 기관·도매상 네트워크를 활용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A사는 메디스타, 지사화 등 KOTRA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해 시장을 공동 개척, 현지 시장의 수요를 찾을 수 있었음
 - 초기 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타 의약품 입찰 사업에도 현지 바이어와 동반 참여 중



성공 사례로 보는 코트디부아르 진출전략 : 코딩 및 IT 교육 교구 기업 B사(현지 S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모듈형 코딩 교구로, 모바일 앱·PC 소프트웨어와 연동해 다양한 나이별 학습 가능
- 필수 인증 : 현지의 필수 인증은 없으나 글로벌 안전 인증(CE, FCC 등)을 확보하면 현지 파트너에게 신뢰성 확보 가능
- 성약 소요기간 : 약 2년 소요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주관 전시회에 초청 방한한 바이어 유치, 바이어는 주재국 정부의 요청으로 AI 교구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한국 기업 B사 제품을 활용하여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서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한국 AI 교구 수출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주재국 정부 요청으로 AI 교구를 최초 도입한 사업으로, 주재국 정부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시사
 - 아프리카 정부의 느린 행정 처리, 교구 및 소프트웨어의 현지화, 전력·인터넷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현지 환경 등을 진출 시 고려해야 함



성공 사례로 보는 탄자니아 진출전략 : 철도·방산 기업 H사(탄자니아 철도 공사에 전동차·전기기관차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아프리카 시장(이집트·튀니지·나이지리아 등)에서 이미 검증된 안정적인 납품 실적과 우수한 사업관리 역량
- 바이어 발굴경로 : 탄자니아 철도 공사 발주 프로젝트 참여 및 경쟁입찰을 통한 수주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표준궤 철도 사업은 탄자니아가 약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초기 시장 진입이 향후 추가 수주로 이어질 전략적 교두보가 됨
 - 전동차와 전기기관차 공급은 단순 수출 이상의 의미로, 현지 교통체계 현대화와 교통 편의성 개선에 이바지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됨



성공 사례로 보는 가나 진출전략 : 중고차 기업 C사(현지 S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타국 대비 양호한 중고차 상태 및 품질
- 성약 소요 기간 : 6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면담을 통한 중고차 수요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한국산 중고차는 타국 중고차 대비 차 상태 및 품질이 양호한 편으로 가나 바이어가 선호
 - 고품질 보유 국내 기업 발굴 후, 바이어 방한 및 국내 기업과의 대면 미팅과 매장 실사를 주선했으며, 이후 밀착 지원을 통한 거래 성사



성공 사례로 보는 에티오피아 진출전략 : 가전기업 C사(현지 D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우수한 품질
- 성약 소요기간 : 2년
- 바이어 발굴경로 : 지사화 사업으로 바이어 발굴부터 성약까지 지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에티오피아의 외환 사정으로 인하여 대금결제 지연 등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으나, 이때 무역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국내 기업에 현지 상황 설명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무역관이 적극 해결하여 결국 성약을 달성할 수 있었음
 - 현재 해당 기업이 세이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바이어와 매칭 중임

□ 주요 경쟁국 동향

- SSA 지역의 수입 시장은 중국과 EU, 인도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편
 - 중국은 안정적 우상향, EU는 점진적 하락세, 인도는 유지 중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은 소폭씩 상승세
 - 한국은 비중이 1.8~2% 내외로 낮은 수준
- 중국과 인도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생산거점이 집중된 허브 국가인 만큼 한국산 완제품·부품도 우회수출되고 있음
 - SSA는 한국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 제품이 제3국에서 생산돼 수입되기도 하므로 한국의 간접 수출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성이 높음

SSA 지역 수입 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월 누계
중국	23.8	26.7	27.2	33.0
EU	17.1	16.7	15.9	14.3
인도	7.8	7.7	7.5	7.5
남아프리카공화국	5.4	5.7	6.2	5.6
미국	3.4	3.5	3.7	4.1
한국	2.0	1.8	1.9	1.8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 주재국의 대외 수입 규제, 對한 수입 규제

- SSA 대부분 국가는 무역구제 조치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SACU(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을 대표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
 - * SACU 회원국 : 보츠와나,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란드),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
 - 예외적으로 마다가스카르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SSA 내에서는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 및 무역구제 조치가 수입규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비관세장벽이 실제로 수입관세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역으로 평가됨

※ 주요국 수출입 동향 및 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4년 총 수출액은 1,105억 달러를 기록
 - '25년 1~7월간 누적 수출 금액은 6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 '24년 총 수입액은 1,013억 달러
 - '25년 1~7월 누적 수입액은 588억 달러로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 한국의 對남아프리카공화국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30.1% 감소
 - '24년 수출은 80억 달러, '25년 1~7월 누적 수출 금액은 약 47억 달러, 수입은 166억 달러, '25년 1~7월 누적 수입 금액은 약 79억 달러 기록(855억 달러 무역적자)
- 내수경제 활성화 및 현지 생산능력 함양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 금속·철강(볼트, 나사, 스크루)에 세이프가드 규제 중
 - 식품, 금속, 플라스틱 등에 반덤핑 시행 중
 -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지역 현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

□ 나이지리아

- '24년 총 수출액은 533억 달러, 총 수입액은 413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5.3%, -20.7% 감소하였으며, '25년 3월 누계 기준 교역 규모는 236억 달러로 -10.4% 하락
 - 원유·가스 등 에너지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63%를 차지하며, 비원유 부문에서는 코코아콩·참깨·주석광 등 농·광물 자원이 점진적으로 확대
 - 주요 수출국은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인도, 미국 순으로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출의 43.8%를 차지함
- 對한국 교역은 '24년 22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7% 증가
 - '25년 8월 기준 누적 7억 6,000만 달러로 -51.2% 감소
 - 對한국 수출은 원유·천연가스 중심(41억 달러, -56.6%)
 - 對한국 수입은 합성수지·알루미늄 가공품 등(3억 5,000만 달러, -16.8%)
 - 무역수지는 흑자(6,200만 달러) 유지 중
 - 어류·의약품·화장품 등 소비재 중심으로 수입 품목 다변화 진행
- 나이지리아 정부는 '새 희망 개발계획(2026~2030)'을 통해 비원유 수출 확대, 제조업 육성, 서비스 수출 강화 등을 목표
 - 보호무역 기조 하에서 완성차 70%·중고차 35% 관세 적용 등 자국 산업 보호정책 지속 추진 중

□ 케냐

- '24년 총 교역액은 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2% 증가
 - 수출 82억 달러(+14.4%), 수입 200억 달러(+8.0%)를 기록하며 무역적자는 118억 달러로 확대됨
 - 주요 수입국은 중국(42억 8,500만 달러, 42.9%), UAE(25억 1,000만 달러), 인도(19억 3,90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11억 4,500만 달러), 말레이시아(9억 8,500만 달러) 순
- 한국은 1억 7,000만 달러로 23위, 전년 대비 -16.7% 감소하며 시장 점유율 소폭 하락
 -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 기계·부품, 곡물, 차량, 전자기기, 식물성 기름, 철강, 의약품 등
 - 對한국 수출은 차·커피(17억 달러), 원예(7억 8,000만 달러), 식물성 기름(2억 9,000만 달러) 중심이며, 농산품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케냐는 환율 불안과 수입 의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 기반 확충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병행 추진 중

-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내 교역 확대와 함께 제조업·농산품 부가가치화를 통한 무역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함

□ 가나

- '24년 총 수출은 192억 달러로 전년(167억 달러) 대비 15% 증가, 수입은 154억 달러로 9.9% 증가하며 무역흑자 37억 달러를 기록
 - '25년 4월까지 수출액은 93억 달러로 전년 동기(58억 달러) 대비 60.5% 급증
 - 수입은 '24년 154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수입국은 중국, UAE, 영국, 인도, 미국 순
- **對한국 교역 규모는** '25년 7월 누적 2억 3,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1% 증가
 - **對한국 수출은** 1억 5,400만 달러(+52.9%)로 합성수지, 차량, 자동차부품, 어류, 의약품이 주요 수입 품목
 - **對한국 수입은** 8,200만 달러(+269.3%)로 견과류, 식물성 재료, 알루미늄 스크랩이 급증하며 무역수지는 7,200만 달러 흑자 기록
- 가나 정부는 금·코코아 등 전통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서비스·농식품 등 비자원 부문 수출 확대를 목표로 산업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
 - 동시에 중국, UAE 등 저가 공산품 수입 증가로 현지 산업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한국산 중고차·소비재·화장품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음

□ 모잠비크

- '24년 총 수출 82억 달러, 총 수입 92억 달러로 무역적자 10억 달러지만 '23년 LNG 수출 개시 이후 자원(천연가스·석탄·알루미늄) 중심으로 수지 개선 추세
 - '22년 FLNG 도입 효과로 수입이 급증했으나 이후 프로젝트 지연·외환 부족으로 2년 연속 감소
 - '24년 수출 상위국은 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이며, 품목은 LNG(19억 7,000만 달러, +14%)·석탄·알루미늄 비중이 높고 담배·두류 등 비자원 품목도 확대
- **對한국 교역은** 에너지 수입 중심으로 '24년 교역 8억 1,000만 달러(수출 7,791만 달러 / 수입 7억 3,300만 달러), 한국의 **對모잠비크 적자** 6억 5,000만 달러
 - '25년 들어 한국의 수입 품목이 석탄 → LNG 중심으로 전환(천연가스 비중 급등)
 - 한국의 **對모잠비크 수출은** 기계·차량·석유화학 등 산업재 수요 회복에 따라 점진적 증가 조짐
- 정책·시장 특징으로는 **프로젝트 재개 시 중간재·기자재 수요 확대**, 남아프리카공화국·중국 등 인접·아시아권 공급망 우세
 - 통관·적합성평가 등 절차는 까다로운 편(IVA 16%, 일부 품목 사전 인증 필요)으로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 확인이 중요

□ 에티오피아

- '25년 8월 누계 수출 36억 달러(+49.5%), 수입 132억 달러(+20.1%)로 총 교역 168억 달러(+25.5%)
 - 커피(비중 확대)·화훼·야채가 수출을 견인하고, 연료·기계·비료·전기기기·차량이 수입 상위
 - 수출 상위국은 사우디·독일·미국·중국·네덜란드(**對중 수출 급증**)
 - 수입 상위국은 중국·사우디·쿠웨이트·인도·UAE
- **對한국 교역('25년 7월 누계)**은 수출 8,556만 달러(-10.7%), 수입 8,459만 달러(+36.5%)로 소폭 흑자(약 97만 달러) 유지
 - **對한국 수입 품목은** 건설중장비·의약품·곡류·합성수지·EV·부품 등, 수출은 커피 중심(비중 96% 내외)
- 중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 확대('25년 8월 누계 36.1%)로 경쟁 심화, 한국은 건설중장비·진단키트·백신 등에서 점유율 상승세

- 대형 인프라·광산 프로젝트 재개 시 한국산 중장비·기자재 수요 확대 기대

□ 코트디부아르

- '24년 총 교역 407억 달러(+8.9%), 수출 212억 달러(+14.7%)·수입 196억 달러(+3.3%)
 - 무역흑자는 16억 달러이며 '25년 8월 누계 기준 수출 188억 9,000만 달러(+49.6%), 수입 127억 4,000만 달러(+8.9%)로 흑자 확대 추세
 - 수출은 코코아 원두·코코아매스·금·고무·정제유 중심(카카오·원자재 비중 50%+)이며, 수출 상위국은 스위스·네덜란드·말리·미국·독일
 - 수입은 원유·석유제품·특수목적 선박·쌀·냉동 어류 비중이 높고, 수입 상위국은 중국·나이지리아·바하마·프랑스·미국(한국 8위, 3.1%)
- 對한국 교역은 증가세로 '22년 1억 8,800만 달러 → '24년 2억 5,700만 달러(3년 새 +36%)
 - '24년 한국 對코트디부아르 수출 1억 6,700만 달러(-22.7%), 수입 8,900만 달러(+1,236%);
 - '25년 8월 누계 수출 1억 2,600만 달러(+16.6%), 수입 1억 1,900만 달러(+461.8%)로 흑자 축소(약 670만 달러)
 - 對코트디부아르 수출 품목은 건설중장비·합성수지·기타 어류·정밀화학·승용·화물차 등
 - 對코트디부아르 수입 품목은 천연고무('22년 9,100만 달러 → '25년 1억 400만 달러로 급증)·동·알루미늄·스크랩·식물성 재료 등
- 중국의 전기·전자·자동차·기계 중심 공급 우위, 에너지 효율 라벨·선적 전 검사(VOC) 등 비관세장벽 강화
 - 우리 기업은 프랑스어 라벨·인증 대응과 함께,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제품 및 디지털 통관 대응으로 접근 권장; K-뷰티·K-푸드 확산에 따른 소비재 기회 확대 전망

□ 탄자니아

- (수출) '24년 수출액은 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6%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최고치
 - 금이 여전히 수출의 주력 품목이나, 캐슈너트·연초류 등 농산물 수출이 크게 확대
 - 캐슈너트 수출은 전년 대비 150% 이상 급증해 신흥 흐자 품목으로 부상
- (수입) '24년 수입액은 157억 달러로 3.8% 증가, 여전히 수출의 두 배 규모 유지
 - 석유제품 비중은 다소 감소했으나, 차량·전기기기·기계류 등 산업·소비재 수입 확대
 - 중국(30.5%), 인도(13.6%), UAE(10.6%)가 주요 수입국
- 주요 수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UAE로 구성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전체 수출의 26.3%(22억 9,000만 달러)로 1위, 금 수출이 대부분(97%) 차지
 - 인도(16억 달러)는 금·농산물 중심의 안정적 증가세 유지
 - UAE(6억 달러)는 귀금속·농산품 중심이나 전년 대비 감소
- 對한국 교역은 철도차량 수출 종료로 '25년 다소 감소세
 - 한국의 對탄자니아 '25년 7월 누계 기준 수출 1억 2,973만 달러(-52.4%), 수입 2,776만 달러 (-19.4%)
 - 對탄자니아 수출 품목은 변압기·차단기·의약품·정밀화학 원료 중심, 수입은 연초류·커피 등 농산물 위주
 - 한국의 對탄자니아 무역수지는 약 1억 200만 달러 흑자 유지

다. 산업

□ (산업 구조) 1차 산업 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 다각화 노력

- 원유, 광물, 농산물 등 1차 산업에 특화된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
 - 막대한 지하자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재원 및 기술인력 부족, 인프라 부족, 높은 운송비, 관리능력의 부재 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을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 다각화 노력 중
 - 정부 주도의 제조업 기반 확충, 다양한 신(新)산업 육성, 인프라 개발, 소비시장 확대 등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

□ (농업)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종사, GDP 기여도(17.5%, WB) 높은 편

-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 물가상승률,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성 확보가 필수적
 - 대부분 소규모 영농 또는 생계형 자급자족 농업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계화 수준도 낮은 편이라 곡물 생산량이 세계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
- 아프리카는 전 세계 경작 가능 토지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의 미경작 농지(Uncultivated Land)를 보유
 - 특히 수단,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양골라, 탄자니아 등 8개국은 아프리카 미개발 농지 면적의 2/3를 차지
- 각국 정부는 미경작지 개발, 신기술 접목, 재정 지원, 민간 투자 유치 등 농업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
 - 농업 혁신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꾸준히 유지될 시 '30년 아프리카 농업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WB)

□ (소매유통) 지역별, 계층별 소득 격차가 큰 아프리카는 다양한 소비계층 보유

- 경제 성장과 더불어 소득 및 교육 수준이 향상, 구매력을 갖추고 최신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과 신흥 중산층이 아프리카 소비 시장 확대를 주도
 - 쇼핑 패턴 또한 서구식으로 변화하여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멀티 플렉스형 쇼핑몰이 보편화, 글로벌 브랜드의 아프리카 진출도 가속화
-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30%는 여전히 저소득층(Bottom of Pyramid, BOP) 시장에 머물고 있음
 - 식료품, 주류 등이 주요 품목이며 주로 비공식적 유통망을 통해 거래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가 역내 주요 소비자 시장으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모바일 결제가 급성장
 - (남아프리카공화국) 타 국가 대비 소득 수준이 높아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존재,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진출하는 역내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내 최대 인구를 기반으로 선진 유통망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대규모 저소득층 시장 보유
 - (케냐) M-Pesa 출범 이후 활성화된 모바일 결제가 소비 시장 확대 견인, 수입상품 구매와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중산층이 매년 10~12%씩 증가

□ (의료) 전염성 질환의 높은 유병률과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 시장 지속 확대

- 에이즈, 말라리아 등 감염병의 발병률이 높고 서구식 식습관 확대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암, 당뇨 등 만성질환 또한 증가
 - 보건위생 인식 개선, 노년층 확대는 현지 의료 시장의 새로운 수요로 등장
- 아프리카 각국 정부들은 낙후된 의료 산업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 추진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의료 역량 확대 필요성 절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 보건 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국민건강보험 시행 확대 추진
 - 의료 인프라 개선 의지가 높고, 열악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의료 수요도 상존
- 그러나 공공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사립 의료서비스 가격은 비싸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낮은 편
 -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과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 선호

□ (인프라) 주거, 교통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주력

- 각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선정하여 물적·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등을 시행
 - 정부 주도적 인프라 개발사업은 낙후된 사회 전반의 제반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이 주목적
- 화석연료, 수력 의존적 발전 구조에서 벗어나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에너지원 다각화 모색, 이와 관련해 그린수소와 배터리 산업도 관심
 - (모잠비크) 금세기 최대 해상 가스전 발견, 내전으로 육상 프로젝트 지연
 -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린수소 생산 특구(SEZ) 조성, '30년 그린수소 10GW 수전해 용량 배치가 목표이며 그린 암모니아도 '29년 생산 목표로 투자 유치

- 천연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한 원전 보유국이나 일부 국가에서 원전 도입 추진 중

□ (제조업)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현대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 지속

- 현지 생산 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시행
 - 식품, 농가공, 섬유 및 의류 등 노동집약적 제조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계 및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 기술·자본 집약적 제조업 육성 필요
- 역내 및 EU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농산물 가공, 자동차 조립, 제약, 경공업 등 제조 기업들의 SSA 생산 거점 투자가 더욱 유인됨
 - AfCFTA 발효로 역내 무역장벽 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지역 밸류체인 구축 가능성이 확대됨
 - 미국은 AGOA(아프리카성장기회법) 종료로 무관세 수출 특혜가 사라졌지만, EU와의 EPA(경제 동반자협정)를 통한 무관세 수혜는 제조업에 긍정적 요인
- 반면 열악한 인프라와 물류 환경, 높은 비관세장벽 등이 제조업 육성 저해
 - 인건비는 저렴하지만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노동력 질 제고가 필수적

□ (ICT)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기반으로 ICT 기술 접목 사업 대상 확대

- 아프리카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CT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달
 - '22년부터 '30년까지 SSA의 모바일 보급률은 연평균 4.4%로 증가하여 총 7억 명의 모바일 가입자를 보유한 거대 시장으로 성장 전망(GSMA)
- 높은 모바일 보급률은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 및 대상 확대로 연계
 - 현금보다 모바일 머니 선호,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규모 확대 전망
-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이 활발, 전자정부, 원격의료, 스마트팜 등 ICT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는 중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농업) 식량안보 리스크와 AGOA 종료로 인한 위협 가운데 농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 물류 인프라 강화가 과제로 부상
 -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 수요도 급증하는 가운데 소규모 농가의 수확·생산량 증가율은 정체되어 있으며 자급률이 낮고 수입 의존이 커지는 추세
 - AGOA 종료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SSA의 對미 농수산물(가공식품, 생선, 건과일, 차, 커피, 원예 작물 등)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농산물 수출 제고를 위해서는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생산 품질 제고와 물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인프라·IT) 5G, AI, IoT, 데이터센터, 위성통신 등 기술 인프라 혁명 도입 문턱, 투자 환경 조성 및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시점
 - 해저 케이블, 지상 광섬유 등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에 정부와 민간 투자 지속
 - * 해저케이블 '08년 3개 → 현재 30개 이상
 - * 지상광섬유 '14년 Dir(직매설) 50만km → 현재 약 130만km
 -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페이스X는 현재 아프리카 20개국 이상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서비스 라이선스를 획득함
 -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글로벌 통신 기업 유치를 위해 통신 분야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 환경 조성

※ 국가별 산업 환경

□ 남아프리카공화국

- (광업)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함
 - 세계 크롬 매장량의 35.7%, 망간 30.3%, 금 11.1%를 보유하며 다이아몬드 생산 세계 5위 국, '24년 GDP의 6.1%를 차지하고 약 47만 명을 고용
- (농업) GDP의 2.5%를 차지하며 식량 자급이 가능한 유일한 사하라이남 국가임
 - 주요 작물은 옥수수이며 감귤, 포도, 와인 등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 확대 중, '24년 농업 수출액은 137억 달러 기록, 기상이변이 생산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
- (인프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달한 인프라 시장을 보유
 - 도로·항만·공항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나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수요가 큼
 - 더반·케이프타운 등 항만과 국제공항이 아프리카 물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
- (에너지) 석탄 중심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중
 - '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확대와 신규 원전 추진 중
 - 발전소 노후화와 국영 전력공사인 Eskom의 부채 누적 등으로 순환 단전이 빈번히 발생
- (ICT) 높은 모바일 보급률로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
 - '25년 시장 규모는 397억 달러로 예상되며 연평균 7.9% 성장 전망
 -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와 펀테크·전자상거래 시장 확대가 활발
- (제조업) 철강과 자동차 산업이 제조 기반을 구성
 - 철강은 건설·운송의 핵심 소재이나 전력난과 저가 수입으로 부진
 - 자동차 산업은 GDP의 4%를 차지하며 '24년 63만 대 생산, 39만 대 수출 기록
- (소비재) 아프리카 최대 소비 시장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유통망이 발달
 - Spaza 상점 중심의 저소득층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이 공존
 - e-커머스 시장은 '25년 38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의료)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의료 시장으로 전체의 90%를 수입에 의존함

- 의료기기 시장은 13억 6,000만 달러, 의약품 시장은 64억 달러 규모임
- 소모품·가구 외 고부가 의료기기는 대부분 수입됨

□ 나이지리아

- (산업 구조) 나이지리아 경제는 석유·가스 부문과 비석유(non-oil) 부문으로 구성되며, 석유가 외화 수입의 95%, 정부 재정의 70%를 차지
 - 비석유 부문은 농업(25%), 제조·건설·ICT 등이 주축이며, 정부는 경제 다각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
- (최근 산업 동향) '25년 1분기 GDP는 전년 대비 3.13% 성장하며 회복세 지속
- (석유·가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으로 '23년 기준 원유 매장량은 371억 배럴로 세계 10위
 - 생산 인프라 노후화와 유전 절도 문제로 가동률은 낮으나, '24년 당고테 정유소(일 65만 배럴) 가동으로 정제 능력 확대 전망
 - 석유 수익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병행 중
- (농업) GDP의 25%, 고용의 3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경제 다변화의 중심축
 - 정부는 식량안보 비상 정책과 농업 가치사슬 투자(가공·포장·기계화 등)를 추진 중
 - EU·브라질 등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인프라 확충 중
- (제조업)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시멘트·식음료·화학·의약품 등이 주요 산업
 -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Afreximbank(아프리카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해 수출 지향형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난·물류비·인프라 부족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건설업) 교통·전력·상하수도 프로젝트 확대로 성장세를 유지 중
 - '22년 시장 규모는 1,359억 달러이며, '30년대까지 연평균 3~6% 성장 예상
 - 라고스-카노 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중이나 자금 조달 지연이 과제임

□ 가나

- (산업 구조) '24년 GDP는 농업 22.2%, 산업 30.8%, 서비스업 47%로 구성됨
 - 산업 부문이 7.1% 성장하며 광업·건축이 견인, 농업은 코코아 생산 감소로 2.8% 성장
 - 서비스업은 정보통신(15.8%)과 금융(7.8%) 중심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
- (농업) 코코아·캐슈너트·시어버터·열대과일 등 수출 중심 산업
 - '25년 상반기 코코아 수출액은 21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
 - 유기농·천연식품 수요 확대로 건조 망고, 코코넛 오일, 플랜테인 칩 수출도 증가세
- (광업) 금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
 - '25년 상반기 금 수출은 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16년 이후 최고치)
 - 정부는 금위원회(GoldBod)를 신설해 금 수출 규제 및 관리 강화 중

□ 케냐

- (산업 구조) '25년 상반기 GDP 기준 1차 산업 22.5%, 2차 산업 17.3%, 3차 산업 60.2%로 서비스 중심 경제 구조 강화 중
 - 농업·제조·건설의 회복세와 함께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24% 이상 성장
- (농업) GDP의 약 22%를 차지하며 경제 회복의 핵심 부문
 - 정부의 비료 보조정책과 기후 여건 호조로 차·우유·사탕수수 생산량이 크게 증가
 - 사탕수수는 전년 대비 289% 증가하여 252만 톤 이상 생산
- (제조업) GDP 기여도는 7.6%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일본·미국 등과의 협력으로 자동차 조립·섬유산업 투자 확대 중이며, 세제 감면으로 민간 투자 유도 중, 정부는 '26년까지 연 6% 성장 달성을 목표로
- (건설업) 인프라 예산 확대에 힘입어 '25년 2.9% 성장, 회복세 진입
 - 정부는 에너지·교통·주택 프로젝트에 39억 달러를 배정, 대형 프로젝트 다수 추진 중
 - 시멘트 생산·소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
- (ICT) GDP의 9%를 차지하며 케냐 디지털 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
 - 모바일 가입률 145%, 모바일 머니 거래액 GDP의 53% 차지로 금융 포용이 확산
 - 정부의 'Digital Superhighway' 정책으로 5G·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
- (관광업) GDP의 7% 이상을 이바지하며 17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중
 - 온라인 플랫폼 'Tukio' 확산으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 '35년까지 관광 관련 일자리 220만 개 달성이 예상

□ 모잠비크

- (산업 구조) GDP의 31%를 차지하는 농림축산업이 최대 산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0%가 종사함
 - 캐슈넛, 사탕수수, 옥수수, 목화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며, 소규모 자급농 중심 구조로 식량안보와 직결됨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 보조 및 민간 농가 협동체 지원이 확대 중
- (광업) GDP 비중이 '18년 7.4%에서 '25년 15.1%로 확대, 핵심 성장 산업으로 부상
 - 석탄, 천연가스, 흑연, 리튬, 중광물 등 자원이 풍부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 전략자원으로 평가
 - TotalEnergies, Vale, Rio Tinto 등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채굴·탐사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제조업) 광산·에너지 중심 투자 집중으로 상대적 소외 상태에 있음.
 - 알루미늄·식품가공·시멘트가 주요 산업이며, 외국 자본 중심의 내수 시장 구조를 형성
 - 대표 기업으로 MOZAL(알루미늄), CDM(음료), Dangote Cement(시멘트) 등이 있음

□ 에티오피아

- (산업 구조) '24·'25년 회계연도 GDP는 농업 31.8%, 산업 29.1%, 서비스 40.2%로 구성
 - 농업 중심 구조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중이며, 3개 부문 모두 평균 8.1% 성장
 - 산업 중 건설(72%)과 제조(23%)가 주도하며, 통신·운송·숙박·도소매가 서비스 성장의 핵심 산업
- (농업) GDP의 약 28%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
 - 커피가 대표 품목으로 생산량 7.8% 증가, 농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
 - 캐슈너트·화훼류·채유용 종자 등도 주요 수출 품목이나 커피 비중이 지속 확대
- (커피 산업) '24·'25년 회계연도 수출액 27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
 - 정부의 그린 레거시 이니셔티브(Green Legacy Initiative)를 통해 대규모 커피 묘목 식재가 이루어짐
 - 전체 수출에서 커피 비중이 60% 이상으로 확대되어 외화 수입의 핵심이 됨
- (의류 제조업) 낮은 관세(10%) 적용으로對미 수출 경쟁력 상승 중
 - AGOA 종단 이후 위축됐던 봉제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며, 방글라데시·인도 대비 유리한 입지로 평가, 다국적 의류 기업들의 에티오피아 생산 이전 문의가 증가

□ 코트디부아르

- (산업 구조) 수출은 카카오, 석유제품, 고무, 캐슈너트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
 - '25년 8월 기준 카카오와 고무 비중이 확대된 반면, 석유제품 비중은 소폭 하락세를 보임
 - 농산물 중심의 1차 산업이 여전히 경제의 근간을 형성

- (농산물 산업) 카카오·캐슈너트·고무는 기후 및 품질 리스크와 낮은 가공률이 주요 한계 요인
 - 정부는 현지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현지 가공시설 및 유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
 - 코코아매스, 초콜릿 등 중간·완제품 수출 비중을 늘려 수익 다변화를 도모
 - (천연자원 산업) 석유·금·가스 등 천연자원이 수출의 주요 축으로 작용
 -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및 환경 규제가 리스크로 작용하나, 정부는 자원개발 투명성 제고와 친환경 개발 정책을 병행 추진 중
 - 향후 석유화학·광물 가공 등 연관 산업 육성 가능성이 높음
- 탄자니아
- (농업) 전체 수출의 약 33%, 인구의 65%가 종사하는 핵심 산업
 - 쌀·커피·설탕 생산 확대와 정부의 커피 가공·쌀 증산 정책으로 성장 지속
 - 다만 비료·종자 등 투입재 부족과 기후 리스크로 생산성 제약 요인 존재
 - (광업) 금과 핵심 광물 중심의 성장세 지속
 - 금값 상승과 외국 기업 투자로 금광 산업 호조, 중앙은행은 금 매입 확대 정책 추진
 - '25년 니켈·코발트 프로젝트 가동 예정, 리튬·흑연 등 배터리 광물 개발 본격화
 - (인프라·건설·물류) 대형 교통·에너지 프로젝트가 성장 견인
 - 수력발전소·철도·항만 확충 중심의 인프라 투자 활발
 - 표준궤철도(SGR), 다레살람 항만 확장으로 물류 효율 개선 기대
 - 도로망 미비와 연료비 상승은 여전히 물류비용 부담 요인
 - (보건·의료) 제약 국산화와 의료 인프라 확충이 병행
 - VAT(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제약 산업 국내 생산 기반 강화
 - 의료기기 시장은 연 8~10% 성장, '29년 1억 6,800만 달러 전망
 - (관광) 외화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25년 약 28억 달러 전망
 - 사파리·자연유산 중심의 고부가 관광 확대, 유럽·인근국 관광객 동시 유입
 - (제조업) 산업 다각화 정책에 따라 점진적 성장세
 - GDP 이바지도 약 8%로 아직 제한적이나 내수·수출 지향형 제조 잠재력 존재
 - 식음료·시멘트 등 기초 소비재 중심 산업 구조, 인프라·인력 한계는 과제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24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4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6% 증가
 - 권역별로 남부는 44%, 동부는 12%, 중앙은 13% 증가했으며 서부는 7% 감소
- 그린필드는 37% 감소했으나 건설·금속제품 부문 그린필드는 증가,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도 금액 확대
 -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IPF)가 감소했으나 아프리카만 유일하게 8% 증가
- '24년 아프리카는 개발도상지역 중 비교적 활발하게 투자정책을 변경하며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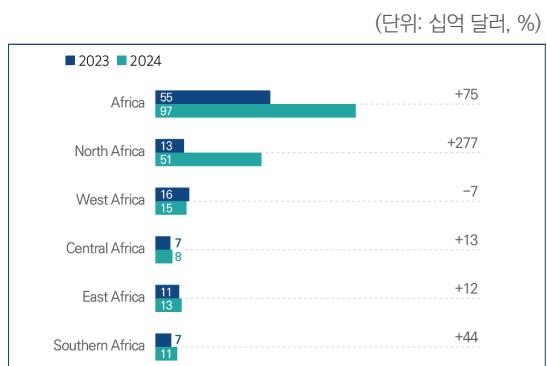
-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외환규제를 완화하며 자유화 조치
-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력 시장 자유화로 재생에너지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했고 앙골라는 의약품 부문 인허가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투자자 투명성 제고

SSA FDI 유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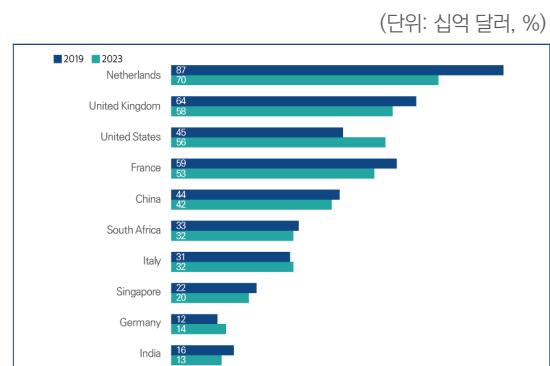
연도	(단위: 백만 달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계	1,658,784	868,563	1,676,523	1,389,526	1,454,976	1,508,803
SSA	32,881	31,164	72,760	39,365	41,983	46,440

자료: UNCTAD('25년 10월)

〈권역별 FDI 유입 추이(북아프리카 포함)〉



〈아프리카 FDI 투자 상위 10개국 추이〉



자료: UNCTAD('24년)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데이터센터, 핀테크가 SSA 지역 주요 FDI 유치 산업으로 주목(UNCTAD)
 - 디지털 경제 부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작 수준이 타 대륙 대비 낮고 구조적·규제적 장벽으로 규모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평가
- 콩고민주공화국, 나미비아, 잠비아 등 일부 SSA 국가는 광업 프로젝트 및 신규 광물 자원 탐사로 FDI 다수 유치
- 인프라 격차와 도시 개발 수요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와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FDI도 대거 유입
 -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는 대규모 자본 집약적 인프라 프로젝트를 유치했으며 가나, 케냐는 중간 규모의 큰 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함
 - 최근 환경 관련 허가 문제로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

□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등)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아프리카 상위 투자국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독일, 인도로 유럽 기업이 최대 투자자 지위 유지
 - '24년 UAE는 아프리카 건설 부문에 많은 자본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북아프리카 포함 490억 달러 투자)

□ 한국의 对SSA 투자 현황

- 한국의 对SSA 투자는 '24년까지 누적 4억 2,500만 달러로 전체의 1.2% 비중
 - '24년 한국의 对SSA 투자는 119만 달러 기록, 수단 45만 달러로 가장 높음

□ 한국의 对아프리카 투자 진출

- '24년 한국의 对아프리카 FDI는 약 6억 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
 - '23년 3억 4,000만 달러, '25년 2분기 누계는 1억 달러 투자
 - '24년 10월까지 한국의 对아프리카 FDI 누계는 70억 7,000만 달러
 - 한국의 누적 해외투자 중 아프리카로 유입된 비중은 0.8% 수준

한국의 对아프리카 투자 진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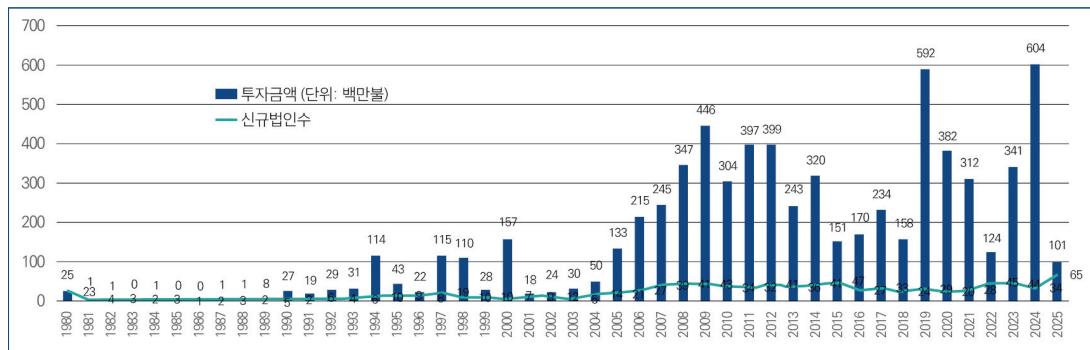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분기 누계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투자금액	124	-60%	341	175%	604	77%	101	-83%
신규 법인 설립 건수	45	61%	44	-2%	34	-23%	65	9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5년 10월)

- (연도별) '06년 이후 투자 진출 본격 시작, '24년도 투자 금액 최고치 기록
 -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진출이 본격화된 '07년 이후 매년 对SSA에 투자된 금액은 1~4억 달러 수준
 - '24년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3억 9,000만 달러로 대규모 투자 진출, 광업에도 1억 5,000만 달러 투자

〈연도별 한국의 아프리카 투자 금액 및 신규 법인 수 현황〉



자료: 수출입은행(북아프리카 포함, '25년 10월 기준)

- (업종별)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업종은 투자 금액 기준 광업이 최대 규모
 - 광업 다음으로는 제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

한국의 아프리카 투자 진출 업종 현황(누적)

(단위: 백만 달러, 건)

업종 분류	투자 금액	신규 법인 수	비중
광업	3,817	37	54%
제조업	1,192	45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31	37	10%
도매 및 소매업	310	42	4%
숙박 및 음식점업	266	26	4%
운수 및 창고업	194	24	3%
건설업	157	36	2%
정보통신업	109	24	2%
농업, 임업 및 어업	85	33	1%
금융 및 보험업	76	16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0	16	1%
부동산업	40	11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	27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	13	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8	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8	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	3	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3	0%
교육 서비스업	0	2	0%
합계	7,072	930	-

자료: 수출입은행(북아프리카 포함, '25년 10월 기준)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발전소 정비 C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 현지화 전략으로 프로젝트 수주

- (기업 정보) C사, 발전소 정비
- (성공 사례) C사는 '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공사(Eskom) 소유 화력, 원자력 16개 발전소의 OH공사(종합 분해, 수리, 점검 공사)를 228억 원 상당액 수주 후 '23~24년에도 연이어 입찰 성공
 - '13년 C사 진출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발전소가 이미 해외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 선택
 - 더욱이 발전소 주변 대학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당국과 현지에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
 - 해외 대기업이 선점하던 아프리카 발전소 정비 시장에서 '21년 170억 원 규모의 Eskom 발전소 정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3년 장기 사업까지 연속적으로 수주
- (시사점) 현지 유망 기업 발굴 및 현지 직원 트레이닝으로 한국 파견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본사 기술 부서와 유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원가 절감 및 정비 품질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현지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책과 부합하여 입찰에서 고득점 기록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K사, 가나 대학교 프로젝트를 위한 현지 지사 설립

- (기업 정보) K사 건설업
- (성공 사례)
 - 한국 정부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통해 가나 교육부를 지원하는 '가나 동부지역 환경·지속가능 개발대학(UESD : University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건립 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 국내 건설 기업 K사는 현지 지사를 설립하고 시공 사업 진행 중
- (시사점)
 - 시공 전 컨설팅 사업에는 연세대학교가 커리큘럼을 개발, 희림 건설이 캠퍼스·건축물 설계를 담당, 완공 시 교육기자재 공급은 DB Inc사가 담당하는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관여. 교육부는 UESD를 산업 특성화 국립대학교로 확산 계획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의류 제조 기업 A사, EU 시장 등 공략을 위하여 에티오피아 공장 설립

- (기업 정보) 기능성 의류·텐트 전문 제조 기업(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의 OEM 방식 제조)
- (성공 사례) '14년 에티오피아에서 공장 설립, 현재 약 6,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대표 의류공장으로 자리 잡음
- (시사점) 에티오피아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는 유럽 등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수출 가능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석유화학 기업 M사, CNSL 생산 공장 설립을 통한 바이오중유 원료 공급망 다변화

- (기업 정보) 석유화학제품 무역 회사 M사, 바이오중유 핵심 원료 생산 공장 투자 진출
- (성공 사례)
 -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 상향,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바이오중유 원료 확보 필요성 증대
 - 탄자니아는 캐슈너트 생산 세계 8위 국가로, 부산물인 Cashew Nut Shell Liquid(CNSL)이 바이오 중유의 핵심 원료임
 - M사는 탄자니아에 CNSL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기존 베트남 의존적 공급망을 다변화, 또한 캐슈너트 2차 가공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탄자니아 정부 산업화 정책과도 부합
- (시사점) 한국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바이오 연료 분야에서 탄자니아 농산물 기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베트남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 + 현지 산업정책 연계라는 점에서도 전략적 의미가 큼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가발 생산 기업 P사, 품질과 트렌드 대응으로 현지 소비자 시장 공략

- (기업 정보) 가발 제조 기업 P사, 탄자니아에 생산 거점 운영
- (성공 사례)
 - 가발은 아프리카 여성에게 필수 소비재이며,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큼
 - 중국 기업이 저가 제품으로 공략하며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P사는 고급 원사와 한국산 설비·기술을 활용해 차별화
 - 저렴한 현지 노동력 활용,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젊은 소비자층 요구에 맞춘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
- (시사점) 단순 제조를 넘어 현지 수요에 맞춘 제품 개발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으며, 이는 경공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제도·규제) 많은 SSA 국가는 거버넌스 및 법률 시스템 안정성이 부족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분석
 - 정책 불확실성이 높고 규제 감독과 행정 집행 일관성이 부족한 편이며, 관료주의로 인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 회사 등록, 라이선스 등 장기간 소요
- (인사·노무) 현지 인력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현지인 고용 비율 의무나 특정 직무 자국민 배치 의무 규정이 있어 글로벌 기업에 불리
 - 노동조합의 파업도 종종 발생해 경영 불확실성도 상존
- (특정 산업 투자 금지 등 규제) 국가 안보나 주권과 직결된 일부 산업과 공공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외국 기업 단독 진출이 제한되기도 함

- 광물 자원은 국가 핵심 자산으로 간주해 정부나 국영 기업의 의무적 지분 참여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음
- 농업용 토지 역시 식량안보 때문에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장기 임대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음
- 금융·통신 부문도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의 엄격한 승인이 필수적이며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 의료는 공공 서비스 성격이 강해 현지 파트너와의 협작을 의무화하기도 함

※ 주요국 투자 진출 동향

□ 남아프리카공화국

- '24년對남아프리카공화국 FDI 유입액은 25억 달러, 전년 대비 약 29% 감소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평가됨
 - 에너지·건설·채굴 대형 프로젝트가 지역 투자 유치의 핵심
- 투자 유출 측면도 주요하며, '23년 해외직접투자 28억 달러 → '24년 12억 달러로 감소
 - 정부는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외환·전력 시장 자유화를 통한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 중
 - 청정에너지·디지털 전환·공공의료개선이 미래 FDI 유치의 전략 산업으로 지정됨
- 한국과의 투자 관계는 미미한 수준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对한 투자는 누적 9,532만 달러

□ 나이지리아

- '25년 1분기 외국인자본 유입액은 56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
 - 포트폴리오 투자가 92.2%를 차지하며, FDI는 1억 2,600만 달러 수준
 - 영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금융·법률 제도 유사성 기반 우위를 유지하며, 중국은 자유무역지대 위주로 투자, 일본·미국·프랑스는 재생에너지·소비재·농업 투자
- 한국의 누적 투자액은 3억 4,500만 달러로 제조업과 광업이 대부분
- 오일·가스 부문은 국영 석유공사(NNPC)와 협작투자 필수이며 현지 파트너의 최소 5% 이상 지분 보유 의무 존재

□ 케냐

- '25년 1분기 한국의 对케냐 투자 신고액은 21만 7,000 달러, 실제 투자 금액은 17만 8,000 달러로 집계,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금속가공 중심
 - Green Energy Park, EV 인프라 등 녹색 프로젝트 관련 협작 및 MOU 활발
- 몸바사항·표준궤철도(SGR) 기반의 역내 연결성 우수하고, 영어 사용 고학력 인력이 풍부해 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매력적

□ 가나

- '24년 가나 FDI는 6억 2,000만 달러, 프로젝트 140건으로 '20년 대비 약 23% 수준
- 한국의 对가나 투자는 '25년 상반기 기준 170만 달러, 6개 업종에서 투자
- 외국인 투자 시 최소 투자 금액이 단독 50만 달러, 협작 20만 달러이며, 무역업은 100만 달러 및 가나인 고용 20명 이상(노점상·미용업·택시업 등은 외국인 투자 제한)

□ 모잠비크

- '24년 모잠비크 FDI 유입액은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회복세
 - FDI 누적액(저량)은 608억 달러로 집계되며 10년간 꾸준한 상승세 유지
 - 에너지·광업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지속이 주요 성장 요인
 - 주요 투자 산업은 LNG·광업·ICT 분야 중심
 - 주요 투자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28%), 모리셔스(26%), 네덜란드(26%), 중국 순
- 한국의 對모잠비크 투자는 미미하나 '25년 재진출 조짐
 - LNG 프로젝트 재개로 EPC 분야 3개 기업 진출 시작
- 인허가 지연, 외환 유동성 부족, 전력 공급 불안 등이 진출장벽으로 작용

□ 에티오피아

- '25년 8월 기준 에티오피아 FDI는 내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
 - '22년 7건 → '24년 52건으로 꾸준히 증가, 제조·부동산·농업 분야 중심
 - 통신·항공 등 국영 기업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개방이 주요 요인
 - 주요 투자 유치 산업은 농업·제조업·광업·에너지 분야
 - 주요 투자국은 중국·인도·미국·네덜란드 순
- 한국의 對에티오피아 투자 규모는 약 7,259만 달러('25년 3월 누계), 의류 봉제 등 노동집약 산업 중심 투자
- 낮은 숙련도와 높은 이직률, 보수적 노동법으로 인한 인사관리 부담, 외화 부족, 물류비 상승 등 경영 환경 불안 요인이 리스크

□ 코트디부아르

- 코트디부아르 FDI는 최근 4년간 13억 9,000만 달러('21년) → 38억 달러('24년)로 173% 증가
 - 서아프리카 내 유망 투자처로 부상, 지역 자본 유입이 늘며 역내 투자 허브로 입지
 - 중점 투자 유치 산업은 농업·에너지·디지털 인프라
 - 주요 투자국은 중국·프랑스·일본 등
- 한국의 對코트디부아르 투자 누적액은 약 6,100만 달러
- 주요 진입장벽은 엄격한 노동법과 높은 사회보장세로 인건비 경쟁력이 제한되는 것
 - 또한 전략자원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되고 프랑스어 중심의 언어 장벽도 존재

□ 탄자니아

- 탄자니아는 최근 5년간 FDI 유입이 급증하며 동아프리카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
 - '24년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404건으로 전년 대비 88.8% 증가
 - 아프리카 전체 FDI 감소세 속에서도 14.7% 증가하며 지역 투자 허브로 부상
 - 주요 투자 유치 산업은 제조·에너지·광업 중심, 산업화 전략에 따라 농식품 가공·경공업 부문 투자 잠재력 확대
 - 주요 투자국은 중국·일본 등
- 한국의 對탄자니아 투자 금액은 '24년 1,067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8% 증가
 - 건설·광업 외에도 ICT·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투자 다변화
- 진입장벽은 숙련 인력 부족, 복잡한 외국인 고용 절차, 전략 산업 내 정부 지분 참여 의무, 외국인 소매업 제한 등 진입 규제 강화, 행정 절차 지연 및 정책 예측 불가능성

2. 유망 산업

가. 인프라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25년 SSA 지역 인프라 건설업은 1,14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4.7%로 성장 전망, 전 세계 지역 중 가장 빠른 성장세(BMI)
 - '25년 2분기 기준 신규 및 진행 중인 3,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총 3,960건으로 집계(BMI)
 - * 전체 프로젝트 중 15.5%가 PPP(민관협력사업) 방식이며 금액 기준으로 전체 투자액의 28% 차지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23~'30년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수요를 연간 1,810~2,210억 달러로 추정하며 도로와 에너지를 주요 투자 부문으로 꼽음
 - '25년 완료 예상되는 아프리카 PPP 프로젝트 규모는 25억 달러 이상(KIND)
 -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PIDA), '30년까지 69개 프로젝트로 교통, 에너지, ICT, 수자원에 1,600억 달러 투자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4년 아프리카 역내 에너지 시장 투자 규모를 약 1,100억 달러로 추정, 이 중 700억 달러가 전력 부문에 투자
 - 도시 지역은 깨끗한 물 접근 비율이 90% 이상이지만 농촌은 67%에 불과하고 전체 도로의 47%만 포장되어 있음(KIND)
 - 낙후된 인프라에 적절한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무역 비용 약 30~40% 상승
- 최근 수출입 동향
 - 철강제품이 '24년 기준 73%가 증가한 8,095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 증가가 철강 수요를 견인
 - 또한 광산 개발업체들이 대형 굴착기나 불도저와 같은 기계류를 다수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산 품질 좋은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
 - 지난 2~3년간 에너지 설비 수입이 급증했다가 다소 감소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 SSA 대부분 국가의 에너지 설비 수입 증가세 기록
 -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는 '24~'25년에 아프리카 수입이 60% 증가한 것으로 확인(Ember Energy)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AfDB·EU·UN-Habitat 등이 참여하는 'Green Cities Africa Initiative'를 통해 친환경 주택·상하수도 개선 사업 증가

- 전략적 물류 회랑 개발 가속화, 해외 주요국들과 국제 금융기관 주도로 투자

SSA 지역 전략 물류 회랑 개발 현황

회랑명	주요 연결국	투자기관·참여국	사업 내용 및 특징
로비토 회랑 (Lobito Corridor)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AfDB(5억 달러), 미국, G7	광물자원 수출 통로로 개발. 철도·항만 현대화 및 물류 회랑 확충. 미국 G7이 타당성조사 및 환경· 사회영향평가 주도
다레살람·중앙 회랑 (Dar es Salaam & Central Corridor)	탄자니아–르완다– 부룬디–우간다	AfDB, EU, 일본 등	동아프리카 내륙국의 해상 접근성 개선. 도로·철도망 연결 및 통관 효율화 목표
북부 회랑 (Northern Corridor)	케냐–우간다–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지역정부	중국 기업이 철도·항만 건설 및 운영권 확보 확대. 케냐 몴바사항 중심의 내륙 수출입 경로
에티오피아–지부티 철도회랑 (Ethiopia–Djibouti Corridor)	에티오피아–지부티	중국(China Exim Bank, CRCC 등)	중국 자금·기술 투입으로 철도 인프라 구축 완료. 에티오피아의 핵심 해상 수출입 통로
아비장–라고스 회랑 (Abidjan–Lagos Corridor)	코트디부아르– 가나–토고–베냉– 나이지리아	AfDB, WB, EU	서아프리카 지역 통합 물류망 구축 대표 프로젝트. 약 1,028km 구간 도로·항만 현대화 및 역내 무역 촉진

자료: AfDB, WB, EU, Construct Africa 등 언론 보도 종합

SSA 지역 에너지 인프라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ACED, Reat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89MW 풍력 프로젝트 Castle Wind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프로젝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 광산 업체인 Sibanye Stillwater가 구매자 (Off-taker)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민간 전력 구매 계약 풍력 발전소 중 하나 - Castle Wind Farm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독립 전력 생산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컨소시엄에 의해 개발되었고 Sibanye 측이 이 컨소시엄과 15년간의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함 - 발전소는 북부 케이프주에 위치하여 광산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국영 전력공사 Eskom과 훌링(Wheeling) 계약 체결, 해당 전기를 기존 송전망을 통해 전송받아 사용 - Sibanye 측은 연간 309GWh의 전력을 공급받아 그룹 전력 수요의 약 5.5%를 충당하고 연간 32만 1,000톤의 CO2e 배출량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 미래 탄소세 부과 위험 완화 효과
Solarcentury Af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위의 50MW 규모의 태양광 및 배터리저장시스템 프로젝트 Nkhoma Deka Solar과 보츠와나 105MW 태양광 프로젝트 Tati Solar Power S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위 프로젝트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컨소시엄 주도, 보츠와나는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이 협업한 모델 - 말라위의 경우 정부의 발전 용량 증대 계획에 이바지하며, 보츠와나 생산 전력은 남아프리카전력 공동망(SAPP)을 통한 전력 거래를 목표로 함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Construct Africa

SSA 지역 물류 인프라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DH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간 SSA 지역 물류 인프라 확장 투자 계획 발표(25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HL은 SSA에 3억 유로 이상 투자해 콜드체인과 물류망을 강화할 예정, 이는 국제 물류 기업의 역내 최대 규모 인프라 투자 약속 중 하나 - AfCFTA 목표인 역내 무역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고 SSA 기업들의 글로벌 무대 경쟁력 제고가 투자 목표

자료: 기업 홈페이지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에너지 인프라 기자재 및 EPC, 친환경·저탄소 전환 기술, 물류 및 도시 개발 인프라 분야 협업 가능성 상존
 - 송·변전 설비 등 기자재 수요가 높고 재생에너지 민간 IPP(민자발전사업)와 PPP(민관협력사업) 구조가 많으므로 EPC 기업이나 기자재 업체가 현지 컨소시엄 참여 가능할 것
 - 상하수도, 배수망, 폐수처리,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개발 등 도시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확대 중
 - 물류 부문은 회랑이나 항만 프로젝트에서 하역 장비, 냉장·콜드체인 설비, 디지털 물류 통관 시스템 수요가 예상됨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발효로 역내 교역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물류 회랑, 항만, 통관 인프라 개선 수요가 필수적
 - 역내 교역 물량 증가와 함께 다국적 금융기관, 주요국 인프라 지원 확대 전망
-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우선순위가 높아질 전망
 - 유럽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은 낮고 효율이 높은 SSA 주요국에 투자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오프테이크(Offtake)할 가능성이 높음
- SSA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 제약으로 PPP에 의존하고 있어, 도시·주택·수처리 프로젝트 중심의 해외 민간 협력 기회가 꾸준히 증가 전망
- 핵심 광물 및 농업 가치사슬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단지·배후도시·수출 회랑 인프라 구축 수요도 동반 확대
- 스마트 인프라·디지털 관리시스템(교통·수자원·물류) 등 디지털 전환형 인프라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나. 의료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SSA의 의료기기 시장은 '24년 17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을 4%로 성장해 '29년 2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BMI)
 - 의약품 시장의 경우 '24년 198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을 5%로 성장해 '29년 253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BMI)
 - * '24년 지역별로 남부는 89억 달러, 서부는 53억 달러, 동부와 중부는 54억 달러 기록, 향후 5년 동안 남부는 5%, 서부는 6%, 동·중부는 3~4% 성장 전망
 - 소득 대비 지출은 '24년 기준 1인당 의약품 약 15.8달러, 의료기기 약 4.5달러로 추산(BMI)
 - 질병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큰 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현지 제조는 미약하기 때문에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
 - 급격한 도시화와 서구화된 생활 습관 및 식습관은 새로운 질환을 증가시켜 만성·생활 습관성 질환 관련 제품에 대한 장기적 수요가 있음
- 최근 수출입 동향
 - SSA 지역은 현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SSA에 수출하는 기업들에는 유리하게 작용
 - 달러 강세, 현지 통화 약세, 높은 물가상승률이 수입 단가를 자극하는데 미국, 중국, EU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이 높아 환율 리스크가 조달에 반영
 - 현지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 불확실성, WHO(세계보건기구) 인증 획득,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등 제약 요인 상존
- USAID(미국 국제개발처) 원조 축소로 HIV·말라리아 진단, 백신, 치료제 미국으로부터의 조달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AU(아프리카연합)는 역내 백신 자급을 '40년까지 60%로 목표
 - Gavi(백신연합)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African Vaccine Manufacturing Accelerator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음
- 다국적 의료 기업들은 SSA에 직접 공장을 세우며 진출하기보다 현지 대표 기업과 기술이전,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제조 역량 강화, 정부 투자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보험 적용 확대와 맞물려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환율 불안, 특허법 미비, 가짜 의약품 등 구조적 제약도 병존

SSA 의료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Aspen Pharma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최대 규모 제약사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는 백신과 항암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덴마크의 Novo Nordisk와 협력해서 인슐린 현지 생산을 맡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점으로 주변국에도 공급망을 확장하고 있음
Hospital Holdings In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민간 의료 서비스 기업을 인수하고 통합하기 위해 설립된 대규모 투자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C(국제금융공사) 및 아프리카 헬스케어 전문 사모펀드인 IFHA-II가 주도하여 1억 1,500만 달러 규모로 조성 - 중산층 및 중하위 계층 환자들을 위해 2차 진료와 병원 외 진료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 - 민간 투자를 통해 역내 병원과 클리닉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부족한 현지 의료 인프라 보강하는 데 이바지, 기존 병원을 인수해 새로운 병원을 건립하고 첨단 의료장비와 중급 의료기기를 들이며 현대화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SSA 대부분 국가는 고급 장비를 제조하기 어려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분야
 - 의약품의 경우 현지에 바로 진출하기보다는 기술이전이나 위탁생산 같은 방식으로 협력 가능
 - 의료 부문은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상존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AMA(African Medicines Agency, 아프리카의약청)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국가별로 따로 받던 허가 절차가 통합될 것
 - AU는 대륙 차원에서 의약품 규제 조화를 추진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AMA를 설립
 - AMA는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이행 점검 및 정합성을 확인하며 백신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요한 의약품 연구 개발도 촉진
 - 이를 통해 위조·불법 의약품 유통이 억제되고 임상시험 및 의약품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산으로 원격진료, 전자의무기록, 보험 청구 시스템 같은 디지털 헬스 솔루션 수요가 늘고 있음
 - SSA 특성상 저속 인터넷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가벼운 플랫폼이나 데이터 보안 기능이 강조됨

다. 소비자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SSA 지역 소비자 시장은 '24년 약 1,53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6% 성장해 '29년 2,1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BMI)
 - '24년 기준 아프리카 인구는 14억 명을 넘어섰고 도시화율은 43%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30년 까지 도시 거주 인구가 6억 명 이상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도시형 소비자 수요 급증 분석(UN)
 -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도시화된 엘리트 소비자 계층이 핵심 성장동력이며 이들이 브랜드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현대적인 소비를 강조
 - 온라인 유통 확대와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반 소비자 시장 성장세 뚜렷
 - 식품·음료 부문은 가공식품, 즉석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유기농과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 확대
 - 화장품·뷰티 시장은 프리미엄 스킨케어나 헤어케어 수요가 꾸준한 편
 - 가전·생활용품은 전력난에 대응한 에너지 효율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
- 최근 수출입 동향
 - SSA는 소비자 전반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한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 유럽에서 수입되는 품목이 시장을 주도
 - '24년 기준 한국산 라면, 소스류, 화장품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 가나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 추세
 - 중국산 저가품은 의류, 신발, 생활용품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 유럽이나 한국은 가전, 화장품 등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품목에서 강세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비교적 발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Temu, Shein 등 저렴한 해외 소비자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망이 융합된 옴니채널(Omni-channel) 소비가 확산되면서 브랜드 인지도보다 가격 경쟁력과 접근성이 구매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
 - 온라인 리테일 채널을 통한 직구 및 B2C(Business to Consumer) 거래도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 확산으로 중소 브랜드와 해외 소규모 수출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음
 - 또한 AfCFTA 발효에 따른 역내 물류 효율화 및 통관 간소화로 소비자의 역내 이동이 활발해지며 소규모 역내 재수출 형태의 거래가 점진적 증가세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MTN, Jumia, Takealot 등 아프리카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소비재 수입 유통의 핵심 채널로 성장
 - SSA 지역에서 은행계좌가 없는 소비자나 상인들에 대해 MTN 모바일머니(MoMo)가 전자상거래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켓플레이스와 플랫폼 역할도 확대
 - Jumia는 SSA 10여 개국에서 온라인 리테일, 물류, 결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현지 중소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 Takealot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최대 온라인 유통망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소비재 직구와 로컬 창고 물류 시스템을 연계해 수입 소비재 판매 비중을 확대 중
- Shoprite, Pick n Pay, Checkers, Woolworths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반 리테일 대형 유통망이 SSA 전역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소비재 기업의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 수행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축적한 공급망, 물류 관리 역량을 토대로 나미비아, 잠비아, 나이지리아, 양골라 등지에 현지 매장을 운영하며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
- 나이지리아, 케냐 등에서는 스타트업 중심의 퀵커머스(Quick Commerce) 플랫폼이 확대되어 일용 소비재 유통의 혁신을 주도
 - 나이지리아의 Konga, 케냐의 Glovo 등은 실시간 주문·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심 내 30분 이내 배송 서비스를 제공, 식음료·생활필수품 중심의 새로운 소비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
 - 이러한 퀵커머스 플랫폼은 대형 리테일 체인보다 물류비가 저렴하고, 중소 셀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청년층 중심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이바지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대형 유통망들을 중심으로 퀵커머스 트렌드 확대(Checkers의 Sixty60, Pick n Pay의 ASAP 등)

SSA 소비재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Walm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 소유 유통망이 아닌, 본사 브랜드로 직접 소비자 시장에 접근하는 Walm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lmart는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Massmart Holdings를 인수해 유통망을 갖추고 있었으나 '25년 본사 브랜드 매장을 오픈하겠다고 발표 -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 및 SSA 시장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및 디지털 리테일 채널의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바, Walmart도 디지털 기능이 포함된 온·오프라인 옴니채널로 오픈 예정 -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비자들은 가격 민감도가 높고 유통채널 경쟁이 치열하므로 가격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현지 소싱 제품과 현지 중소·중견 공급업체와 협력하겠다고 발표 - 전문가들은 아프리카가 아직 소비재 유통 및 리테일 인프라가 선진국만큼 성숙하지 않았고 유통, 물류, 디지털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Walmart가 신규 성장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

자료: 기업 홈페이지, AlInvest, Mybroadband, Reuters 기사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K-푸드, K-뷰티 등 한류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연계형 진출이 성공 가능성 높음
 - 한류 확산과 SNS 중심의 소비문화 확대로, 한국 화장품·식품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 현지 유통망(Shoprite, Woolworths, Takealot 등)과의 공동 프로모션, 팝업스토어 협업 기회 확대 전망
 - Jumia, Takealot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현지 물류 기업과 협업하여 한국 소비재의 직구·B2C 판매 채널 다각화 가능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AfCFTA 시행으로 역내 소비재 유통·물류망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다국적·중소기업 모두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가 열릴 전망
- SSA 소비력 확대와 젊은 소비층의 브랜드 선호 강화 및 한류 확산으로, K-뷰티,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이미지 마케팅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음
- 전력난, 물류 인프라 한계에도 디지털 소비 증가와 브랜드 선호 변화는 한국 소비재 기업들에게 프리미엄 시장 공략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

라. AI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아프리카연합(AU)은 '24년 '대륙 인공지능 전략(Continental AI Strategy)' 챕터, 책임·포용·공정한 AI 확산과 역내 규제 정합성(데이터 보호·거버넌스)을 추진하며 각국의 산업 및 공공 부문 적용을 가속화
 -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아프리카 내 데이터센터 투자와 통신망 확충이 본격화되며 AI 서비스의 상용화 기반 빠르게 구축
 - * '24년 1월 구글 클라우드가 요하네스버그 리전을 개설(아프리카 최초의 Google Cloud 리전)하여 AI·ML, 데이터 분석 접근성을 크게 제고
 - * '24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G42가 케냐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AI 생태계 투자와 지열 기반 데이터센터(향후 동아프리카 Azure 접근 허브)를 발표, 케냐 현지 파트너와는 1GW급 그린 데이터센터 협력도 공개
 - '24년 아프리카 스타트업(특히 딥테크·AI 분야 포함)의 투자 유치 규모는 총 32억 달러로 전년보다 7% 감소했지만 글로벌 자금 경색 상황에서 비교적 선방한 편

- 최근 활용 사례

- Telco·금융·공공부문 중심의 AI 채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저대역폭·모바일 중심 환경에 맞춘 경량화 모델, 챗봇, 사기탐지, 수요예측 적용이 빠르게 보급
 - * 남아프리카공화국·케냐 이동통신사는 고객 응대 챗봇, 빅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운영, 개인화 마케팅 등에 AI를 적극 도입 중
- 토고, 잠비아 등 일부 국가들은 정부에서 AI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AI 전략 및 정책 등을 발표하고 주요 산업에 AI를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SSA AI 기술 활용 사례

- 토고 정부, 디지털 현금이전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지원
 - 토고 정부는 '20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비시(NOVISSI)' 디지털 현금이전 프로그램을 도입
 - 이 사업은 AI와 위성영상, 휴대폰 사용 데이터를 결합해 정부 등록 없이도 취약계층을 자동으로 선별한 것이 특징
 - AI 모델은 위성사진으로 지역의 가구 소득 수준을 추정하고 휴대폰 통화·송금 기록을 분석해 지원 대상을 결정
 - 선정된 국민에게는 모바일머니를 통해 현금이 직접 송금되었으며 9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음. 이는 아프리카에서 정부가 AI를 활용해 복지정책을 실행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
- 잠비아 정부, 선거 허위정보 유포 방지 플랫폼 운영
 - 잠비아에서는 '21년 총선을 앞두고 UNDP(유엔개발계획)와 정부가 함께 'iVerify' 플랫폼을 운영
 - 이 시스템은 AI가 SNS와 메신저를 모니터링하며 허위정보나 혐오발언을 자동 탐지하는 구조
 - 의심 게시물은 AI가 분류하고 검증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시 정정 보도를 배포했고, 국민은 WhatsApp을 통해 허위정보를 신고
 - 이 플랫폼은 선거 중 허위정보 확산을 크게 줄이는 데 이바지했고 이후 케냐, 시에라리온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확산 적용

자료: WB, UNDP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글로벌 IT 기업들이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시장 선점을 가속화,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 지원 활발

SSA AI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Goog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에서 AI 인프라를 확대하는 Goog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ogle은 아프리카 전역에 AI 인프라인 클라우드 리전, 해저케이블, 데이터센터를 확대 중 - '아프리카 AI 미래(Africa's AI future)'라는 캠페인에서 대학생·교사 대상 AI 도구 제공, 현지 언어 지원, 데이터세트 개방 등을 발표 - 인프라 확대가 AI 도입의 전제조건인 만큼 설립하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SSA가 AI 도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
Microso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민간 부문 AI 전환을 주도하며, 인프라 구축부터 교육·정책 협력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Microso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중동 아프리카 지역 본사(MEA HQ)를 통해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AI·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확대 중 - '24년 5월에는 아부다비 기반 AI 기업 G42와 협력해 케냐에 10억 달러 규모의 AI 및 클라우드 생태계 투자 계획을 발표, 지열 발전을 활용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 - 케냐 정부와 협약을 맺고 공공 행정, 교육, 의료, 농업 부문에 Microsoft Azure 기반 AI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디지털서비스 현대화와 행정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구글, AWS 등 경쟁사와 함께 데이터센터 리전을 운영 중이며, '24년부터 공공 데이터 보호 및 윤리적 AI 가이드라인 개발에 정부 자문기관으로 참여 - 전문가들은 Microsoft가 SSA를 차세대 AI 수요 중심지이자 글로벌 남반구 AI 실증 거점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서비스 시장을 적극 확대할 것으로 전망
Supple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Supple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le은 '24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합작 기업으로, "Africa's Next Tech Stack"을 슬로건으로 AI 기반 플랫폼과 데이터 인프라를 통합 제공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전자정부, 공급망 관리 등 정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주요 시장으로 설정 - 자체 개발한 다국어 AI 검색엔진(Seek.ai), AI 문서 비서(GRIO), 노코드 자동화 플랫폼 (Makerr), 공급망 추적 시스템(Verified) 등을 통해 행정업무 자동화, 시민 서비스 개선, 물류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 적용 중 - 아프리카의 복수 언어 환경을 고려해 영어, 프랑스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등 현지 언어를 지원하는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상 챗봇 및 행정지원 솔루션 공급을 확대 중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Technology Magazine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SSA 지역은 인프라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신, 금융, 유통 분야에서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 중
 - 우리 기업 진출 시 ODA(공적개발원조)·IFI(개발금융) 사업과 연계도 가능할 것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AU의 AI 전략 추진으로 각국의 정책·규제 정합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
- 향후 통신, 핀테크, 전자상거래, 공공 서비스 분야에 AI 도입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데이터 보안 리스크 관리 수요도 높아질 것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FTA 활용 등 협력 유망 분야

- 한국은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와의 협력, AGOA 종료 이후 ‘포스트 AGOA’ 환경에서 새로운 통상 협력 채널 확보 필요성 증대
 - AfCFTA는 ’24년부터 실제 거래 사례가 발생하면서 역내 관세 인하·통관 절차 간소화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돌입함
 - 한국은 현재 아프리카 개별국과의 FTA 체결은 없으므로 AfCFTA를 활용한 역내 공급망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진출 시 AfCFTA뿐만 아니라 EU·영국 등 기존 협정망을 활용한 제3국 우회 진출도 가능

□ (개발 협력)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24년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60여 건의 협정·계약 체결, 에너지·인프라·농업·디지털 분야가 핵심 의제로 부상
 - (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배터리 저장장치, 송배전 확충, 원전 설립 등 한국 기업의 기술 협력 기회 확대
 - (인프라) AfCFTA 시행과 광물 수요 확대에 따라 교통·물류망 강화 수요 증가, 철도·항만·도로 현대화 프로젝트 유망
 - (농업)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K-라이스벨트, 농기계 현대화, 스마트팜 솔루션 등 한국형 농업 기술 협력 수요 확대
 - (디지털)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자정부(e-Gov), 디지털 금융, ICT 인프라 구축 정책과 연계해 클라우드, AI, 사이버 보안 분야 진출 기회 증대



성공 사례

- 개요
 - 관세청은 탄자니아 국세청과 '23년 2월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 사업 규모는 4,300만 달러, 사업 기간은 '23년 2월부터 '26년 2월까지 3년간 진행
- 내용
 - TANCIS는 '14년 최초 도입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기반의 통관 플랫폼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의 시스템 고도화와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가 추진됨
 - 사업은 탄자니아 국세청 발주,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가 사업자로 참여
 - 이번 사업은 통관 절차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친화적인 무역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적용은 단순 ICT 수출을 넘어 제도·운영 노하우까지 수출하는 대표적 사례임
 - 아프리카 최초 도입국인 탄자니아의 성공적 경험은 주변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높여 한국 ICT 기반 무역 인프라 수출 확대에 중요한 교두보가 됨
 - 대형 정부 간(G2G) 프로젝트의 경우, 단발성 구축보다 지속적인 고도화·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장기적 파트너십과 추가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나. 프로젝트

□ 유망 프로젝트

- (에너지) SSA 약 6억 명 이상이 여전히 전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국이 협력하여 전력망 현대화 및 스마트그리드 구축, 태양광·풍력·수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전력 공급을 확대
 - (남아프리카공화국) 송배전망 현대화, 변압기·케이블 교체 사업,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 생산자 프로젝트 확대
 -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상업 생산 본격화, 천연가스 액화·운송·저장 인프라 구축에 한국 EPC 기업 참여 가능
 - (가나) '50년까지 5,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 신재생에너지 발전·송배전 기자재 협력 기회 확대
- (인프라) 아프리카 각국은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망 확충과 물류 인프라 현대화 수요가 높고 특히 전력·교통 병목 현상 해소가 경제 성장의 핵심 과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케이프타운 항만 적체 해소 및 현대화, 철도 운영 효율화와 신호체계 개선 사업이 시급, 항만 운영 ICT 및 철도 신호 시스템 협력 가능
 -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음트와라 항만 확장 및 주변 산업단지 개발, 표준궤철도(SGR) 연계 인프라 수요 확대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 운영 안정화와 도로망 확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교통 ICT와 유지보수 기술 진출 가능
- (케냐) 나이로비 신도시·산업단지 개발, 물류 효율화를 위한 고속도로 및 도심 교통체계 현대화 사업 활발
- (가나·나이지리아) 대규모 항만 개발 및 도시 기반 시설 확충 프로젝트 추진, 건설·플랜트 기업의 EPC 참여 가능성 높음
- (탄자니아) 국가적 국책사업인 SGR(표준궤철도) 프로젝트, 다르에스살람 항만 현대화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해외 기업 참여 기회 존재
- (케냐·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철도 마스터플랜에 따라 케냐·우간다·탄자니아 철도 현대화 및 유지관리 수요, 철도 ICT·신호체계 기술 진출 여지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G2B, B2B 등

- SSA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 보건, 농업,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협력(PPP) 또는 민간기술 도입형 프로젝트 확대
 - KT Rwanda Networks(KTRN)는 르완다 정부와 한국의 KT가 체결한 통신 인프라 PPP로 전국 도매 4G-LTE망을 구축 및 운영, '23년 기준 4G 전국 커버리지 96%에 도달('14년 5%)
- G2B, B2B 모두 단순 제품 수출 아닌 제품+기술+서비스 통합 솔루션 필요
 - 한전KPS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전력공사(Eskom)의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유지 보수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연구·기술협력 MOU도 체결, 변압기나 스위치기어 등 제품만 납품하지 않고 기술인력 양성과 함께 운영 서비스까지 책임



성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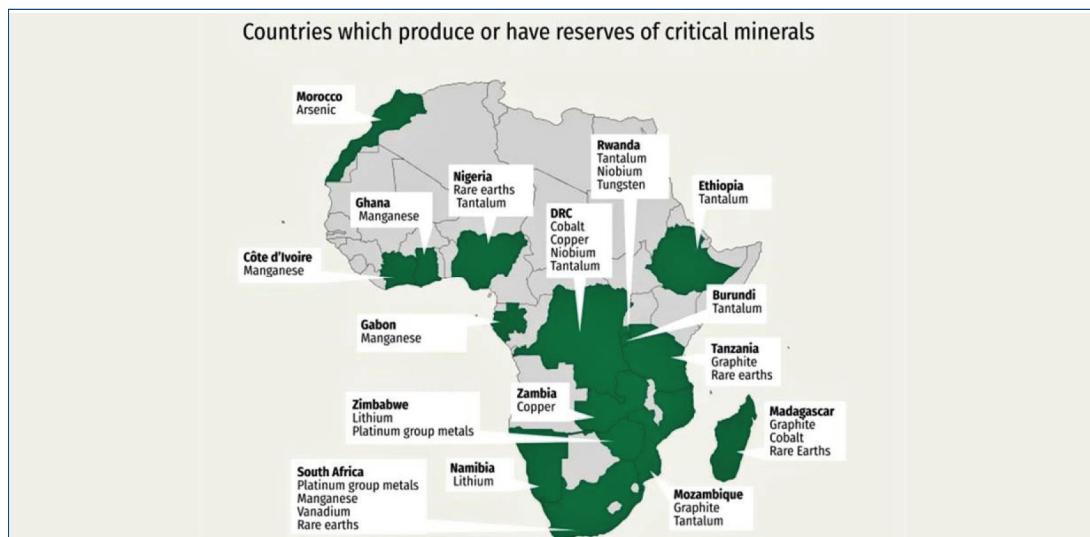
- 모잠비크 가자주 송배전망 설치 사업 및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에 참여했던 효성중공업, 유상원조 프로젝트를 통해 진출 기반 마련하여 '24년 모잠비크 고압 변전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3,000만 달러) 수주
- 유상원조 사업을 일회성 프로젝트 참여가 아닌 중장기 진출 기반 마련의 기회로 활용하여 제품의 적합성 확인, 현지 인프라 마련,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추가 진출기회 확보

다. 공급망(자원 개발)

□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역할

- SSA는 전 세계 주요 광물자원의 약 1/3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 매장량의 7.2%, 천연가스 매장량의 6.9%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자원도 풍부
 - 평균 일사량이 유럽, 아시아 등지보다 훨씬 높고 안정적인 바람 자원도 보유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조건도 매우 좋은 편
- 코발트, 니켈, 리튬, 흑연 등 4대 핵심 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
 -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광물 중 다수가 SSA 지역에 매장되어 있어 이미 상업 생산 중이거나 생산을 위해 투자하고 있음
 - *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에 사용되며 구리, 희토류는 전력망, 풍력·태양광 설비, 모터 및 전자기기에 필수 요소
- SSA의 주요 광물이나 자원 개발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 중심으로 추진
 - 광물은 리오틴토, 발레, BHP, 앵글로아메리카, 원유·천연가스는 BP, 로열더치셀, 토탈 등 에너지 메이저 기업들이 선도
- 아프리카 주요국은 광물자원을 정부의 재정 수입, 외화 수입의 원천으로 사용
 - 광업 부문은 지난 10년간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의 GDP에서 약 10%를 차지하였으며, 총 수출에서는 50% 이상을 차지함

〈아프리카 핵심 광물 지도〉



자료: The Habari Network

아프리카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광물명	단위	매장량			생산량		
		전 세계	국가 매장량	세계 순위	전 세계	국가 생산량	세계 순위
크롬	톤	560,000	남아프리카공화국(200,000)	2	42,200	남아프리카공화국(18,600)	1
코발트	톤	8,300,000	콩고민주공화국(4,000,000) 마다가스카르(100,000)	1 9	165,000	콩고민주공화국(119,000) 마다가스카르(2,800)	1 8
구리	톤	890,000	콩고민주공화국(31,000) 잠비아(19,000)	10 11	21,200	콩고민주공화국(1,740) 잠비아(842)	4 7
공업용 다이아몬드	백만 캐럿	1,300	보츠와나(300) 콩고민주공화국(150) 남아프리카공화국(120)	2 3 4	46	콩고민주공화국(11) 보츠와나(7) 남아프리카공화국(6)	2 3 4
형석	톤	260,000	남아프리카공화국(41,000)	4	8,680	남아프리카공화국(403)	4
금	톤	52,000	가나(1,000) 말리(800)	11 18	3,090	가나(88) 말리(51)	13 14
천연흑연	톤	330,000,000	마다가스카르(26,000,000) 모잠비크(25,000,000) 탄자니아(18,000,000)	4 5 6	1,130,000	모잠비크(72,000) 마다가스카르(70,000)	3 4
철광석	천 톤	180,000,000	남아프리카공화국(1,000,000)	13	2,680	남아프리카공화국(73.1)	7
리튬	톤	26,000,000	짐바브웨(310,000)	7	107,000	짐바브웨(710)	7
망간	톤	1,700,000	남아프리카공화국(640,000) 가봉(61,000) 가나(13,000)	1 6 8	20,100	남아프리카공화국(7,200) 가봉(4,340) 가나(940)	1 3 5
인광석	톤	72,000,000	남아프리카공화국(1,600,000)	6	226,000	남아프리카공화국(2,130) 세네갈(2,100)	12 13
백금족	kg	70,000,000	남아프리카공화국(63,000,000) 짐바브웨(1,200,000)	1 3	(팔라듐) 214,000 백금 (192,000)	남아프리카공화국(84,300) 짐바브웨(12,400) 남아프리카공화국(142,000) 짐바브웨(14,700)	2 5 1 3
소다회	톤	25,000,000	보츠와나(400,000) 에티오피아(400,000) 케냐(7,000)	3 3 5	16,000	보츠와나(262) 케냐(250) 에티오피아(18)	3 4 5
탄탈륨	톤	N/A			1,840	콩고민주공화국(790) 르완다(269) 나이지리아(110)	1 3 4
주석	톤	4,600,000	콩고민주공화국(130,000)	6	305,000	콩고민주공화국(16,700)	7
티타늄 (티탄철석)	톤	650,000	남아프리카공화국(30,000) 모잠비크(26,000) 마다가스카르(22,000)	7 8 9	8,900	모잠비크(1,100) 남아프리카공화국(900) 마다가스카르(414)	2 3 9
티타늄 (금홍석)	톤	49,000	남아프리카공화국(6,500) 모잠비크(890) 마다가스카르(520) 시에라리온(490)	3 5 6 7	618	시에라리온(123) 남아프리카공화국(95) 모잠비크(8)	2 3 8
바나듐	톤	26,000,000	남아프리카공화국(3,500,000)	4	105,000	남아프리카공화국(8,800)	3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5년 자료 기반 KOTRA 재가공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국내 기업 Y사, 탄자니아 이차전지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광물 개발 투자 진출

- (기업 정보) 국내 Y기업, '24년 1월 탄자니아에 현지 자회사 설립
- (성공 사례)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전략 추진
 - 니켈, 리튬, 흑연 등 이차전지 핵심 원료 광물 개발 및 트레이딩 사업 추진, 현지 합작법인(JV)을 통해 기본 광업 면허(PML)를 취득하고, 니켈 원광 수출 계획 수립
- (시사점)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합작투자와 자원 개발에 참여한 사례로, 향후 광물 가공·제조업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며,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 속 한국 기업의 투자 다변화 전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76 |
| 2. 진출전략 | 78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AfCFTA 진전) 54개국 서명·49개국 비준과 Guided Trade Initiative(GTI)를 통해 역내 거래가 확대되는 등 AfCFTA의 단계적 진전
- (대외 통상 불확실성) AGOA 만료, 미국 상호관세 도입,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다양한 통상 환경 변화가 변수로 작용
- (투자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력규제개정법, 다레살람의 PPP정책, 에티오피아의 특별경제구역 법 제정 등 다양한 투자 촉진 정책 시행
- (자원정책) 가공 전 리튬·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나미비아) 등 자원국의 현지화·부가가치 정책 강화



경제(Economic)

- (탄탄한 성장) 물가와 환율 안정세, 긴축 통화정책 해소, 민간 소비 및 투자 회복으로 '26년 4.4%의 탄탄한 성장 회복 예상
- (재정·부채 리스크) 다수 국가가 공공부채·이자 부담으로 재정 여력 제약, IDA 적격국 중 53% 대외 부채 고위험·부채 불이행으로 분류
- (무역 인프라 개선) 철도, 항만 등 물류 인프라 개선과 PAPSS 등 범아프리카 결제 인프라 운영 확대로 교역 확대 기대
- (자원 부국·핵심 광물) 주요 광물 자원의 1/3이 매장, 핵심 광물 매장량 풍부, 전기차·재생에너지 확대로 아프리카 공급망 전략성 확대



사회문화(So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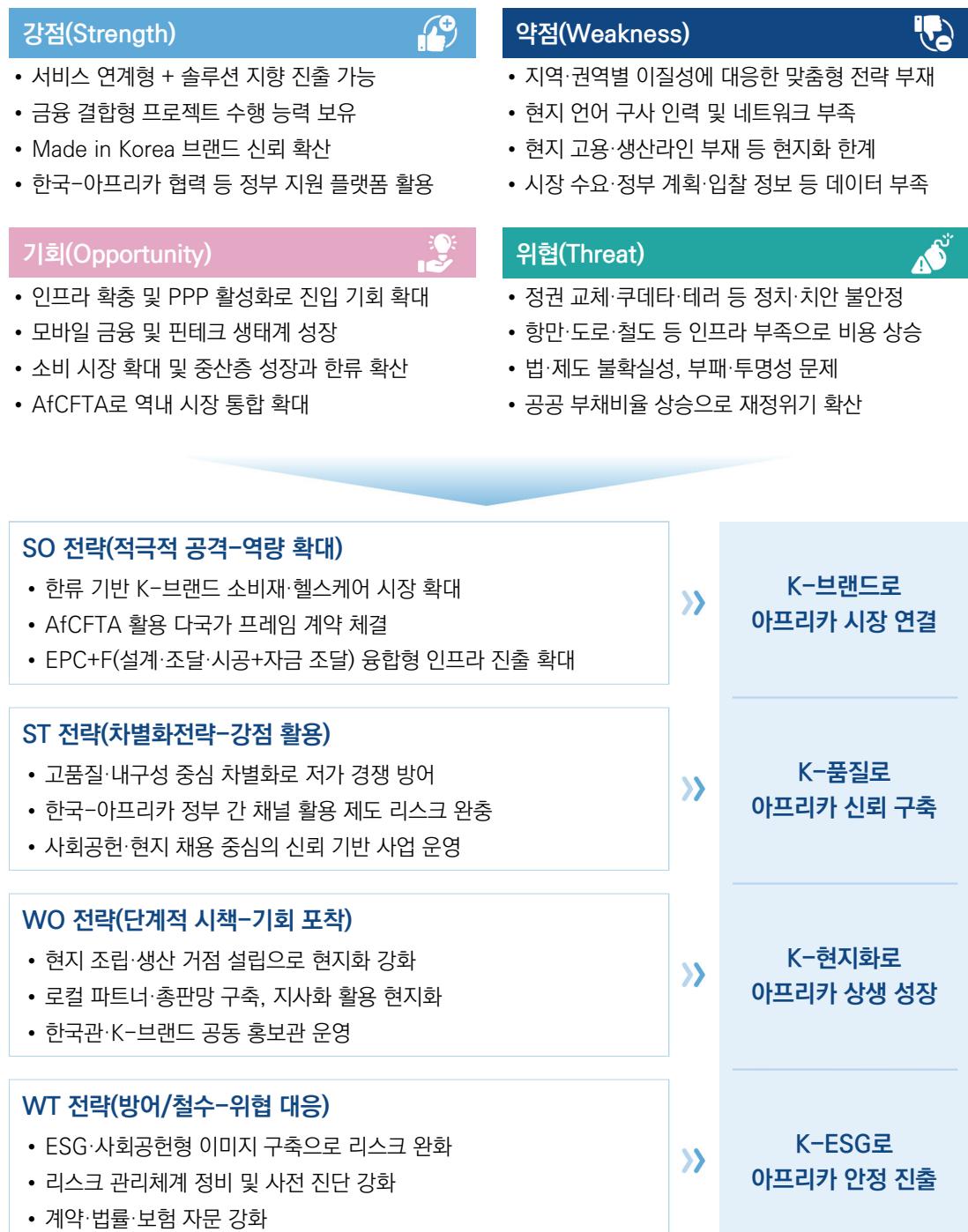
- (젊은 인구) 세계 최저 수준의 중위연령과 높은 합계출산율 지속 → 지속적으로 청년층 급증 → 일자리·소비·교육·보건 수요 확대
- (급속 도시화) SSA 다수 국가의 도시인구 증가율 3~5%, 대도시권 확대의 영향으로 주거·교통·공공 서비스 수요 급증
- (식량·기후 취약) 기후변화·분쟁·경제 충격이 중첩되며 급성 식량 불안 인구가 다수 국가에서 고착, 5명 중 1명꼴로 기아를 경험
- (문화·언어 다양성) 54개 국가·2,000여 개의 언어·다양한 종교로 구성된 다언어·다문화권의 혼재로 소비·유통·마케팅 채널 세분화



기술(Technological)

- (모바일 머니 대중화) '24년 등록계정 21억 개, 거래액 1조 6,800억 달러, SSA 전체 거래의 70% 이상 모바일머니로 거래
- (디지털 거버넌스) AfCFTA 디지털 무역 의정서 채택, 국가별 데이터법 정비 등 디지털 상거래 공통 규범 및 거버넌스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약 6억 명 이상 전기 없이 생활 중, 전력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전력 공급 수요 증가
- (디지털 헬스 전환)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헬스 이용자 급증,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수요 급등

SWOT 분석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Strengthen]
기반 강화

- 'Strengthen the Foundation' 인프라로 연결하고, 협력으로 강화
 - 공공·민간 융합형 ODA+PPP 추진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프로젝트형 수출 확대

[Promote]
가치 확산

- 'Promote K-Value' K-브랜드 경쟁력을 활용
 - K-뷰티·K-푸드·K-패션 중심 프리미엄 시장 공략
 - 디지털 커머스·SNS 마케팅 강화

[Aid]
기술 지원

- 'Aid with Technology' K-기술로 아프리카를 돋고
 - 현지화 + 프리미엄 의료기기 수출 패키지
 - 진단기기·소모품·교육·AS 통합 모델 확산

[Reinvent]
디지털 전환

- 'Reinvent the Digital' 아프리카의 데이터 전환을 함께
 - 데이터센터·전자정부·스마트시티 진출
 - AI·클라우드·보안 통합 서비스 수출

[Keysource]
핵심자원 확보

- 'Connecting Africa's Keysource' 아프리카의 핵심 광물 확보
 - 리튬·코발트·흑연 등 공급망 다변화
 - Tolling·SEZ 기반 현지 정제·가공 진출

S.P.A.R.K
with Africa

협력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곳
지속가능한 변화를 밝히는 불꽃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 SPARK!!

전략 ①

ODA·PPP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기회



전략 수립 배경

- 지속 성장하는 경제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인프라 수요 구조적 확대
- PPP 제도 정비와 재생에너지·전력망 확충 정책을 통한 민간·외국인 투자 유치
- 민간 투자 재개와 도시 인프라 고도화 중심의 고부가 프로젝트 발주 지속
- 한국 기업은 고효율 엔지니어링과 공적·민간·다자금융을 총화하는 ‘EPC+F 구조화’ 역량 보유

□ 현지 동향

- 탄탄한 경제 성장 + 인프라 수요 확대
 - SSA는 '26년 4.4%의 탄탄한 경제 성장이 예상되며, 물가 둔화와 각국 정부의 통화정책 완화에 힘입어 민간 투자심리 개선과 파이프라인 재가동 확인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전력·상수도·인터넷 등 생활·산업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으로 지속 확대
 - * '50년까지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 도시 인구도 약 14억 명 수준으로 확대(UN)
 - 각국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정부 사업을 추진 중이며 PPP 활용 여건을 제도·조달 측면에서 보완 중
 - *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 송전사업 프로그램 공식화, 전력망 확충 로드맵, 공공조달법 제정
 - * (탄자니아) PPP법 개정
 - * (케냐) PPP 법체계 정비 및 감독 역량 강화

SSA 지역 프로젝트 진출 성공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코레일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자니아 SGR(표준궤철도) 건설 감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O&M) 사업 수주, 운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철도망 활용에 이바지 - 한국의 철도 건설·운영 경쟁력을 입증 및 동아프리카 철도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
효성·세안이엔씨 컨소시엄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자니아 전력청(TANESCO) 발주 400·132·33kV 키고마-나카나지 송전선 및 변전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활용 대표적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 EDCF 기반 탄자니아 송전망 사업에 참여하여 동아프리카 전력 인프라 시장 입지 확대
삼성물산·LG CNS· 한솔제지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나이로비 지능형교통통제시스템(ITS) 및 교차로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도시도로청(KURA)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PPP 프로젝트 - 나이로비 도심 및 주요 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지능형 교통 통제 시스템과 버스전용차선(BRT) 도입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개선 도모 - 주요 교차로에 스마트 신호제어 장치를 설치, CCTV와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앙 교통 관제 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

기업명	주요 내용
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Tolaram Group (나이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지리아 라고스 자유무역지대 내에 건설된 Lekki 심해항 - 나이지리아 항만의 병목 혼잡 문제, 물류비 상승, 수출입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설계된 민간투자+정부 협업 형태 프로젝트(BOOT : Build, Own, Operate and Transfer) - 중국 엔지니어링·건설사, 싱가포르·나이지리아 합작 투자사, 나이지리아 연방 및 라고스 주 정부, 항만 운영회사 및 금융기관 등이 참여 - 사업 규모는 13억 5,000만~15억 달러로 1단계 건설이 완료되면 컨테이너 처리능력 연간 약 250만 TEU급, 1만 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접안 가능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KOTRA 아프리카지역본부 작성

□ 유망 품목

- (전력인프라) 송전망 확장, 수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전력·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대륙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6억 명 이상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송·변전 시설 증설 등 인프라 확대 예정
 -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 송전망 확장('34년까지 송전선 약 1만 4,500km 증설), 모잠비크 수력 발전 (1,500MW, 잠베지강), 남아프리카공화국 REIPPPP(태양광 1.8GW+풍력 3.2GW) 등
- (물류·항만) 항만 장비, 터미널 운영 시스템, 전기버스·충전소 설비 프로젝트
 - 역내 교역 증가와 항만 혼잡·하역 대기 등 물류 처리 능력 증대가 시급한 상황으로, 항만·회랑 등 물류 인프라 확대 프로젝트 다수 추진
 - * 탄자니아 다레살람항 확장,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 2단계 확장 프로젝트 등
- (교통) 전기버스(BRT) 충전·차고 인프라, 교통관제 시스템 등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의 이유로 전기 BRT, 스마트 교통체계 사업 등을 추진 중, 장비+운영 결합형 프로젝트가 확대되는 추세
 - * 나이지리아 BRT 확충 프로젝트, 남아프리카공화국 Rea Vaya BRT Phase 3 확장

□ 진출전략

- (ODA 활용) KSP*, EIPP, EDCF* 등 ODA 사업을 아프리카 진출 레버리지로 활용
 - 단순한 원조 기반의 전통적 ODA 접근에서 벗어나, KSP → KSP+ → EIPP → EDCF → 수출 → 현지화로 이어지는 연계형 수출 모델 구축
 - 유·무상원조 사업 참여로 현지에서 사업 경험과 신뢰를 측정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후속 사업 연계를 모색
 - * 모잠비크 천연가스 활성화 지원('24~'25년), 몸바사 대중교통 및 ITS 구축 KSP 사업 등
 - * 다레살람 의료공공조달 진출 지원사업(ODA 컨설턴트 활용, 우리 기업-벤더 간 선제적 관계 형성 → 현지 시장 진출)

- (현지 파트너십) 현지 건설사·엔지니어링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시장 접근성·투자 안정성 등 현지 시장 진출 효율성 확보*
 -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권 취득 및 행정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며, 투자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제도 활용에도 유리
 - * 케냐 나이로비 지능형교통통제시스템(ITS) 사업(케냐 도시도로청-삼성물산 컨소시엄)
- (패키지 진출) 단순 기자재 공급을 넘어 종합 솔루션 제공자로 포지셔닝
 - 한국 기업이 보유한 EPC 및 O&M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건설-시운전-운영·유지보수를 하나의 제안서로 통합 → 신뢰성 및 지속적인 수익 확보
 - * 한전KPS 화력발전소 유지보수 프로젝트(제품+기술+서비스+기술협력 통합 솔루션 제공)

전략 ②

K-프리미엄 브랜드의 부상, 품질·문화·가치를 결합한 아프리카 진출



전략 수립 배경

- (소비 시장 확대) 빠른 인구 증가와 중산층 증가로 소비 기반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신흥 소비 시장으로 부상
- (한류 확산) K-팝·K-드라마·K-푸드 등 한류 확산으로 ‘세련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산’ 이미지 정착
- (모바일·소셜커머스) 모바일 기반 커머스가 중산층 소비의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매김 중
- (포트폴리오 다양성) 광범위한 소비자 라인업을 보유해, 중산층부터 프리미엄층까지 단계별 시장 대응이 가능

□ 현지 동향

- (한류 확산) K-팝·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확산되며, 젊은 도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 → 한국 브랜드 가치 제고에 따른 한국산 제품 선호도 상승
 - 모바일 보급 확대로 한국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 K-팝과 드라마에서 노출된 제품(식품·뷰티·패션 등)을 중심으로 K-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 상승
 - * 화장품 수출액 : 60% ↑, ('23년) 1,400만 달러 → ('24년) 2,258만 달러
라면 수출액 : 42% ↑, ('23년) 520만 달러 → ('24년) 743만 달러
- (모바일·소셜커머스 성장) 모바일 인터넷 보급과 소셜미디어 활용이 증가하며, 디지털 구매 채널이 소비 시장 주요 축으로 부상
 - 오프라인 전통 유통채널도 여전히 주요하나, 온라인·모바일 채널이 도시권 청년층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 아프리카 e-commerce 시장 규모 : ('24년) 14억 달러, ('33년) 약 57억 달러^e,
'24~'33년 연평균 성장률은 17%^e
- (가치 중심 소비 전환) 단순한 가격 위주 선택에서 벗어나 품질·브랜드·지속가능성 등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확산
 - 럭셔리·프리미엄 소비자 수요가 증가 중이며, 친환경 포장·현지생산 제품 선호 등 사회적 책임 브랜드를 우선시하는 가치 소비 트렌드가 대두됨
 -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급 리테일 시장 15% 성장(유로모니터, '25년)
- (경쟁 구도) 중국·인도 제품의 저가·중가 시장 주도, 유럽·미국 제품 프리미엄 시장 형성
 - 한국 제품은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으로 중산층 이상의 니치 시장에 자리하며, K-뷰티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SSA K-뷰티 유통 업체의 현장 목소리

- 현재 아프리카에서 '오징어 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낌
- 화장품·뷰티 제품은 아프리카 소비자들의 선호와 피부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 공략한다면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제품의 라벨과 설명이 영어와 현지어로 제공될 때 신뢰가 높아지며, SNS 마케팅을 통해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이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작용

SSA 소비재 기업 성공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Market Kokoro (남아프리카공화국,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영향으로 성장하는 K-푸드 전문 유통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식품을 포함해 아시안 식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케이프타운, 더반 지역에 10개 프랜차이즈 매장 보유, 온라인 쇼핑몰 동시 운영 -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현재는 K-콘텐츠의 영향으로 MZ세대 및 중산층 포함 일반 소비자층까지 고객 기반 확대
스킨1004 (남아프리카공화국·나이지리아,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파트너십으로 급성장한 K-뷰티 진출 성공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기후 특성과 소비자 취향을 고려 피부 진정, 톤 브라이트닝, 모공 케어 등 아프리카인 피부 맞춤형 제품 개발 - ARC 등 뷰티 전문 매장이나 Medplus 등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에 입점 - '25년 1분기 기준 아프리카 지역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
코스맥스 (케냐,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한 현지 진출 성공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의 뷰티 스타트업 U社와 협력하여 현지 피부에 최적화된 화장품 공동 개발 - 현지 기업은 한국 생산 고품질 제품을 확보해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스키 1004는 현지 기업의 유통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진출 - '흑인을 위한 K-뷰티'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를 실현,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
Ajinomoto (나이지리아, 식품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식문화 융합과 기술 협업으로 아프리카 현지화 성공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지리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소비자 식문화에 기반해, 전통 발효콩 조미료 (Daddawa)를 현대적 공정으로 재가공한 DeliDawa 브랜드 출시 - 원재료는 현지 조달, 일본 본사의 식품 공정 노하우, 아프리카 시장 맞춤형 레시피가 결합된 모델 - 현지 소비자의 조리 방식과 요리 습관을 반영 소용량 포장, 저염 레시피, 즉석 사용 분말형 등 다양하게 개발해 도시지역 여성층과 청년층의 높은 수요를 확보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유망 품목

- (뷰티·패션) 도시 청년층 확대와 그루밍 트렌드 확산으로 뷰티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류 열풍과 맞물려 K-뷰티 제품의 수출 꾸준히 증가
 - *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성 그루밍 시장 : '30년까지 연평균 약 7.1% 성장, 시장 규모 5억 2,700만 달러 전망
 -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갖춘 한국산 제품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으며, 소비 흐름과 취향에 신속히 대응하는 제품·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확장 가능성 높음
- (가공식품) 도시화에 따른 도시 생활 패턴이 가공·간편식 수요를 체질적으로 증가시켰으며, 대형 리테일 채널 확장이 가공·간편 식품의 확산을 가속
 - * SSA 가공식품 판매액 : ('23년) 697억 달러 → ('24년) 1,071억 달러 53.7% ↑
 - 엄격한 식품 안전 시스템 운영으로 수입국 규제 대응력과 신뢰도 확보에 유리하며, K-푸드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수요가 입증됨
 - * '24년 K-푸드 수출 : 130억 3,000만 달러 6.1% ↑ (라면·비스킷·소스·등 14개 품목이 견인)
- (가전제품) SSA 지역에 그리드 확장 등 전력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 유통 확장이 맞물리며 생활·소형 가전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
 - * '24년 SSA 신규 전력 연결 680만 가구('23년 대비 2% ↑)
 - 한국 제품은 우수한 품질·에너지 효율·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소형 가전 중심으로 구성된 SSA 시장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 진출전략

- (허브&스포크) 동·서·남 지역 허브국 선정 → 통관·인증·재고·운영을 표준화 → 수출 우수 품목* 스포크국으로 공급 확장
 - * 화장품, 의료기기, 가전제품, 기계류 등
 - 허브를 중심으로 초기 투자·인증·통관을 집중 처리한 뒤 인접국으로 단계 확장을 하는 구조로, 시장 확장성과 단계적 리스크 분산 가능
 - 대량 수입·검수·포장·라벨링을 통합 처리해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허브에서 가까운 지역의 스포크로 조달이 가능하여 리드타임 단축
 - 물류 접근성+규제·조달 환경+운영 인프라를 종합 평가하여 허브 선정 필요

허브&스포크 운영 예시

분류	위치	역할
허브지사	(동) 캐나다	① 통관·인증·표준화 관리 : 원산지 증명, 라벨링 등
	(서) 나이지리아	② 재고·공급 관리 : 재고 관리, 스포크별 수요 예측 기반 출하 업무
	(남) 남아프리카공화국	③ 마케팅·브랜드 : 제품 SNS 홍보, 국가별 문화·언어에 맞춰 현지화 지원 ④ 본사 ↔ 허브 보고 체계 운영
스포크지사	근접 국가	① 현지 판매·유통 실행 : 대형 리테일·이커머스 입점 운영 및 판매 ② 현지 파트너십·마케팅 : 현지어 기반의 콘텐츠·SNS 운영 ③ 고객 서비스 및 피드백 수집 : 소비자 의견 수렴, AS 등 ④ 스포크 ↔ 허브 보고 체계 운영

- (K-프리미엄) ‘제품+문화+가치’의 K-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품질·디자인·기술력에 한류 콘텐츠, ESG를 결합 ‘제품+문화+가치’의 정체성 구축
- 프리미엄 유통망(Woolworths·Checkers 등)과의 협업, 체험형 팝업스토어·튜토리얼형 프로모션을 통해 브랜드 경험과 감성적 연결을 강화
- 친환경 포장·공급망 투명성·지역사회 이바지 등 ESG 활동을 프리미엄 요소로 통합해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

→ K-프리미엄 전략은 SSA에서 한국 제품은 고품질·문화적 감성·지속가능 브랜드라는 인식을 정착시켜, 단기 매출을 넘어 국가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략 ③

K-의료기기, 현지화·프리미엄 전략으로 SSA 시장 공략



전략 수립 배경

- 보건 인식 개선 및 고령화로 의료 수요 확대, 높은 수입 의존도에 따른 외국 제품 수요 지속
- 공공의료 체계 확충, 민간 투자 유치 등 보건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강화
- 디지털 헬스 혁신과 투자 확대로 공공보건뿐 아니라 민간·기술 기반 의료까지 빠르게 성장
- 한국은 기술력·품질·신뢰성을 기반으로 교육·데이터관리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솔루션을 제공 가능

□ 현지 동향

- 풍토병,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건위생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노년층 인구가 많아지는 등 잠재력이 높은 시장임
* SSA 60세 이상 인구 전망 : ('10년) 4,300만 명 → ('25년) 6,700만 명 → ('50년) 1억 6,300만 명 (WHO)
-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의약품은 소모품 정도에 불과하며, SSA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 품목별 수입률 : (완제품 의약품) 70~100%, (의료기기) 90~100%, (백신) 99% 등
-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의료·보건 산업의 열악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보건정책을 추진 중이며*,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 노력 중
* 공공부문 건강보험 의무화(나이지리아), 말라리아 국가접종 프로그램 확대(서아프리카 국가)

SSA 지역 의료 부분 진출 성공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노을 (서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정부와 공동 수행을 통한 AI 기반 말라리아 솔루션 공공조달 성공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아프리카 배냉 보건부와 3년간 총 63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 - 나이지리아·코트디부아르·배냉 3개국 보건부와 임상 성능평가 공동 수행 후 계약 - 한국의 첨단 진단기술과 아프리카 현지 보건 수요를 융합한 공공보건 협력 성공 모델
신풍제약 (남아프리카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UNICEF 등 국제기구 납품 경험을 통한 공공조달 진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수단에 현지법인 설립 후 WHO·UNICEF 등 국제기구 납품 - 남아프리카공화국 C社와 797만 달러 규모의 유착 방지제 공급 계약을 체결 - 한국 제약 기업의 첨단 의료 소재 기술이 아프리카 외과·수술 시장에 본격 진출
GE HealthCare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인력·정책을 통합한 지속가능한 공공보건 시장 진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개 공공의료기관에 초음파 장비 보급, 간호사·임상 요원 50명 이상 훈련 - 케냐 보건부 정책 개선 및 국가 표준화 연구로 혁신 중 - 단순 장비 공급이 아니라 기술·인력·정책을 통합한 지속가능한 공공보건 모델
Siemens Healthineers (남아프리카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엔드 영상장비+AI 분석+서비스 패키지 결합을 통한 시장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프리카공화국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영상진단 장비 공급과 AI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 제공 - 단순 장비 판매가 아닌 교육, 서비스까지 포함한 토클 솔루션으로 경쟁력 확보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KOTRA 아프리카지역본부 작성

□ 유망 품목

- (휴대형 영상진단) 감염병과 만성질환의 진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인력·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즉시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기기 시장이 빠르게 확대 중
 - * 전력 인프라 제약 : SSA 의료시설의 15%는 無전기, 45%는 전력 불안정 → 배터리형, 저전력, 이동형 진단기기 유망
 - 한국 제품은 소형·저전력·고정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 제품 판매가 아닌 제품+교육+데이터관리를 결합한 패키지 형태의 솔루션 제공 가능
- (모자보건) SSA는 전 세계 산모 사망의 약 70%를 차지(WHO, '23년), 모성·신생아 사망을 낮추기 위한 사전 초음파 등 모자보건 키트 수요가 구조적으로 큼
 - 세계보건기구, 유엔인구기구 등 국제기구의 모자보건 예산 확대로 조달시장의 파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달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의 기회로 작용
- (진단키트) 말라리아, 콜레라 등 감염병 유병률이 높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진단키트의 중요성 및 수요 증가
 - 코로나19 이후 한국산 진단키트의 높은 정확성과 간편한 사용법이 입증되며 현지에서 신뢰도가 크게 상승

□ 진출전략

- (제품 준비) 현지화 + 프리미엄 패키지를 통한 제품 준비
 - 기술제휴·합작법인 설립 등 현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지화 단계를 확대하고, 부품 현지 조달·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정부·의료기관의 수용성 강화
 - 세제·관세·조달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활용, 시장 진입과 운영 효율성 동시 확보
 - 장비+소모품+임상·사용+교육+AS를 결합한 프리미엄 패키지 모델 공급을 통한, 토클 서비스 기반의 지속가능한 의료 솔루션 제공
- (시장 조사) 현지 전시회, KOTRA 사업 참가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조사
 - KOTRA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과 해외시장 조사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 파악, 최신 트렌드 및 각종 조달 정보 입수
 - 아프리카헬스·조달상담회 등 의료 관련 행사를 통해, 현지 파트너&바이어 발굴
- (시장 진출) 공공조달·민간 시장 병행 공략을 통한 전방위적 아프리카 시장 진출
 - 한국 정부 공공조달 ODA 사업 참여를 통해 레퍼런스를 확보, 초기 단계부터 조달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 ODA 사업 후 후속 수출 추진
 - 대형 병원·보건소 등 의료 현장에 샘플 납품, 초기 테스트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도입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및 입소문 형성 → 블록 단위 대량 수출

→ 현지화된 프리미엄 패키지 수출과 공공·민간 병행 진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

전략 ④

K-클라우드·보안·AI가 이끄는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로드맵



전략 수립 배경

- 데이터센터·클라우드 투자 확대 등 스마트 서비스의 기본 인프라 확충
- 첨단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며, '스마트 뉴딜' 성격의 산업 부상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관련 시장의 선제적 성장 필요
- 한국의 선진 ICT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공공 행정 분야에서 한국형 모델 수요 증가

□ 현지 동향

- 전자정부·클라우드·모바일결제·콘텐츠 등 데이터 처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투자를 확대하며 스마트 서비스의 기반 인프라 확충
 - 아프리카 데이터센터 시장은 '24년 34억 9,000만 달러 → '30년 68억 1,000만 달러 전망
- 전자정부 구축, 신도시 개발, 스마트시티 건설 등 첨단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면서 '스마트 뉴딜' 성격의 ICT 산업이 부상
 - 광대역 접속,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AI 연계 네트워크 등 프로젝트 다수
- 케냐 콘자 테크노폴리스*, 르완다 키갈리 이노베이션 시티, 남아프리카공화국 란세리아 스마트시티 등 그린필드형 신도시와 기존 대도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병행
 - * '17~'24년 한국형 ODA(KSP-EIPP)를 통해 타당성 조사 및 환경·사회 영향 평가 완료

SSA 지역 ICT 부분 진출 성공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우리엘소프트 (탄자니아, 부룬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자니아·부룬디 스마트공항 통합 솔루션 수출 성공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장비 판매가 아닌 통합형(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 운영 컨설팅)을 결합한 통합 시스템 및 서비스 모델) 스마트공항 시스템 수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OTRA IT 컨소시엄 수출 지원사업 활용 수출 성공
Trimble (아프리카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파트너와 협력, 현지 서비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한 스마트팜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조종 시스템 + 데이터 분석 + 작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결합한 스마트팜 패키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식 파트너사가 지역별 기후·토양 등 현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보정 및 유지보수 체계를 확보 → 현지 서비스형 솔루션으로 변환 현지 대학·농업연구기관과 기술 실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장 인식 제고
Remitly (아프리카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송금 플랫폼의 아프리카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A 지역은 은행 계좌 보유율이 낮고 모바일 머니(M-Pesa, MTN MoMo 등)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 송금인이 모바일 머니 계정으로 직접 송금 가능하도록 기능 강화 다국 통화 지원(케냐 실링, 나이라, 프랑 등) 사용자 언어·UI 현지화, 수수료·환율 표시 투명화로 현지 신뢰 확보 SSA 포함 40여 개국으로 송금 가능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KOTRA 아프리카지역본부 작성

□ 유망 품목

-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장비) 냉각시스템·전력 장비 등
 - 전자정부·핀테크·이커머스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확대되고, 인터넷 속도와 데이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 →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
 - * 다국가 메트로-엣지 데이터센터, 범아프리카 결제·정상 시스템(PAPSS), e-Tax 플랫폼 등
 - 한국 제품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SSA 지역의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고밀도·고효율 데이터센터 기술과 미국·유럽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보유
- 데이터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및 관리 솔루션
 - 하드웨어 중심인 데이터센터이지만 운영 효율화, 자원 관리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추세
 -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클라우드 전환 경험을 보유
 - * 케냐·르완다·가나 등은 한국형 e-Gov 클라우드 모델을 참고해 시스템 이행 로드맵 작성

□ 진출전략

- (패키지 수출) 데이터센터 인프라 + 운영 소프트웨어 + 보안·분석 통합 서비스
 - 통합 서비스에 컨설팅·AS·현지 인력교육을 포함한 서비스형 수출 모델 제안
 - 클라우드 기반 통합 보안 솔루션(암호화·IAM·로그관리·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정책·세수·교통·보건 등)을 연동한 형태로 설계하여 현지 사회의 문제 해결 솔루션으로 접근
- (ESG 경영) 전문인력 부족 등 사회적 문제 해결형 ESG 추진
 - SSA 국가들의 전문인력 부족 등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교육·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 사업 제안 단계에서 교육·훈련 모듈을 필수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인적역량 강화 방안 명문화
 - 현지 대학·직업훈련기관·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자립적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교육체계 구축
 -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운영·유지보수·보안관리 등 ICT 전문기술을 현지 인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SSA 시장에서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통합형 디지털 인프라 패키지 + 인재 양성형 ESG 모델’로 접근, 이는 기술적 신뢰 확보와 동시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K-ICT 수출로 SSA 시장 공략

전략 ⑤ SSA 핵심 광물 기반 공급망 안정화 및 자원 개발 협력 강화

□ 현지 동향

- (자원부국의 부상) SSA는 세계 주요 핵심 광물의 보고(寶庫)로 평가되며, 향후 10년간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핵심 지역으로 부상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 1위 망간 생산국이자, 백금족 금속(PGM) 및 바나듐의 주요 공급지로 전기차 촉매·수소연료 산업에 필수적인 위치
 - 나미비아는 리튬·희토류·우라늄 등 전략 광물 개발이 활발하며, 탄자니아와 모잠비크는 니켈·흑연 등 전략 광물 투자 확대 중
- (정책 변화) 아프리카 주요국들은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현지 정제·가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산업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가별로 원광 수출 금지, 정제시설 설립 시 세제 인센티브 제공, 정제·제련시설 현지 설치 의무화 등 단순 채굴이 아닌 부가가치화 단계의 투자로 전환
- (공급망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전환으로 인해 SSA 지역이 미국·EU·중국 등 주요 경제권의 공급망 전략 경쟁이 집중되는 핵심 거점으로 부상
 - 미국·EU :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양골라 간 광물 수출 루트 구축
 - 중국 : '자원-인프라 교환' 모델을 기반으로 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짐바브웨 등지의 광산 지분 확보 및 정제 플랜트 직접 운영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통한 광물 확보

기업명	주요 내용
율호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자니아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JV)을 통한 니켈 선광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자니아의 미개발 니켈 황화물 매장지에서 저품위(3-5%) 원광을 고품위 정광으로 가공 후 한국 제련소로 수출할 계획 - 연 3만 톤 생산 규모 선광장을 건설하며, 4개 광산 텁사 완료, '25년 5월부터 시추를 시작해 '26년 상반기 채굴권 확보 및 선광장 완공 목표 - 광산 개발 이전에 가공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 현지 부가가치 창출, 단계적 수익 실현을 도모

자료: 기업 홈페이지

□ 유망 품목

국가	주요 광물	유망 진출 분야	특징
남아프리카공화국	망간, PGMs, 바나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RFB(바나듐 레독스) 전해질 생산 • PGM 촉매·수소전해 기술 응용 • 광산·가공 장비·소모품 패키지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GM·망간 세계 1위급 매장국 • 전력·도로 등 인프라 우수, 허브 역할 수행 • 탄소중립·수소경제 전환 정책 가속
탄자니아	니켈, 흑연, 희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켈·흑연 정제 및 음극재 생산 • 리튬 1차 가공라인 투자 • ESG·폐수처리 설비 패키지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5월 리튬 원광 수출 금지 시행 • 광물가공특구 조성, 세제·관세 혜택 부여 • 동아프리카 니켈벨트(EANB) 중심지
짐바브웨	리튬, PG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리튬·전구체 파일럿 플랜트 • 리튬 정제설비 EPC·기자재 수출 • PGM 촉매·수소연료 전해소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UAE·인도 등 경쟁 심화 • 외자 유치와 가공 시설 인센티브 병행
나미비아	리튬, 희토류, 우라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토류 분리·정제 시설 • 모듈형 정제 설비(리튬·흑연) • 그린전력(PPA) 연계형 광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공 수출 금지('23년~), 가공 인센티브 제공 • 세계 6위 우라늄 생산국, 재생에너지 전환 활발 • ESG·환경규제 엄격, 고신뢰 파트너 선호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테이크 계약 기반 정광 가공 • 친환경 제련·슬러지 처리 설비 • 디지털 광물추적(MRV)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코발트 생산의 76% 차지 • 정제·가공 의무화 강화, 정부 지분 확대 • 로비토 회랑 완공 시 물류비 절감 가능
짐비아	코발트, 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 정광·합금 생산 시설 • 배터리급 구리 전해정제 설비 • 기술인력 양성센터(OJT)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Dawn Mining Policy'로 민간 투자·현지화 유도 • 로비토 회랑 연계로 수출물류 개선 • 안정된 정치환경, 전력공급 인프라 우수
모잠비크	흑연, 모나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순도 구상흑연 정제 공장 •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용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상위 흑연 생산국, 항만 접근성 우수 (나킬라·베이라항) • 인프라 개선 사업 활발, 외자 참여 여지 큼
마ダ가스카르	흑연, 니켈, 크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연 고순도 가공 및 수출 • 중소 규모 니켈 채굴·정제 장비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량 2,600만 톤, 고순도 천연흑연 보유 • 안정된 정치·법제 기반, 기술협력형 진출 유리

자료: 언론보도 종합, KOTRA 아프리카지역본부 작성

□ 진출전략

- (가공 위탁) 현지 광산이 보유한 정광을 한국 기업이 설치·운영하는 모듈형 설비에서 위탁 정제(Tolling) 방식으로 처리하고, 산출물은 일정 비율로 배분
 - 원광 수출이 제한된 국가에서 합리적인 진출 대안으로, 현지 광산은 광산을 제공, 한국 기업은 정제 설비·기술 운영·환경 관리 서비스를 일괄 제공
 - 정제 후 산출물은 일정 비율로 배분, 정제의무 규제 대응 및 현지 부가가치 창출
- (SEZ 활용) 각국 정부가 추진 중인 광물가공특구(SEZ)에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로 참여하여 초기 산업 생태계를 선도
 - 한국 기업은 정제 기술·환경 관리·인력 훈련 분야의 핵심 파트너로 진입, 세제 감면, 토지임대료 감면, 통관 간소화, 전력·수도 등 인센티브 혜택 활용



전력 기자재(재생에너지·노후 발전소 유지보수)

- 선정사유**
- 남아프리카공화국·나이지리아 등은 전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로 전력 기자재 교체 수요가 지속 증가 중
 - 태양광·풍력 확대와 함께 송배전 장비, 변압기, 인버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음
 - 한국 기업은 품질과 신뢰성이 높아 아프리카 전력 인프라 개선에 적합
- 경쟁동향**
- 중국은 저가와 빠른 납기를 앞세워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 기업은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는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현지 파트너 협력이 중요
- 진출방안**
- ① 재생에너지용 인버터, 변압기, 제어장비 등 고효율 장비 중심의 수출 확대
 - ② 현지 전력공사나 설치 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납품·AS 대응력 강화
 - ③ 한국 수출금융 지원제도(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 확보
 - ④ 현지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 거점을 마련해 장기적 신뢰 확보
- 유망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

의료기기

- 선정사유**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의료기기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큼
 - 남아프리카공화국·케냐·나이지리아는 공공의료 확대와 민간 병원 증가로 진단장비, 소모품, 병원 설비 수요가 꾸준함
 - 한국 의료기기는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중간급 병원과 클리닉을 중심으로 진출 여지가 큼
- 경쟁동향**
- 미국·유럽 브랜드가 고급 시장을, 중국·인도가 저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국은 SAHPRA(의료기기 인증) 등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가격뿐 아니라 AS와 신뢰성도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
- 진출방안**
- ① 진단·영상·정형·소모품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집중
 - ② 현지 유통사와 독점·공동판매 계약을 통한 시장 접근
 - ③ 인증·등록 절차 지원을 현지 파트너와 함께 추진
 - ④ 시연·교육 중심의 마케팅으로 브랜드 신뢰도 제고
- 유망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가나,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의약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A 지역은 감염병·만성질환이 모두 확산되고 있으며, 현지 생산 역량이 낮아 대부분의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함.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의약품 수요가 꾸준히 확대 중이며, 한국 제품은 품질 신뢰도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가짐.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와 중국이 제네릭 중심의 저가 시장을 주도하고, 유럽은 브랜드 의약품 위주로 공급함. 현지 정부는 필수의약품 확보를 위해 WHO 인증(GMP) 보유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국가는 자국 내 생산 확대 정책을 병행 중임.
진출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네릭·OTC·건강보조제 등 수요 높은 품목 중심 수출 확대 ② WHO 인증 및 현지 등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뢰 확보 ③ 현지 제약사 또는 유통사와 합작·위탁생산(MOU) 추진 ④ 공공조달·보건부 입찰을 통한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에티오피아 등

건설중장비·건설기계부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A 지역은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등 대형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며, 이에 따른 중장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케냐·나이지리아·탄자니아는 도시와 광산 개발로 굴착기, 로더, 덤프트럭 및 부품 교체 수요가 많음 한국 장비는 내구성과 효율성이 높아 현지 건설사·광산 업체에서 선호도가 상승 중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이 저가 장비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미국·유럽 브랜드가 고급 시장을 유지하고 있음 부품은 중국산 비정품이 많아 품질 이슈가 잦고, 신뢰성 높은 한국산 교체부품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
진출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설기계·부품 패키지 공급 및 유지보수 서비스 병행 ② 광산·건설 현지 딜러망 확보, 정비·AS 강화 ③ 현지 조립 또는 수리센터 협력으로 납기 단축 및 브랜드 신뢰 확보 ④ ODA·PPP 인프라 프로젝트 납품 연계로 시장 진입 확대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가나,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화장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SSA 지역은 젊은 인구와 도시화 확대에 따라 미용·패션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K-뷰티에 대한 관심도 상승 중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나이지리아·케냐 등에서는 한류와 SNS 영향으로 한국 스킨케어, 마스크팩, 색조 제품의 인지도가 높음현지 생산 기반의 약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 제품 진출 여건이 양호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프랑스·미국·남아프리카공화국 브랜드가 주류 시장을 차지하며, 중국·인도 제품이 저가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최근에는 천연 성분·비건 콘셉트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통은 대형 주요 리테일 체인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이루어짐
진출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천연 성분·비건 콘셉트 K-뷰티 라인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 제품 제안② 현지 유통망·온라인몰 입점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병행③ 피부톤·기후에 맞춘 제품 현지화 및 샘플 체험 행사 추진④ 현지 인증(SAHFRA, NRCS 등)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가나,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자동차 부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등은 차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 생산 기반이 약해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에 의존노후 차량 비중이 높고 도로 사정이 열악해 소모성·정비용 부품의 교체 수요가 크며, 중고차 수입 증가도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한국산 부품은 품질과 가격의 균형이 좋아, 일본·유럽 차량의 대체용으로 적합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국과 인도산 제품이 저가 시장을 주도하지만, 내구성 부족으로 신뢰도가 낮음일본은 OEM 정품 위주로 고가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 유통망은 비공식 시장(소규모 상점·수입상)이 여전히 중심케냐·나이지리아는 자동차 부품 조립 및 경량차 부품 국산화를 장려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
진출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브레이크, 필터, 벨트, 배터리 등 교체주기 짧은 부품 중심으로 진출② 현지 수입상·정비소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소매 시장 접근③ 가격 경쟁력 있는 패키지 수출 및 OEM 납품 확대 모색④ 부품 전시회·서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으로 브랜드 신뢰 확보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나이지리아, 가나,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등

농기계

- 선정사유**
- SSA 지역은 농업이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인력 의존형 농업 구조로 기계화 수준이 낮음
 - 정부 주도의 식량 자급 정책,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도입 확대에 따라 소형 트랙터, 경운기, 수확기, 양수기 등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
 - 한국산 농기계는 중소형 중심으로 내구성과 효율이 높아 중소 농가에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됨
- 경쟁동향**
- 인도·중국 제품이 저가 시장을, 일본·미국 브랜드가 고급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현지 부품 공급과 유지보수 체계 부족으로 간단한 구조·손쉬운 정비가 가능한 제품 선호
 - 각국 정부는 농기계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개발은행·ODA 기반 지원사업도 활발
- 진출방안**
- ① 소형 트랙터·경운기·부속 장비 패키지형 수출 추진
 - ② 농업부·농기계 공공조달사업 연계 및 현지 딜러망 구축
 - ③ 부품 공급·수리센터 운영으로 AS 접근성 강화
 - ④ 현지 실증·시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품 신뢰 확보
- 유망국가**
- 가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의료

- 선정사유**
- SSA 지역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민간 병원 의존도가 높음
 - 중산층 증가와 건강 의식 확산으로 검진, 재활, 미용·치과·원격진료 서비스 등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
 - 한국의 병원 운영 노하우와 ICT 기반 헬스케어 기술은 현지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강점을 가짐
- 경쟁동향**
- 인도·중동계 병원이 고급 진료와 저가 서비스를 결합해 시장 진출 증가 중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는 민간 병원·의료센터 확충이 활발하지만, 의료진 부족과 장비 노후화가 문제로 지적됨
 - 원격진료, 모바일 헬스케어 등 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진출방안**
- ① 원격진료·건강검진센터·재활클리닉 등 한국형 모델 제시
 - ② 현지 병원과 협력한 합작 진료소·교육센터 운영
 - ③ 의료인력 연수·기술 자문 등 소프트 진출 병행
 - ④ 의료기기·IT 솔루션 연계형 서비스 패키지로 시장 확대
- 유망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가나,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ICT

- 선정사유**
- SSA 지역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며, 정부 서비스·금융·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ICT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모바일 통신 보급률이 높고, 펜태크·전자정부·스마트시티 구축 등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활용 될 여지가 큼
 - 특히 케냐·나이지리아·루완다 등은 ICT 허브 국가로 성장하면서 시스템 개발·데이터 관리·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급증 중
- 경쟁동향**
- 미국·유럽 빅테크 기업이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도하고, 중국은 통신장비·스마트시티 솔루션으로 영향력 확대 중
 - 현지 IT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기술·보안·운영 경험이 부족하여 해외 기술 협력 수요가 높음
 - 정부 주도의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늘고 있어 공공부문 진출 기회가 커지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보안·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의 한국형 솔루션 제안 ② 현지 통신사·IT 기업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공동 수행 ③ K-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개발자 교육·인큐베이팅 연계 ④ ODA·공공조달사업 연계형 ICT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참여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가나,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인프라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A 지역은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도로·철도·항만·상하수도 등 기반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따르면 연간 약 1,8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제 충족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 • 한국은 도로, 플랜트, 수처리, 산업단지 등 공공 인프라 개발 경험이 풍부해 현지의 기술·운영 역량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자금력과 시공 속도를 앞세워 인프라 시장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럽·미국은 개발금융·PPP 중심으로 고부가 프로젝트를 선호 • 최근에는 투명 조달·지속가능성·현지 참여 비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져, 단순 시공보다 운영·유지보수·기술이전형 프로젝트로 이동 중 • 현지 기업은 시공 능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과 기술력에서 한계가 있어 해외 파트너를 적극 찾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ODA·MDB 연계형 사업 참여 : AfDB, WB, KOICA 등과 공동사업 추진 ② PPP(민관협력) 및 EPC+운영 모델로 진출, 시공 이후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패키지 제안 ③ 산업단지·스마트시티·수처리시설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 중심으로 타깃화 ④ 현지 정부·건설사·컨설팅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입찰 경쟁력 확보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가나,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에너지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A 지역은 전력 부족이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히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신재생 에너지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오름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만 발전·송배전 인프라가 취약해 설계·시공·운영·유지보수(O&M) 전 과정에 수요가 큼 • 한국은 발전·송배전·ESS·스마트그리드 등 전력 관련 서비스 경험이 풍부해 현지의 전력 개선 사업에 적합
-------------	---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국은 자금 조달과 EPC 중심으로 대형 발전소를, 유럽은 기술·지속가능성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잠비아 등은 민간 발전사업(IPP)과 PPP 모델을 확대하며 외국 기술 파트너를 적극 유치 중현지 기업은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이 부족해 외국 기술 지원 서비스 의존도가 높음
진출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태양광·풍력 발전소 설계·운영·유지보수 패키지 형태로 진출전력망 안정화·스마트그리드·ESS 솔루션 결합 제안ODA·JEETP·MDB 프로젝트에 한국형 기술 지원·컨설팅 참여현지 엔지니어 교육·기술이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기 협력 기반 확보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가나,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사이버보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SSA 지역은 전자정부, 핀테크, 온라인 교육,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음국가·기업 모두 보안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부족해 보안 솔루션·컨설팅·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한국은 금융·공공·산업 제어 분야에서 축적된 보안 기술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파트너로 평가받을 수 있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유럽 보안업체들이 대형 정부·금융기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이스라엘은 중소형 솔루션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중국은 통신장비 기반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지만 데이터보호·신뢰성 문제로 한계를 보임현지 IT 기업들은 보안 대응 인력이 부족해 해외 기업과의 기술제휴를 적극 모색 중
진출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보안관제, 데이터보호, 금융·공공용 보안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현지 정부·은행·통신사 대상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지 IT 기업·대학과 협력해 인력 양성·기술이전 병행K-보안 브랜드화 및 국제 인증(ISMS, ISO 등) 홍보로 신뢰 확보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가나,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아프리카 지역 KOTRA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소비재	한국 유망 화장품 쇼케이스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4분기/가나
	나이지리아 소비재·전문 유통망 시장 진출 온오프라인 상담회	연중/나이지리아
	Beauty West Africa 전시회 연계 K-Beauty 한국관·홍보관 운영	11월/나이지리아
	2026 남아프리카공화국 유통망 진입 지원 사업	연중/남아프리카공화국
	2026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	연중/남아프리카공화국
	2026 남아프리카공화국 K-패션 진출 지원 사업	연중/남아프리카공화국
	K-Consumer 오프라인 판촉전	6월/코트디부아르
	K-Beauty 온라인 사절단	미정/코트디부아르
	유망 소비재 동아프리카 진출 지원 사업 (팝업스토어 및 B2C 쇼케이스)	3월/탄자니아
의료·바이오·헬스	나이지리아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진출 상담회	9월/나이지리아
	2026 World Health Expo 케이프타운 전시회 한국관 참가 사업	10월 13~15일/남아프리카공화국
	Ethio Health Congress 연계 마케팅 사업	3월/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진출 설명회	미정/코트디부아르 온라인
	유망 의료기기 동아프리카 진출 지원 사업 (벤더등록 지원 및 1:1 B2B 상담회)	5월/탄자니아
프로젝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연중/가나
	공공조달 지원센터 운영	연중/모잠비크
	모잠비크 가스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참가 지원	
	발주처 방한 유치	
	주요 프로젝트 발굴 및 전파	연중/에티오피아
	주요 공공조달 프로젝트 발굴 및 전파	연중/에티오피아
	KSP 발굴, 공공 조달 시장 진출 지원	연중/캐냐
소재 부품	농업·의료·제조업 등 주요 프로젝트·투자 진출 지원	연중/캐냐
	프로젝트 발주처 초청 세미나 및 상담회 (인프라, 건설, ICT, 광산업, 환경 등)	9월/탄자니아
	중고차 및 자동차부품 동아프리카 진출 지원 사업	2월/탄자니아
	2026 ATT(Africa TransporTech) 미래차 온라인 상담회	1분기/남아프리카공화국 온라인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종합	다례설람국제무역박람회(DITF 2026) 연계, 한국 상품 홍보의 날	7월/탄자니아
	화상 상담회	연중/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및 관할지 시장조사 및 전파	연중/에티오피아
	국내 상담회, 전시회에 바이어 유치	연중/에티오피아
	BIG5 Construct Ethiopia 홍보부스 참가	6월/에티오피아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사화 사업 지원	연중/모잠비크
	수출 중단기업 수출재개 지원	
	수출상담회 등 화상상담 지원	
	'26년 마푸투 국제종합 박람회(FACIM 2026)	8월 말/모잠비크 오프라인
개발 협력 및 경제 협력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연중/모잠비크
	온실가스 감축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지원	연중/가나
	KSP 발굴,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연중/가나
인프라	K-Rice Belt 사업 연계 농업 프로젝트 진출 지원	연중/가나
디지털 마케팅	KSP/EIPP 사업 수요 발굴과 지원	연중/모잠비크
	KSP, EIPP 사업 홍보 및 발굴	연중/에티오피아
수출 지원	나이지리아 인프라 프로젝트 상담회 개최	연중
	나이지리아 K-Product 디지털 마케팅	연중
	내수·초보기업 수출지원	연중/가나
	내수·초보기업 수출지원	연중/케냐
	주요산업(의료·소비재·기계류 등) 수출·거래선 관리 지원(지사화 연계)	연중/케냐
	Agritec 2026 전시회 연계 농기계·자재 진출 지원	6월/케냐
	한국 주간 행사 연계 대중소 기업 컬래버 로드쇼	10월/케냐
	K-Beauty 설명회 및 상담회	미정/케냐 온라인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가나] Africa Security Symposium, 2026(ASEC)	6월 2~4일	아프리카 안보 담당자 참석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초자치단체(지방) 선거	11월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SADC 의장국 수임	'26~'27년	
[에티오피아] 총선	연내(잠정)	
[케냐] 내정 자치 기념일(Madaraka Day)	6월 1일	
[케냐] 독립 63주년 기념일(Jamhuri Day)	12월 12일	
[코트디부아르] 2025년 주재국 대통령 선거	10월 25일	
[탄자니아]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6월	
[탄자니아] 5개년 개발계획 2026/27-2030/31	6월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가나] 외국인투자유치법 법령 개정안 발표	7월 7~9일	연말 초안 검토
[가나] 에너지법 개정안 발효	연초	
[남아프리카공화국] 2026 예산안 발표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2026 중기 예산 정책 연설	10월	
[에티오피아] WTO 가입 추진	3월	
[케냐] 2026/27 예산안 발표	6월 중	
[코트디부아르] 2025년 개정 투자코드 본격 시행	'25년 1월~	현지 고용·조달·기술이전 요건 강화
[코트디부아르]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 의무화	'24년 7월~	에어컨, 냉장고, 전기조명기구 의무 표시
[코트디부아르] AGOA 만료 및 갭신 불확실성	'25년 9월 만료	코트디부아르 對미 무관세 수출혜택 종단 우려
[코트디부아르] AfCFTA 본격 시행	'26년~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관세 단계적 인하
[코트디부아르] EU-코트디부아르 EPA 지속 이행	계속	2029년까지 EU 수입품 85%에 대한 관세 단계적 철폐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가나] WAMPEX	6월 3~5일	
[가나] Africa Build Show Ghana	7월 7~9일	
[가나] MegaWatt Africa(MWA) Accra 2026	7월 7~9일	
[나이지리아] Securex West Africa	3월	
[나이지리아] Nigeria Manufacturing & Equipment Expo Lagos	3월	
[나이지리아] West Africa Hvac Expo	5월	
[나이지리아] Lagos Motor show & Autoparts Expo	6월	
[나이지리아] PROPAK	9월	인쇄 포장
[나이지리아] Abuja Int'l Trade Fair	9월	
[나이지리아] Medic West Africa	10월	
[나이지리아] Lagos Int'l Trade Fair	11월	
[나이지리아] Beauty West Africa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Africa Energy Indaba	3월 3~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Manufacturing Indaba	7월 14~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PharmHealth South Africa	7월 23~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Africa Tech Festival(AfricaCom/AfricaTech)	11월 예정	
[모잠비크] 제60회 마푸투 국제종합 박람회(FACIM 2026)	8월	
[에티오피아] Hortiflora	3월 24~26일	
[에티오피아] Ethio Health	4월 2~4일	
[에티오피아] Ethiopia Agrofood	6월 4~6일	
[에티오피아] Ethiopia PlastPrintPack	6월 4~6일	
[에티오피아] The Big5 Construct Ethiopia	6월 18~20일	
[케냐] KENYA INTERNATIONAL TRADE SHOW	2월 5~7일	산업 전반
[케냐] AUTO PARTS AFRICA	2월 중	자동차, 전동기기 부품, 배터리 등
[케냐] AFRICA AGRI EXPO	2월 11~22일	농기계, 축산, 곡류·사료, 농업기술

주요 행사	일시(점정)	비고
[케냐] PROPAK EAST AFRICA	3월 3~5일	포장·플라스틱, 패키징 기계, 소재 등
[케냐] BEAUTY KENYA	4월 중	미용, 화장품, 스킨케어 등
[케냐] MED EXPO KENYA	4월 22~24일	의료기기, 제약, 헬스케어
[케냐] EAST AFRICA TEXTILE & LEATHER WEEK	4월 30일~5월 2일	섬유, 패션, 가죽 등
[케냐] POWER & ENERGY AFRICA	(1전시) 7월 29~31일 (2전시) 8월 26~27일	에너지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저장, 전력 설비, 케이블, 충전
[케냐] AGRITEC & DAIRY LIVESTOCK, POULTRY AFRICA	6월 중	농축 산업 전반
[케냐] BUILD EXPO KENYA	7월 8~10일	건설 기자재, 건설용 내장재·소재 등
[케냐] KENYA HOMES EXPO	4월, 10월	주거, 가전, 인테리어, 건축자재(연 2회)
[케냐] THE BIG 5 CONSTRUCT KENYA	11월 중	건설 기자재, 건설용 내장재·소재 등
[코트디부아르] West Africa Agrofood 2026	10월	
[코트디부아르] Ivory Coast Build Expo 2026	6월	
[코트디부아르] Ivory Coast HVAC R & Water Expo 2026	6월	
[탄자니아] Grains Africa 2026	1월	
[탄자니아] Dar es Salaam International Trade Fair	6월	
[탄자니아] Nanenane Inter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2026	8월	
[탄자니아] Power & Elect Tanzania 2026	8월	
[탄자니아] Medexpo 2026	9월	
[탄자니아] 7th Tanzania Mining & Investment Conference 2026	11월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신지오	차장	아프리카지역본부	+27-11-784-2940	ironman@kotra.or.kr



2026 아프리카 진출전략



ISBN: 979-11-402-1477-8 (93320)
979-11-402-1478-5 (95320) [PDF]